

보험동향 2015년 봄호

-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부 록〉 말레이시아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 현황
(이아름 연구원)
〈부 록〉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고려사항
(이선주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과 시사점 / 1

2012년 암발생률 동향 및 시사점 / 22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7

2. 국내경제 / 54

3. 금융경제 / 67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3

2. 생명보험 / 77

3. 손해보험 / 92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16

2. 영국 동향 / 123

3. 일본 동향 / 132

4. 중국 동향 / 140

〈부 록〉 말레이시아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 현황 / 150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고려사항 / 176

부록 I. 통계표 / 187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94

I. 테마진단

▣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존 금융감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각국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련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 이 글을 통하여 영국과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감독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

○ 각국은 주기적으로 또는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와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검토하여 감독목적에 최적화된 금융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¹⁾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거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음.

1) 시스템리스크는 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정의됨.

- 미국과 영국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인 금융안정성 모니터링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음.
- 호주의 경우,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자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바탕 위에 효과적인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1998년 현재의 쌍봉형 체계로 금융개혁을 단행하였음.

■ 우리나라도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및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문제 등 일련의 금융감독 관련 문제점이 불거지며 현재의 통합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감독기구를 재편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일련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패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중심 감독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됨.
- 따라서 현재처럼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준 독립기구 형태로 두는 것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진행²⁾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금융감독의 여러 목적과 전반적인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회사 사업모형의 진화 및 금융상품의 복잡화 등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환경 아래 미시건전성, 금융안정성, 시장규율과 같은 다양한 금융감독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한지도 16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금융 시장과 환경에 맞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 본고는 해외 주요국이 거쳤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과정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의 목적과 접근방법에 비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영국 사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한 호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 금융감독의 목적과 접근법

금융감독은 크게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바탕 위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만드는 4가지 목적을 가짐.

이를 위한 금융감독 접근방식은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 통합형 감독과 쌍봉형 감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금융감독의 목적

- 금융감독은 크게 미시건전성, 금융안정성, 시장규율, 금융소비자보호라는 4가지³⁾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미시건전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금융소비자(예금자, 계약자, 투자자 등)의 자산을 보호
- 금융안정성은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전이를 통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완화
- 시장규율은 금융회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시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는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감독자는 금융회사가 지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함.

3) G30(2008). 한편 Llewellyn(1999)은 금융감독의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들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도 건전성이라는 제약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유효경쟁을 통한 시장규율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므로 본고는 감독목적에 시장규율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함.

- 특히 은행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보는 금융감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이를 위한 충분한 자본의 확보는 건전성 감독의 주요 관심사항임.
- 시스템리스크⁴⁾는 금융시스템 한 부분의 리스크가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고 결국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기능을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발생 시 전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움.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여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금융그룹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됨.
-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장규율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면 더 나은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되고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향상됨.
 - 단, 투명성을 향상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유지와 같은 다른 금융감독 목적과는 상충될 수도 있음.
-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와 금융중개인이 금융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Fair Treatment)하도록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함.
 - 이들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시장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발전을 이끌어냄.
 -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함께 금융감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중요성이 제고됨.

4)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접근은 크게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로 대별되며 상향식 접근(Bottom Up Approach)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주된 접근법이나, 지난 10년 간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거시건전성을 우선하여 모니터링하는 하향식 접근(Top Down Approach)이 재조명 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의 4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지만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당면한 금융환경과 과거 금융위기나 금융관련 사고와 같은 국제적 경험에 의존하여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히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감독 상의 문제를 노정하였으며, 따라서 최근 금융개혁은 주로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G20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미비로 인한 여러 금융사고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형성됨.

-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은 효과적인 금융감독 실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임.

나. 금융감독의 접근방법과 특성

-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상의 접근방법은 크게 기능별 접근과 기관별 접근, 통합형 접근과 쌍봉형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음.
 - 어떠한 접근방법도 그 자체로 우월할 수는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개발단계, 금융시장 환경 등 많은 요인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됨.

(1) 기관별 vs. 기능별 접근

- 금융감독의 기관별 접근방법은 가장 오래된 금융감독 접근방법으로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에 따라 감독기관이 정해지며 한 권역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한 감독기관이 담당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은행은 한국은행,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원, 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에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별 접근방식을 취했음.
-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가 한정되며 이에 따라 감독기관의 감독범위도 정해지는 단순한 형태의 감독체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의 복합화 추세로 인해 금융회사의 사업영역이 수렴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동일한 사업기능에 대해 해당 규제가 달라지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관별 접근방식의 한계가 인식되기 시작함.
- 한 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전체를 통괄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금융안정성 측면의 취약점도 가짐.

■ 금융감독의 기능별 접근방법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기능에 따라 감독기관이 정해지는 감독방식으로 각 기능별 감독기관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기능에 따른 건전성 및 영업행위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함.

- 사업기능은 주로 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 및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기능을 갖는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하므로 규제차익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기능에 따라 감독기관이 정해져야 하지만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사업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감독 사각 또는 중복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한 금융회사가 여러 형태의 금융사업을 영위하면 여러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이 증가하고 감독기관 간 협조와 정보공유 등이 문제될 소지도 있음.
- 기관별 감독과 마찬가지로 한 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전체를 통괄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금융안정성 측면의 취약점도 가짐.

(2) 통합형 vs. 쌍봉형 접근

- 통합형 접근방법은 한 기관이 모든 법적 형태의 금융회사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 및 소비자보호까지 통합하여 감독하는 방식임.
 - 1990년대 들면서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해지고 금융업 간 칸막이가 없어지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기능별 접근과 기관별 접근방법 모두 한계를 드러내면서 통합형으로 금융감독 접근방법의 추세가 이동하게 됨.
 - 독일(Bafin⁵⁾), 일본(금융청, FSA⁶⁾), 우리나라(금융감독원, FSS⁷⁾) 등이 통합형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

- 통합형 접근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한 감독기관의 금융감독만 받으면 되므로 일관성 있는 규제와 규제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선호하는 감독체계로 볼 수 있음.
 - 단, 거대 금융시장의 통합감독은 내부적으로 기능별 또는 기관별 하부조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부조직 간 소통과 정보교환은 여전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임.

- 통합형 접근방법의 단점으로는 한 기관에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함께 담당하므로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는 경우 기관의 금융감독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목적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 기관이 전 금융시장을 아울러 감독하므로 감독실패 시 대안이 없으며 감독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그 자체로는 작동하지 않음.
 - 규제기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효율적 사무기관(Bureaucracy)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존함.

5)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6) Financial Services Agency.

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 쌍봉형 접근방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자보호 문제가 금융감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감독접근으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각각 독립적인 감독기관에서 담당함.
 - 현재 영국(PRA, FCA), 호주(APRA, ASIC) 등이 쌍봉형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
- 쌍봉형 감독접근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관에서 기관 내부의 이해상충 없이 충실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함.
 - 통합형 감독의 경우,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가 상충되는 경우,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전성 감독에 보다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는 후선으로 밀려나는 측면이 있음.
- 쌍봉형 접근방법은 두 기관의 목적이 다르므로 기관 내 감독목적의 상충은 일어나지 않으나, 기관 간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소방법이 복잡해져 금융회사 법규리스크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
 - 감독기관 간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함.

3.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영업행위감독을 건전성 감독에서 분리하였으며 영업행위감독 기구의 감독목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한 유효경쟁 촉진을 포함시킴. 호주는 금융 시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감독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1998년에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유지하면서 효과적 금융감독의 수행을 위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를 분리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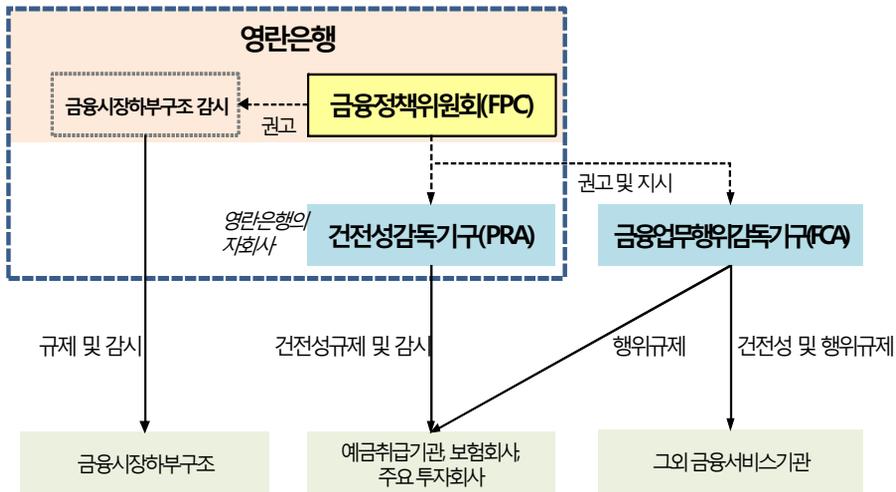
가. 영국

- 영국은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약점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영란은행의

권한을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에서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개편함.

- 2013년 4월 1일부로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여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함.
 - 건전성감독청(PRA)은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개별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을 통해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영업행위감독청(FCA)은 PRA와 달리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의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 영란은행 산하에 신설되는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조치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그림 1〉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주: 금융시장하부구조란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ies),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결제시스템(Recognised Payment Systems)을 의미함.

자료: 이기형·정인영(2013),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1) 감독체계 전환 배경 및 논의과정

■ FSMA 2000 이전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은행, 증권투자위원회(SIB)⁸⁾가 증권, 산업통상성(DTI)⁹⁾이 보험 부문을 각각 감독하는 기관별 감독체계였음.

- 은행, 증권, 보험 외 금융권역은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에 의한 자율규제에 맡김.

■ 금융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금융의 겸업화와 복잡화는 기관별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율규제도 규제포획 등의 부작용을 보이며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통합과정에서 감독기구의 비대화 및 권력남용,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우려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FSMA 2000이 통과되고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2001년 설립되었음.

■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r FSMA 2000)의 발효로 2001년 이후 FSA가 영국 금융시장 통합감독기관으로 역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1997년 영국 금융시장 전반의 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FSA는 영국 내 금융서비스업 규제 개혁의 첫 단계가 완성된 1998년에 영란은행의 은행감독 권한을, 2000년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감시기구(UK Listing Authority)의 권한을 이양 받음.
- 이후 ‘새 천년을 위한 새로운 규제당국(A New Regulator for the New Millennium)’이라는 구호 아래 FSA로의 금융감독권한 집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이 규정하는 FSA의 목표는 영국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 금융시스템의 보호 및 안정성 확립,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융관련 범죄 감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FSA는 금융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취함.

8) Securities and Investments Board.

9)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그러나 2007년 노던락(Northern Rock) 사태¹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재무성, 영란은행, FSA가 나누어 담당하는 3각 감독체제(Tripartite System)의 감독사각 문제가 지적됨.

- 영란은행은 명목상 금융안정을 담당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를 가짐.
- FSA는 금융안정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시건전성 및 금융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한 금융감독 목적을 수행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에 충분한 주의를 사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였음.
- 금융시스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거시건전성 감독 총괄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2010년 6월 Osborne 재무성 장관이 금융규제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한 금융서비스법안(Financial Services Bill)이 2012년 1월 27일 의회에 제출됨.

- 기존의 3각 감독체제는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2012년까지 영란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집중시키고 FSA를 해산하는 감독기관 개혁안을 제시하였음.
- 금융서비스법안은 기존의 1998년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2009년 은행법(Banking Act)을 개정하고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 관련 법조항을 일부 신설함.

■ 금융서비스법안은 영란은행 산하에 거시건전성 전담 기구 신설과 함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를 배치하고 영업행위감독기구는 분리하는 등 감독기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영란은행 내 거시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정책 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설립

10) Northern Rock은 1965년 설립된 영국 내 5위 규모의 모기지 은행으로, 저축예금, 대출, 보험상품 등을 취급하였으나 2007년 9월 초 단기차입금 만기연장의 어려움으로 영란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대규모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게 됨(민재기 2008).

- 둘째, 영란은행 산하에 기존 금융감독청(FSA)에서 미시건전성 부분을 분리한 건전성 감독청(PRA)을 신설하여 주요 금융회사 미시건전성 감독을 전담
- 셋째, 영업행위감독청(FCA)을 신설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독
- 마지막으로, 공적자금(Public Fund)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정책의 총체적인 지휘권을 재무성 장관에 이양하도록 하여 재무성과 영란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

■ PRA와 FCA 모두 금융정책위원회의 지시와 권고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PRA의 경우에는 영란은행의 산하기관이고 FCA는 재무성과 의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PRA와 FCA가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FCA의 결정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PRA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표 1〉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체계

감독대상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은행, 보험, 시스템상 중요한 투자회사* (PRA가 금융안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대상으로 지정)	PRA	FCA
기타금융회사(개인투자회사, 펀드매니저, 비은행모기지, 모기지중개, 보험중개 등)	FCA	FCA
거시적 차원의 건전성 규제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인식 및 대응)	FPC	

자료: 예금보험공사(2011),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예금보험제도.

(2)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영국 금융규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독과 전문성을 촉진시켜 금융구조를 근본적으로 건실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¹¹⁾

11) HM Treasury(2012), p. 6.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고 이를 각각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 그러나 PRA가 영란은행의 산하기관이며 영란은행 내 조직인 금융정책위원회(FPC)가 PRA와 FCA 두 금융감독기관 모두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영란은행의 권한을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기도 함.

○ 금융안정성을 중앙은행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므로 영국 금융시장의 위협 감지 및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¹²⁾

○ 금융안정성 강화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이 영란은행 산하로 모아지면서 영업행위감독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쌍봉형 감독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FCA는 기관의 목적으로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금융시장의 도덕성(Integrity) 과 함께 경쟁(Competition)을 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명시¹³⁾하여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촉진을 주요 감독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FCA는 소비자보호 목적이나 도덕성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소비자 이익을 위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함.

나. 호주

■ 호주의 금융감독체제는 건전성 감독기구인 건전성 감독원(APRA¹⁴⁾), 자본시장 및 영업행위 규제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ASIC¹⁵⁾), 중앙은행인 호주준비은행(RBA¹⁶⁾)으로 이루어짐.

○ APRA는 예금수취기관(은행, 외국은행 자회사와 지점, 주택금융조합, 신탁, 기타), 생명 및 손해보험, 연금, 외은 사무소, 공제조합 등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

○ ASIC은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을 담당

12) HM Treasury(2012), p. 13.

13) Financial Services Act 2012 1B (FCA General duties) (4), 1E (The Competition Objective).

14)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5)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16) Reserve Bank of Australia.

- RBA는 통화정책, 금융안정기능,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
- 금융감독기구협의회(CFR)는 RBA, APRA, ASIC, 재무부의 협의체로 위기발생 시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현재 호주의 감독체제는 1990년대 후반 왈리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서 추진된 금융개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금융산업의 자유화, 국제화, 겸업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
-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대외경쟁력 제고
- 금융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1) 개편배경 및 논의과정

■ 호주는 금융개혁을 위해 1981년에 발표된 캠벨보고서와 1997년에 발표된 왈리스보고서 등 두 번에 걸친 호주 금융체계 조사(Australian Financial System Inquiry)를 거쳐 금융감독개혁을 단행하였음.

- 첫 번째 개혁은 1979년에 설치된 캠벨위원회(Campbell Committee)에서 작성하여 1981년에 발표된 캠벨보고서(Campbell Report)임.
- 두 번째의 개혁은 1996년 중반 왈리스위원회(Wallis Committee)에서 작성하여 1997년에 발표한 왈리스보고서(Wallis Report)임.

■ 캠벨보고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상품구성 및 진입 등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과 효율성 증진이 목적으로 호주 정부는 캠벨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자유화를 시행함.

- 1980년 12월부터 모든 은행예금에 대한 금리상한제가 폐지되었으며, 은행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은행자산의 질적 제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됨.
- 1982년에는 모든 은행의 대출에 대한 양적 규제과 이자율 규제도 폐지되었으며, 1984년에는 저축예금 등에 대한 만기 규제도 철폐함.
- 1985년 외국은행 진입규제도 철폐하여 16개 외국 은행에 대해 신규 인가를 주었으며 1992

년부터는 외국은행 지점의 소매예금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허용

- 이러한 조치는 금융산업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이 도입됨으로써 호주 금융구조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과거의 타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금융부분은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

- 1980년대 금융 및 경제분야 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본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면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건전성 규제와 양적으로 확대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가 요구됨.
 - 특히 과거 자유방임적인 금융정책은 정보 비대칭성과 불공정 거래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증폭시켜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한 문제점이 노출됨.

- 왈리스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1980년대 금융 및 경제 자유화의 효과와 금융감독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음.
 - 금융감독체계 검토의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영업행위 및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함.
 -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및 지급결제는 호주준비은행(RBA), 예금수취기관 및 보험회사 및 연금의 미시건전성은 건전성규제위원회(APRC), 그리고 영업규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는 기업금융서비스위원회(CFSC)에서 담당하는 안을 제시함.
 - 금융시장의 경쟁규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계속 담당하도록 권고함.

- 호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추어 1998년 3월 금융부문개혁법(Financial Sector Reform Act 1998)을 통해 다시 한 번 금융개혁을 단행함.
 - 금융부문개혁법은 왈리스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건전성감독원(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준비은행(RBA)에서 각각 미시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ACCC는 금융시장의 경쟁규제와 주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 시장규율을 담당하도록 함.

(2)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건전성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만을 담당하고 영업행위 감독기관은 전문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별 감독기관은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¹⁷⁾

- 건전성 감독기관인 APRA 대부분의 직원은 회계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건전성 규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리스크에 기초한 건전성 규제 업무에 중점을 두으로써 전문화된 건전성 규제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영업행위 감독기관인 ASIC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감독업가가 주 업무임에 따라 직원 대부분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 법령위반 조사업무를 다루고 있음.

■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에 특화된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으나,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규제중복문제, 감독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부진하였다는 부정적 평가 또한 존재함.

■ 우선 호주의 경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구분이 쉽지 않아 건전성 감독부문에서 사각 지대가 발생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2012년 초 여신전문금융회사인 Banksia의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규제의 사각 지대에 따른 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됨.
 - 비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Company)의 경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APRA의 감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¹⁸⁾

17) 고동원(2013),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기구 체제 도입 논의의 검토」, 성균관법학, 제25권 제1호.

18) APRA의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예금수취금융기관(ADIs: Authorized Deposit Taking Institutions), 보험회사, 연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ASIC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Banksia의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야 하나, 공시 등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특성상 한계가 존재함.
 - 증권회사도 APRA의 감독대상에 속하지 않아, 증권회사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함.
 - 증권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ASIC에서 책임지지만, ASIC은 영업행위 규제감독기관으로 건전성 감독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앞서 지적된 감독 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중복감독 문제로 피감독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는 양 감독기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때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4.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현재의 금융 환경 및 시장은 현 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한 1999년과 달라졌으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금융감독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시장의 효율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장규율 작동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해외 금융감독 개편과정의 시사점

- 영국과 호주 모두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다른 감독기관이 맡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 금융감독체계를 형성하게 된 개편 과정은 현재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줌.
- 두 나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과정을 통해 금융감독의 다양한 목적-금융안정, 미시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시장규율-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독체계 형태가 쌍봉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에 따른 다양한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감독형태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금융시장의 검입화와 이에 따른 금융상품의 복잡화에 맞추어 FSMA 2000 입법을 통해 통합형 금융감독체제로 전환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개편함.

- 영란은행이 하향식 접근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을 관리하며 산하 미시건전성감독기구(PRA)와 독립된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통해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 감독을 맡은 영란은행 산하에 PRA를 자회사로 배치하며 기존 FSA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하향식 접근의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 기구인 FCA의 금융감독상 역할이 정해짐.

- 특히 FCA는 소비자보호와 도덕성(Integrity) 목적과 양립하는 한도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기관의 목적에 포함시켜 시장규율 감독목적도 추구하도록 하였음.

■ 호주는 1980년대 들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거 철폐하며 금융시장을 자유화하였으며 이후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1998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 왈리스보고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금융체계의 구축을 19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감독이 필수적임을 천명함.

-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각각 감독하도록 하고 호주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함.

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관별 감독체계에서 현재의 통합형 금융감독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로 1999년 개편된 바 있음.
 - 현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2일 설립됨.

-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기관의 설립 형태가 중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 및 여당안의 경우, 현 금융위원회 산하에 건전성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감독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안임.
 - 야당안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건전성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두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안임.

- 앞에서 살펴본 영국과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금융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 등 금융감독의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빈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와 함께 2002년 카드사태 등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위협 받는 금융안정성 등 우리나라 금융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금리, 보험료 등은 제도상으로 자유화되었지만 숨은 규제를 통한 시장 통제로 시장규율을 통한 금융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향상이 어려움.

- 현 금융감독체계가 만들어진 1999년의 국내·외 금융시장은 16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졌으므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을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함.

○ 금융감독의 4가지 목적 중 현 우리나라 금융상황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영국의 예를 들면 최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경우, 시장의 경쟁과 효율이라는 바탕 위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이루기 위한 논의과정을 거침.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이 보다 원활히 작동하면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고동원(2013),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기구 체제 도입 논의의 검토」, 성균관법학, 제25권 제1호.
- 민재기(2008), 「Northern Rock 사태 이후 영국의 금융안정·감독기능 강화방안」,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 이기형·정인영(2013), 「영국의 새로운 보험감독체계 특징」,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Group of Thirty(2008),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place".
- HM Treasury(2011. 2), "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 Building a Stronger System".
- Llewellyn, David T.(1999), "The Economic Rationale for Financial Regulation", FSA Occasional Paper, April.

◀ 2012년 암발생률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1. 검토배경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암보험 상품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본고는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암발생률 현황을 살펴보고 보험업계 통계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려 함.

■ 2014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발생률²⁾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민 암발생률 감소는 일시적일 수 있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암발생률 통계와 보험업계의 암발생률 통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최근 보험회사들이 암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국민 암발생률의 변화추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암보험 상품은 1980년대부터 판매되었으나 손실확대로 상품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들어 재출시 되면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³⁾

- 1980년대에는 암사망, 수술, 입원 위주로 암상품이 판매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 진단을 포함하여 보장이 확대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건강검진 보급 확대, 진단기술 발전 등으로 암의 조기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암진단에 대해 고액을 보장하는 암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2006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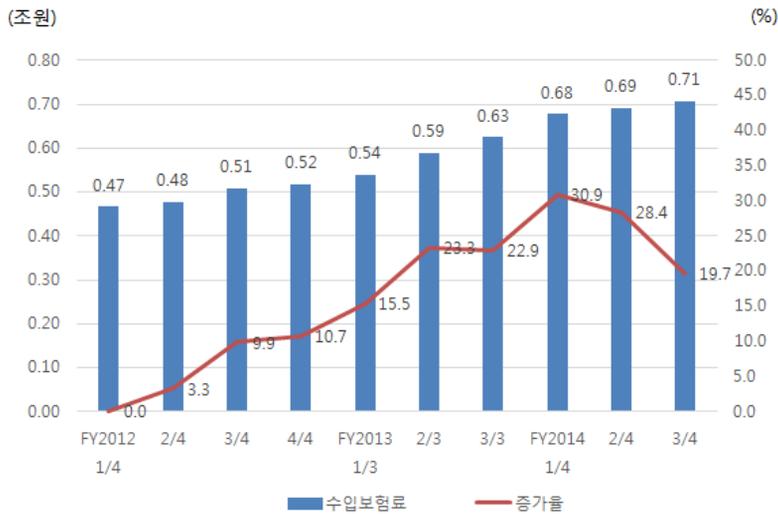
1) 중앙암등록본부는 매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2) 10만 명당 발생자 수를 의미함.

3) 김석영·최원(2006), 「생보사 암보험 판매증지의 영향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주간보험이슈.

- 형 3사를 포함한 주요 생명보험회사는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
-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기간 및 가입연령 확대와 함께 중복보상, 암 단계별 보상 등 다양한 신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이후 두 자리 수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1〉 생명보험 암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자율통계.

■ 본고는 최근 중앙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바탕으로 암발생률 현황을 살펴보고 보험업계 통계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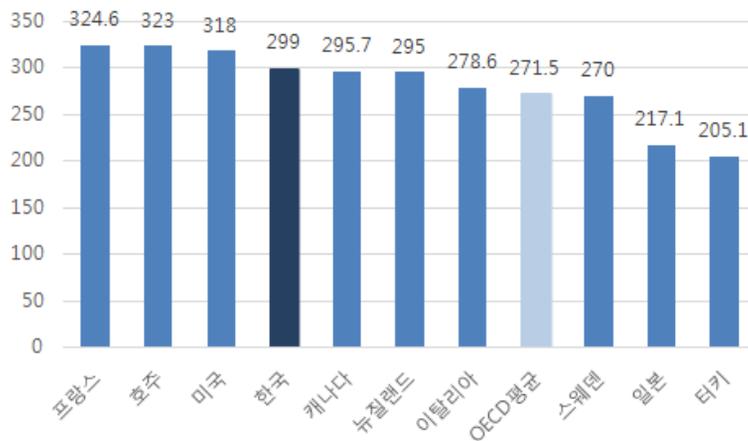
2.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현황

2012년 우리나라 암 조발생률은 10만 명당 445.3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0만 명당 319.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12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함. 2011년과 2012년 암종별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의 발생률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 중 위암과 폐암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암종별 과거추세(1999년에서 2012년)와 다른 이례적인 현상임.

■ 2012년 우리나라 암 조발생률⁴⁾은 10만 명당 445.3명, 연령표준화 발생률⁵⁾은 10만 명당 319.5명이고,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총 암발생자 수는 22만 4,177명이며, 남성의 발생자 수가 11만 2,385명으로 여성의 11만 1,792명에 비해 높았고 조발생률 또한 남성이 446.2명으로 여성의 44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319.5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337.2명으로 여성의 321.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기타피부암을 제외하고 세계 표준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99.0명으로 프랑스 324.6명, 호주 323.0명, 미국 318.0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OECD 평균인 271.5명, 일본 217.1명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그림 2〉 OECD 주요국 암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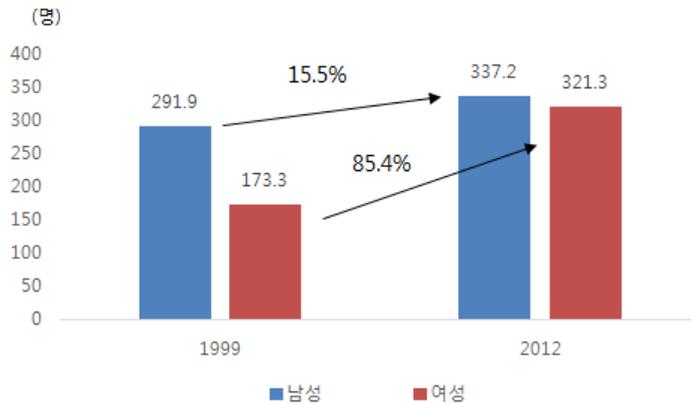
주 : OECD 주요국 암발생률은 기타피부암을 제외하고 세계 표준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임.
 자료 :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암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인은 갑상선암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4) 조발생률은 10만 명당 발생자 수로, 해당 인구집단의 암발생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됨.
 5)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기중평균발생률이며,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시기의 암 발생률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됨.

- 전체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45.3%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1999년 173.3명에서 2012년 321.3명으로 85.4% 증가하면서 291.9명에서 337.2명으로 15.5% 증가한 남성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임.
- 한편 1999년에서 2012년까지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3.5%로 남성과 여성 각각 1.6%, 5.6%로 나타났으며,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연간 변화율은 1.5%로 남성과 여성 각각 0.9%, 2.0%로 나타남.
-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1999년 11.9명에서 2012년 120.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남성 갑상선암 발생률 27.5명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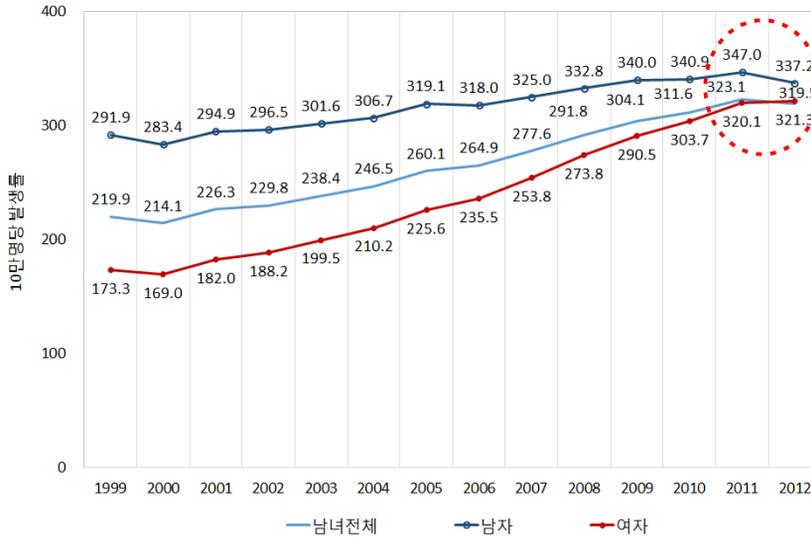
〈그림 3〉 1999년에서 2012년 암발생률 증가 추이



자료: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 2012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11년 323.1명에서 2012년 319.5명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암발생률은 2011년 320.1명에서 2012년 32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남성의 암발생률이 347.0명에서 337.2명으로 감소함.
 -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전체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11년 322.7에서 2012년 309.7명으로 갑상선암을 포함한 경우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여성의 암발생률도 2011년 204.7명에서 2012년 200.9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추이: 모든 암



자료: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 2012년 남성과 여성을 합산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조발생률 기준)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생함.

〈표 1〉 성별 10대 암종 조발생률

순위	1	2	3	4	5	6	7
남성	위	대장	폐	간	전립선	갑상선	췌장
발생률	82.7	69.3	61.0	48.2	36.8	32.0	11.7
여성	갑상선	유방	대장	위	폐	간	자궁경부
발생률	142.9	65.7	45.9	39.8	26.8	16.3	14.2
전체	갑상선	위	대장	폐	유방	간	전립선
발생률	87.4	61.3	57.6	43.9	33.0	32.3	18.4

자료: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 1999년에서 2012년 남성과 여성의 암종별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암종인 위암, 간암, 남성의 폐암 발생률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남성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립선암과 대장암의 발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간암과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위암의 발생률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폐암의 발생률은 남성과 달리 증가 추세를 보이고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발생률도 증가해 왔음.

■ 2011년과 2012년 암종별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의 발생률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주요 5대 암종 중 위암과 폐암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이는 과거 추세와 다른 이례적인 현상임.

- 남성의 2011년과 2012년 암종별 발생률은 5대 주요 암종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률이 6번째로 높은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유일하게 증가함.
- 여성의 경우에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위암과 폐암 발생률은 하락함.
- 1999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발생률 증가가 높게 나타난 남성의 대장암과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대장암, 폐암의 발생률이 2012년 들어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점은 2012년 암발생률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주요 암종을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의 순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의 순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특징적인 차이는 미국, 영국 등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의 암종 순위가 낮다는 점이며, 전립선암의 순위는 일본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등에서 주요 암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갑상선암의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한편 위암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녀 모두 5대 주요 암종 순위에 포함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5대 암종에 포함되지 않음.

〈표 2〉 주요국 5대 주요 암종

(단위: 명/10만 명)

남자¹⁾

순위	한국(2012)		2012년도 추정치 ²⁾					
			일본		미국		영국	
-	모든 암	326.4 (321.6) ²⁾	모든 암	260.4	모든 암	347.0	모든 암	284.0
1	위	59.3	위	45.7	전립선	98.2	전립선	73.2
2	대장	50.0	대장	42.1	폐	44.2	대장	36.8
3	폐	44.3	폐	38.8	대장	28.5	폐	34.9
4	간	34.3	전립선	30.4	방광	19.6	피부의 악성흑색종	13.7
5	전립선	27.0	간	14.6	피부의 악성흑색종	16.8	비호지킨 림프종	11.9

여자¹⁾

순위	한국(2012)		2012년도 추정치 ²⁾					
			일본		미국		영국	
-	모든 암	290.1 (285.5) ²⁾	모든 암	185.7	모든 암	297.4	모든 암	267.3
1	갑상선	102.4	유방	51.5	유방	92.9	유방	95.0
2	유방	44.7	대장	23.5	폐	33.7	폐	25.8
3	대장	26.8	위	16.5	대장	22.0	대장	24.4
4	위	23.5	폐	12.9	갑상선	20.0	피부의 악성흑색종	15.6
5	폐	14.9	자궁경부	10.9	자궁체부	19.5	자궁체부	13.9

주: 1) 국제 비교를 위해 세계표준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령표준화발생률로 우리나라 2000년 표준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치와 다름.

2) 한국의 남녀 모든암의 괄호안 수치는 국제비교를 위해 모든 암에서 기타 피부암을 제외한 발생률임.

3) 국제암연구소에서 2007년까지의 암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2012년 암발생률(GLOBOCAN 2012; IARC 2013).
자료: 국립암센터.

■ 선진국에서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남성의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암종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남성의 전립선암은 국가암발생통계에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률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높은 수준이며, 식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주요 암종의 구성이 서구 선진국과 유사해진다면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 전립선암은 PSA검사(종양표지자검사)로 불리는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손쉽게 검사가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활성화될 경우 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⁶⁾

- 주요 암종의 구성변화는 전체 암발생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3.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 비교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의 연령별 암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40~50대에서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이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암보험에 있어 언더라이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국민암발생률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암발생률 증가세 둔화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2010년⁷⁾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의 연령별 암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40~50대에서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의 암발생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보험업계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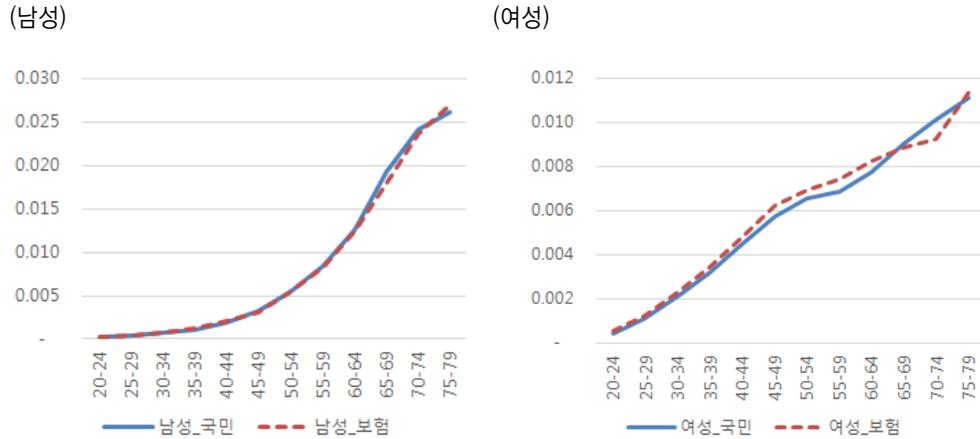
- 60세 이상의 보유계약 비중은 전체 암보험의 보유계약 중 10% 미만 수준임.

- 여성의 경우 70~74세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암보험 보유계약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40~50대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함.

6) 보험개발원(2010),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 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7) 보험업계의 암발생률 통계는 2010년까지 작성되었기 때문에 2010년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함.

〈그림 5〉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와 보험업계 통계의 연령별 암발생률 비교



주: 보험업계는 초년도 제외.
자료: 보험개발원, 국립암센터.

■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이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암보험에 있어 언더라이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암보험 계약에 앞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암발생 가능성이 높은 피보험자의 가입을 차단하는 언더라이팅을 실시함.
-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언더라이팅 효과는 보험계약 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경과기간이 오래된 경우 언더라이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역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유방암의 경우 자가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⁸⁾
-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속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발생률 추세가 동일하기는 어려울 것임.

8) 서울파이낸스(2007. 1. 2), “女性, 암보험 역선택 '심각’”.

- 2012년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 건수를 바탕으로 35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암종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35~64세와 65세 이상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남.
 - 35~64세 남성의 경우 국민 암발생률은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간암 순으로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갑상선암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국민 암발생률은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위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순으로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위암과 전립선암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35~64세의 갑상선암, 65세 이상의 전립선암이 모든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험업계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각 연령대에서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의 비중은 각각 15.1%, 13.9%로 높은 수준은 아님.

〈표 3〉 연령별 남성 암종 순위 비교

순위	국민(조발생률, 단위: 명/10만 명)			보험업계(단위: 건)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	모든 암 41.8	모든 암 465.1	모든 암 2,343.5	모든 암 1634	모든 암 30,879	모든 암 3,841
1	갑상선 15.4	위 95.3	폐 441.3	갑상선 640	위 6,271	위 766
비중	36.8%	20.5%	18.8%	39.2%	20.3%	19.9%
2	백혈병 3.1	대장 77.1	위 412.5	대장 96	갑상선 4,685	폐 581
비중	7.4%	16.6%	17.6%	5.9%	15.2%	15.1%
3	대장 3.1	간 63.3	대장 354.9	위 68	대장 3971	전립선 535
비중	7.4%	13.6%	15.1%	4.2%	12.9%	13.9%
4	비호지킨 림프종 2.8	갑상선 53.1	전립선 293.7	뇌 60	간 3,571	대장 389
비중	6.7%	11.4%	12.5%	3.7%	11.6%	10.1%
5	위 2.4	폐 42.7	간 202.8	신장 42	폐 1393	간 323
비중	5.7%	9.2%	8.7%	2.6%	4.5%	8.4%

자료: 보험개발원, 국립암센터.

■ 여성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에서 전체 국민과 보험업계 간 암종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암 중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5~64세 여성의 경우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 건수 모두 갑상선, 유방암이 1,2위의 주요 암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위인 대장암과 위암의 암종 순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 그러나 모든 암 중 갑상선암의 비중은 보험업계가 국민 전체에 비해 4.7%p 높은 46.0%로 나타났으며, 유방암 비중은 국민 전체에 비해 0.3%p 높은 20.3%로 나타남.

○ 65세 이상의 경우 국민 암발생률은 대장암, 위암, 폐암, 갑상선암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업계의 발생 건수는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순위가 높게 나타남.

-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업계 발생 건수가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1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암은 국민 전체의 경우 주요 암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보험업계의 경우 3번째 주요 암종으로 분류됨.

〈표 4〉 연령별 여성 암종 순위 비교

순위	국민(조발생률, 단위: 명/10만 명)			보험업계(단위: 건)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	모든 암 111.8	모든 암 596.2	모든 암 1,076.90	모든 암 4490	모든 암 51418	모든 암 4042
1	갑상선 69.6	갑상선 246.2	대장 184.1	갑상선 2846	갑상선 23646	갑상선 819
비중	62.3%	41.3%	17.1%	63.4%	46.0%	20.3%
2	유방 10.8	유방 119.3	위 155.4	유방 434	유방 10459	위 566
비중	9.7%	20.0%	14.4%	9.7%	20.3%	14.0%
3	자궁경부 5.2	대장 45.3	폐 125.5	자궁경부 186	위 3068	유방 423
비중	4.7%	7.6%	11.7%	4.1%	6.0%	10.5%
4	위 3.8	위 39.7	갑상선 102.3	위 138	대장 1886	대장 406
비중	3.4%	6.7%	9.5%	3.1%	3.7%	10.0%
5	난소 3	폐 21.8	간 71.8	난소 81	폐 1105	폐 348
비중	2.7%	3.7%	6.7%	1.8%	2.1%	8.6%

자료: 보험개발원, 국립암센터.

- 35세 이상에서 주요 암종을 비교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발생률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비중이 보험업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을 높게 하는 원인으로 보여짐.
 - 35~64세 여성의 경우 모든 암 중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 전체에서 61.3%이나 보험업계에서는 66.3%로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서 20% 미만이나 보험업계에서는 30.8%로 나타남.
 - 한편 여성의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국가암발생통계에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발생률이 각각 22.4%, 5.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종임.
 - 따라서 국민암발생률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보험업계의 암발생률 증가세 둔화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임.

4. 결론 및 시사점

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과거 추세와 다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또한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상이성 및 주요 암종의 선진국화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 암발생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암발생률 증가에 대응하여 암종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암종의 발생률과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공급을 위해 암발생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추세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11년 323.1명에서 319.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암발생률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남성의 암발생률은 감소함.
 - 그러나 발생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암, 간암, 남성의 폐암 발생률이 2012년에는 전년대비 더욱 크게 하락하였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남성의 대장암과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대장암, 폐암의 발생률은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2년까지 과거 암종별 발생률 추이를 고려해 보면 2012년의 암발생률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한편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상이성 및 주요 암종의 선진국화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 암발생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비중이 국민 전체에 비해 보험업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남성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주요 암종으로 분류되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암종의 구성변화는 전체 암발생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 전체 암발생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업계의 암발생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암발생률 증가에 대응하여 암종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암종의 발생률과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 암발생률의 증가세 둔화가 보험업계 암발생률 증가세 둔화로 이어진다면 암보험의 위험률 예측이 용이해지고 위험률의 추세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암보험 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임.
- 그러나 보험업계 암발생률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암관련 위험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보험회사는 이미 암 종류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함으로써 암발생률 증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암종의 빈도(발생률)와 심도(치료비용)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암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위암, 간암, 폐암 등 3대 주요 암의 경우 발생률 하락으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므로 보장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암보험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위험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상품 공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암발생률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암은 30대 이상 성인의 대표적인 사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은 암보장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음.
 - 보험회사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노인전용 암보험, 계속보장 암보험 등 신상품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유병자 및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 등 가입대상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암발생률 추세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 암발생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보험 손해율 관리는 쉽지 않으며, 과거 손해율 상승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경험도 있음.
 - 암보험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발생률 증가와 역선택 등으로 암보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암발생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김석영·최원(2006), 「생보사 암보험 판매증지의 영향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주간보험이슈.

보험개발원(2010),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 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_____ (2014), 『FY2012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보험개발원 INSIS, 자율통계.

중앙암등록본부(2014),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서울파이낸스(2007. 1. 2), “女性, 암보험 역선택 '심각'”.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4년 4/4분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고, 미국의 경우 하락함. 한편, 신흥국 중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함.

■ 2014년 4/4분기 신흥국 중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된 가운데,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함.

- 4/4분기 미국 경제는 3/4분기보다 2.2%(연율) 성장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며 전분기대비 1.3%(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및 수출 증가 등으로 1.5%(연율)를 기록하며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와 수출 감소로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1.5%를 기록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n.a.	n.a.	n.a.	n.a.	3.3	n.a.	n.a.	n.a.	n.a.	3.3
선진국 ¹⁾	1.3		2.5		1.4	1.3		2.2		1.8
신흥국 ¹⁾	4.8		5.3		4.7	4.1		4.8		4.4
미국 ²⁾	2.7	1.8	4.5	3.5	2.2	-2.1	4.6	5.0	2.2	2.4
유로 ³⁾	-1.5	1.4	0.7	1.1	-0.5	1.1	0.3	0.7	1.3	0.9
일본 ⁴⁾	5.6	3.3	1.4	-1.2	1.6	5.1	-6.4	-2.6	1.5	0.0
중국 ⁵⁾	1.7	1.8	2.3	1.8	7.7	1.6	1.9	1.9	1.5	7.4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3).

3) Eurostat(2015. 4).

4) 일본 내각부(2015. 3).

5) 중국 국가통계국(2015. 4).

■ 2014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1 상승한 99.9를 기록함.

-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동일함.
 - 4/4분기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고용 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 부진으로 소폭 하락함.
 - 4/4분기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3/4분기와 동일한 100.5, 99.8을 기록함.
 -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정부 주도의 과잉투자 해소,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성장전환¹⁾ 등으로 3/4분기보다 0.3 상승한 98.9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99.8	99.9	100.0	100.0	99.9	99.9	99.8	99.8	99.9	99.9
선진국 ³⁾	99.7	99.9	100.2	100.4	100.0	100.4	100.3	100.3	100.3	100.3
미국	100.1	100.3	100.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3	100.3
유로	99.0	99.3	99.9	100.4	99.7	100.7	100.6	100.5	100.5	100.6
일본	99.9	100.5	100.9	101.3	100.6	101.0	100.3	99.8	99.8	100.3
중국	100.2	100.1	100.0	99.7	100.0	99.1	98.6	98.6	98.9	98.8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4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의 무역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무역 규모 감소로 3/4분기보다 0.2%p 하락한 3.5%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3/4분기 2.1%에서 0.9%p 높아진 3.0%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4.0%였음.

1) 제조업 구조조정의 결과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하고 있음.

〈표 3〉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1.8	1.8	3.1	4.0	2.7	3.2	2.9	3.7	3.5	3.3
선진국	-1.2	0.0	0.6	2.6	0.5	2.3	1.7	2.1	3.0	2.3
신흥국	5.0	3.8	5.8	5.5	5.1	4.0	4.1	5.1	4.0	4.3

주: 1) 2015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4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3.6%를 기록한 반면, 원자재가격은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인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기반 확대에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3/4분기 1.6%보다 0.1%p 상승한 1.7%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우도 동 기간 5.2%에서 5.5%로 0.3%p 높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원유 공급 과잉 지속 및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1.2%, 27.2% 하락하였고, CRB지수²⁾도 10.3%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4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3.2	3.5	3.4	3.6	3.8	두바이 현물지수	104.5	106.7	100.3	69.0	95.1
선진국	1.2	1.7	1.6	1.7	1.6	WTI 현물지수	99.6	102.6	95.1	69.2	91.6
신흥국	5.1	5.3	5.2	5.5	5.5	CRB 상품지수	292.3	308.0	291.3	261.4	288.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4, 10);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2014년 4/4분기 미국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해 2.8%p 하락한 2.2% 증가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3/4분기보다 2.8%p 하락한 2.2%를 기록하였지만, 국제유가 하락 및 고용 증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소비는 상승세가 지속됨.³⁾
 -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 시장 여건 개선과 에너지 가격 하락, 추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4.4% 증가함.
 - 민간투자의 경우 주택투자는 전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는 석유업체의 투자 보류 등으로 전분기대비 4.7%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함.
 - 수출 증가율은 4.5%로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10.4%를 기록함.
 - 정부지출의 경우 국방비 지출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1.9% 감소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0.1	2.3	2.7	1.8	4.5	3.5	2.2	-2.1	4.6	5.0	2.2	2.4
민간소비	1.9	1.8	3.6	1.8	2.0	3.7	2.4	1.2	2.5	3.2	4.4	2.5
재화	2.9	2.8	5.9	1.3	3.5	3.7	3.4	1.0	5.9	4.7	4.8	3.4
서비스	1.4	1.3	2.4	2.0	1.3	3.7	1.9	1.3	0.9	2.5	4.3	2.1
민간투자	-5.3	9.2	7.6	6.9	16.8	3.8	4.9	-6.9	19.1	7.2	3.7	5.8
설비	3.6	7.2	1.5	1.6	5.5	10.4	3.0	1.6	9.7	8.9	4.7	6.3
주택	20.4	13.5	7.8	19.0	11.2	-8.5	11.9	-5.3	8.8	3.2	3.8	1.6
수출	1.5	3.3	-0.8	6.3	5.1	10.0	3.0	-9.2	11.1	4.5	4.5	3.2
수입	-3.5	2.3	-0.3	8.5	0.6	1.3	1.1	2.2	11.3	-0.9	10.4	4.0
정부지출	-6.0	-1.4	-3.9	0.2	0.2	-3.8	-2.0	-0.8	1.7	4.4	-1.9	-0.2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3) 국제금융센터(2015. 2. 2).

〈내수부문〉

- 2014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3/4분기보다 0.6%p 하락한 0.5%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 1월에는 -0.8%를 나타냄.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시장 개선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6.4 높아진 92.7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103.8까지 높아짐.

- 2014년 4/4분기 주택경기의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및 기관투자자의 매수 감소 등으로 신규주택착공이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됨.
 -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됨.
 - 4/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투자 목적의 구매가 축소되면서 전분기대비 0.3% 하락한 173.1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5	0.3	1.0	0.9	4.2	0.4	2.1	1.1	0.5	4.0	-0.8
소비자신뢰지수 ²⁾	62.8	75.1	81.0	73.4	73.1	80.5	83.4	86.3	92.7	86.9	103.8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4.3	-8.7	2.0	16.2	18.6	-9.8	6.5	4.5	3.2	7.6	0.0
주택가격지수 ⁴⁾	147.0	155.9	164.2	165.8	158.2	165.9	170.6	173.5	173.1	170.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4년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PMI)⁴⁾는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설비가동률은 소폭 상승하며 경기선행지수를 상승세로 이끌었음.

-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1%였으며 2015년 1월 -0.3%를 나타내며 둔화세가 지속됨.
 - 설비가동률은 4/4분기 79.4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1월 79.1로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4/4분기에는 전분기와 동일한 56.9를, 1월에는 53.5로 낮아짐.
-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120.3, 1월 121.1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1.0	0.5	0.6	1.2	2.9	1.2	1.0	1.4	1.1	4.2	-0.3
설비가동률 ²⁾	77.7	77.8	77.9	78.4	77.6	78.6	79.1	79.3	79.4	78.5	79.1
ISM제조업PMI	52.9	51.1	55.2	56.0	53.8	53.5	55.5	56.9	56.9	55.7	53.5
경기선행지수 ³⁾	109.3	110.2	111.6	113.5	111.1	114.5	116.5	118.7	120.3	117.5	121.1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과 물가〉

- 2014년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저임금 고용 및 청년층과 노년층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됨.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4/4분기 97만 3,000명으로 전분기대비 26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4/4분기 29만 명으로 전분기대비 9,000명 감소함.
 - 2015년 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전월대비 23만 9,000명 증가하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됨.
 -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5.7%를 기록하였고, 2015년 1월에도 5.7%를 나타냄.
 - 포괄적 실업률도 2014년 4/4분기 11.4%, 2015년 1월 11.3%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0.5%p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1.7%p 하락함.
 -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1.3%를, 2015년 1월 -0.1%를 기록함.
 - 4/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였고, 2015년 1월 1.6%를 기록함.
 - 원유 공급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0.8%, 2015년 1월 -3.1%로 하락세가 지속됨.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2.0%를 나타내었고, 2015년 1월 1.5%를 기록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¹⁾ (%)	7.7	7.5	7.2	7.0	7.4	6.6	6.2	6.1	5.7	6.2	5.7
포괄적 실업률(u-6) ²⁾ (%)	14.2	14.0	13.7	13.3	13.8	12.6	12.1	12.0	11.4	12.0	11.3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63.4	53.3	57.0	65.1	238.8	57.9	85.2	71.2	97.3	311.6	23.9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5.5	34.6	33.0	34.5	35.2	33.1	31.5	29.9	29.0	30.9	29.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7	1.4	1.6	1.2	1.5	1.4	2.1	1.8	1.3	1.6	-0.1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9	1.7	1.7	1.7	1.8	1.6	1.9	1.8	1.7	1.8	1.6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5	1.5	1.2	0.8	1.3	1.6	2.8	2.5	0.8	1.9	-3.1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8	1.7	1.2	1.4	1.5	1.9	1.8	2.0	2.0	1.9	1.5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4년 4/4분기 유로 지역 경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기 회복세로 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회복세가 미미함.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하락하였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3/4분기보다 0.1%p 상승한 0.3%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

○ 4/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소폭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함.

-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전분기대비 각각 0.6%p, 0.2%p 상승한 각각 0.7%를 기록하였고, 이탈리아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 반면, 4/4분기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3/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독일과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의 민간소비

감소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4%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의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4%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유로 지역 수출은 독일과 스페인의 수출 감소로 3/4분기보다 소폭 낮아진 0.8% 늘어나는데 그쳤고, 수입도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0.4% 증가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EA18 GDP	-0.4 (-1.6)	-0.8	-0.4 (-1.5)	0.3 (1.4)	0.2 (0.7)	0.3 (1.1)	-0.5	0.3 (1.1)	0.1 (0.3)	0.2 (0.7)	0.3 (1.3)	0.9
민간소비	-0.5	-1.3	-0.2	0.1	0.2	0.1	-0.7	0.2	0.2	0.5	0.4	1.0
고정자본투자	-0.4	-3.7	-2.2	0.7	0.6	0.5	-2.5	0.4	-0.5	0.0	0.4	1.0
정부지출	0.0	-0.1	0.2	0.1	0.2	0.0	0.3	0.2	0.2	0.2	0.2	0.7
수출	-0.9	2.5	0.4	1.7	0.6	0.8	2.0	0.4	1.3	1.5	0.8	3.7
수입	-0.7	-1.1	0.1	1.3	1.5	0.2	1.2	0.6	1.3	1.7	0.4	3.8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5. 4).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0.7% 늘어났으며 2015년 1월 1.1% 증가함.
 - 4/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0.9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5년 1월 101.5를 나타내었음.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11.2를 나타내며 둔화폭이 확대되었는데, 2015년 1월 -8.5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감소함.
- 2014년 4/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3/4분기보다 0.8%p 상승한 0.4%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 -0.1%로 전환됨.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유로 지역 ESI ¹⁾	90.2	89.9	95.5	99.5	93.8	101.9	102.6	101.2	100.9	101.6	101.5
소매판매 증가율 ²⁾ (%)	0.1	0.2	0.5	-0.4	-0.8	0.6	0.5	0.2	0.7	1.3	1.1
소비자신뢰지수 ³⁾	-23.5	-20.8	-15.9	-14.4	-18.6	-11.2	-7.7	-9.9	-11.2	10.0	-8.5
산업생산 증가율 ⁴⁾ (%)	0.2	0.7	0.0	0.5	-0.7	0.2	0.1	-0.4	0.4	0.7	-0.1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4년 4/4분기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보다 0.1%p 하락한 7.0%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나타냄.
 - 4/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8.9%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9.1%를 기록함.
- 2014년 4/4분기 모든 주요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약세와 역내 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함.
 - 4/4분기 유럽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0.3%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9%를 나타냄.
 - 또한, 4/4분기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2%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고, 남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6%를 보임.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4년 2/4	7.1	6.6	9.4	19.6	1.1	0.9	0.4	-0.4
2014년 3/4	7.1	6.7	9.1	19.2	0.9	1.0	0.3	-0.4
2014년 4/4	7.0	6.7	8.9	19.1	0.6	0.9	0.1	-0.6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4).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GDP	-0.4	0.4	-0.4	0.8	0.3	0.4	0.1	0.8	-0.1	0.1	0.7	1.6
민간소비	0.2	0.7	0.2	0.6	0.3	-0.3	0.8	0.6	0.0	0.8	0.8	1.2
고정자본투자	0.0	-0.7	-2.6	2.4	0.8	1.2	-0.6	3.0	-1.7	-1.2	1.2	3.4
수출	-2.1	2.8	0.7	1.4	0.7	1.7	1.6	-0.4	1.0	2.0	1.3	3.9
수입	0.2	0.0	1.2	1.3	1.7	0.7	3.1	-0.3	1.2	1.3	1.0	3.4
프랑스 GDP	-0.2	0.3	-0.1	0.7	-0.1	0.3	0.3	-0.1	-0.1	0.3	0.1	0.4
민간소비	0.0	-0.4	0.2	0.2	0.0	0.5	0.2	-0.3	0.4	0.3	0.2	0.6
고정자본투자	-0.6	0.3	-0.4	0.3	0.0	0.1	-1.0	-0.7	-0.8	-0.6	-0.5	-1.5
수출	-0.4	1.1	0.4	3.0	-0.9	0.9	2.2	0.6	0.1	0.7	2.3	2.7
수입	-0.8	-1.3	0.5	2.0	0.9	0.2	1.7	1.0	0.6	1.3	1.7	3.6
이탈리아 GDP	-0.6	-2.8	-0.8	-0.1	0.1	0.0	-1.7	-0.1	-0.2	-0.1	0.0	-0.4
민간소비	-0.8	-3.9	-1.3	-0.6	0.1	0.1	-2.8	0.1	0.2	0.2	0.1	0.3
고정자본투자	-1.3	-9.3	-3.1	-0.1	-0.1	-1.1	-5.8	-1.5	-0.7	-1.0	0.2	-3.3
수출	-1.6	2.3	0.2	0.1	1.3	-0.4	0.5	0.4	1.3	0.4	1.6	2.7
수입	-2.7	-8.1	0.3	-1.3	2.2	-0.4	-2.3	-0.1	1.1	0.7	0.3	1.8
스페인 GDP	-0.8	-2.1	-0.3	-0.1	0.1	0.3	-1.2	0.3	0.5	0.5	0.7	1.4
민간소비	-1.7	-2.9	-0.8	0.0	0.4	0.3	-2.3	0.6	1.0	0.8	0.9	2.4
고정자본투자	-2.0	-8.1	-0.8	-1.0	1.2	0.2	-3.8	0.4	2.0	1.1	1.4	3.4
수출	-0.4	1.2	-1.2	6.1	0.5	-0.2	4.3	0.1	0.7	3.9	0.0	4.2
수입	-3.0	-6.3	-4.1	6.5	1.4	0.2	-0.5	1.1	2.1	5.0	-0.6	7.6
영국 GDP	-0.3	0.7	0.6	0.6	0.7	0.4	1.7	0.7	0.8	0.7	0.5	2.6
민간소비	0.5	1.1	0.5	0.4	0.5	0.3	1.7	0.6	0.5	0.7	0.3	2.0
고정자본투자	1.1	0.7	1.0	0.6	2.7	2.3	3.4	2.4	1.3	0.5	-0.5	6.8
수출	-1.6	0.7	0.6	4.6	-3.4	-1.3	1.5	1.8	-0.3	-0.8	3.5	0.4
수입	-0.8	3.1	-2.2	3.8	1.9	-1.4	1.4	1.0	-1.3	1.4	1.3	1.8

자료: Eurostat(2015. 4).

다. 일본경제

2014년 4/4분기 일본 경제는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0.4%를 기록함.
 -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득여건 개선 및 연말연시 효과, 주가 상승의 자산효과 등으로 3/4분기 대비 0.2%p 상승한 0.5%를 기록함.
 - 또한, 4/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3/4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인 -0.1%를 기록하였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실적 호조 및 해외생산의 국내 회귀 움직임 등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음.
 - 주택투자 증가율은 건자재가격 인상 및 인력부족에 따른 주택투자 감소로 -1.2%를 기록하였지만 둔화폭은 축소됨.
 - 4/4분기 정부지출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투자는 FY2013 추경예산 등의 조기집행 이후 투자 여력 감소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8% 늘어남.
 -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엔저 효과 가시화 및 아시아 지역의 전자부품 및 기계 수요가 반등 등으로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2.8%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민간소비 회복과 신형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3%를 기록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2 (-0.6)	1.8	1.4 (5.6)	0.8 (3.3)	0.4 (1.4)	-0.3 (-1.2)	1.6	1.3 (5.1)	-1.6 (-6.4)	-0.7 (-2.6)	0.4 (1.5)	0.0
민간소비	0.1	2.3	1.3	0.8	0.3	-0.2	2.1	2.2	-5.0	0.3	0.5	-1.2
설비투자	-0.4	3.7	-1.1	2.2	0.7	1.3	0.4	5.9	-5.0	-0.2	-0.1	4.1
주택투자	1.1	3.2	1.1	1.9	4.2	2.6	8.7	2.4	-10.3	-7.0	-1.2	-5.2
정부지출	0.7	1.7	0.8	0.6	-0.1	0.1	1.9	-0.3	0.4	0.2	0.3	0.3
공공투자	-0.5	2.7	4.9	3.2	5.4	0.6	8.0	-2.2	1.1	2.1	0.8	3.7
수출	-3.4	-0.2	4.3	3.1	-0.5	-0.2	1.5	6.5	-0.3	1.5	2.8	8.2
수입	-2.4	5.3	1.4	2.3	1.8	3.0	3.1	6.9	-5.3	1.0	1.3	7.2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5. 3).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내수 및 수출이 소폭 회복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전분기대비 1.7% 증가함.

○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로 기업수익이 개선되며 2015년 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3.7%를 보였지만 2월 마이너스로 전환됨.

■ 2014년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8.5를 시현하였으나, 2015년 1월 39.1, 2월 40.7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2014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분기보다 2.8%p 하락한 1.0%를 나타내었고 2015년 1월에는 -1.9%로 하락폭이 확대됨.

■ 2014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주택 매매가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0.2%p 낮아진 -13.8%를 나타내었고 2015년 1월에는 -13.0%를 기록함.

○ 4/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1.7% 감소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5	1.6	1.7	1.8	-0.6	3.0	-3.8	-1.9	1.7	2.1	3.7	-3.4
소매판매 증가율 ²⁾ (%)	0.7	0.7	0.3	1.4	1.0	3.8	-7.1	3.8	1.0	1.7	-1.9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4.1	44.7	44.0	41.7	43.6	38.8	39.1	40.9	38.5	39.3	39.1	40.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5.1	11.8	13.5	12.9	11.0	3.4	-9.3	-13.6	-13.8	-9.0	-13.0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0.3	6.4	4.8	1.9	5.8	4.2	-10.4	5.6	0.4	4.0	-1.7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4년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 대비 0.1%p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⁵⁾은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임.

○ 4/4분기 실업률은 3.5%를 기록하였고 2015년 1월에는 3.6%로 소폭 상승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4/4분기 1.12, 2015년 1월 1.14로 상승세를 지속함.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유 공급량 증가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 및 소비세율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0.7%p 하락한 2.6%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2.4%로 하락세가 이어짐.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4/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2.1%였으며, 2015년 1월 2.1%를 기록함.

5)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4.2	4.0	4.0	3.9	4.0	3.6	3.6	3.6	3.5	3.6	3.6
유효구인배율 ¹⁾ (배)	0.85	0.90	0.95	1.00	0.93	1.05	1.09	1.10	1.12	1.09	1.14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6	-0.3	0.9	1.4	0.4	1.5	3.6	3.3	2.6	2.7	2.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8	-0.4	-0.1	0.5	-0.2	0.7	2.3	2.3	2.1	1.9	2.1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라. 중국경제

2014년 4/4분기 중국 경제는 제조업과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투자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7.3% 성장하는데 그침.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며 3/4분기보다 0.4%p 하락한 1.5%를 기록함.

○ 4/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에 이어 과잉생산 억제 정책 영향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며 전분기 증가율보다 0.7%p 하락한 15.8% 증가함.

○ 한편, 4/4분기 수출 증가율의 경우 유로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4.1%p 하락한 8.7%를 기록하였고 2015년 1월에는 -3.2%를 나타내었으나, 2월 48.3%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대(對)아세안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한 반면, 유로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으며, 지역별 증가율은 아세안 17.1%, 홍콩 9.7%, 미국 7.7%, 유로 지역 4.3%임.⁶⁾

○ 4/4분기 수입 증가율은 수요 위축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1.5%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19.7%, 2월 -20.5%로 하락폭이 커짐.

6) 국제금융센터(2015. 1. 20).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	1.7 (7.8)	1.8 (7.5)	2.3 (7.9)	1.8 (7.6)	7.7	1.6 (7.4)	1.9 (7.5)	1.9 (7.3)	1.5 (7.3)	7.4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1.1	20.4	20.2	19.9	20.3	17.8	17.3	16.5	15.8	16.8	13.9 ³⁾	
수출 ⁴⁾ (%)	18.9	4.1	4.0	7.5	8.6	-6.6	4.2	12.8	8.7	4.8	-3.2	48.3
수입 ⁴⁾ (%)	9.6	5.1	8.5	7.1	7.6	-0.1	0.8	0.7	-1.5	0.0	-19.7	-20.5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임.

4)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2014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반부패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반부패 정책 영향과 부동산 시장 성장 둔화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1.7%를 기록하였음.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4.9를 기록하였고 2015년 1월 105.7로 상승세가 지속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6	13.0	13.3	13.5	13.2	12.2	12.3	11.9	11.7	12.0	n.a.	n.a.
소비자신뢰지수	105.1	99.9	98.3	101.4	101.2	104.0	103.9	104.5	104.9	104.4	105.7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4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3/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도 소폭 하락함.

-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7.6%를 기록함.
- 4/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50.4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 1월 49.8, 2월 49.9를 기록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9	9.1	10.1	10.0	9.7	8.8	8.9	8.0	7.6	8.2	n.a.	n.a.
구매자관리지수 ²⁾	50.5	50.5	50.8	51.3	50.8	50.3	50.7	51.3	50.4	50.7	49.8	49.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4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와 식품 가격 하락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하락함.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0.5%p 낮아진 1.5%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0.8%, 2월 1.4%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2.7%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증가되었으며 2015년 1월 -4.3%, 2월 -4.8%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2.4	2.8	2.9	2.6	2.3	2.2	2.0	1.5	2.0	0.8	1.4
생산자물가 상승률(%)	-1.7	-2.7	-1.7	-1.4	-1.9	-2.0	-1.5	-1.3	-2.7	-1.9	-4.3	-4.8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4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한 2.7%에 그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비심리 부진⁷⁾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⁸⁾ 등으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1.4%를 나타냄.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3년 4/4분기 10.9%의 기저효과로 4.2%를 기록하였으며 건설투자 증가율의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부진 등으로 -1.8%를 나타냄.
-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IT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하락 등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과 공공부문 재정집행 부진 등으로 전분기 대비 2.0%p 하락한 3.3%를 나타냄.
- 재화수출 증가율은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으로 -0.3%를 기록하였으며 재화수입도 내수회복 지연으로 1.1% 감소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1 (0.6)	2.7 (1.0)	3.4 (1.1)	3.7 (0.9)	3.0	3.9 (0.9)	3.5 (0.5)	3.2 (0.9)	2.7 (0.4)	3.0
민간소비	1.7	2.1	2.1	2.2	2.0	2.5	1.5	1.5	1.4	2.0
설비투자	-12.7	-3.9	1.5	10.9	-1.5	7.3	7.7	4.3	4.2	-1.5
건설투자	1.9	9.8	8.8	5.4	6.7	4.3	0.2	2.6	-1.8	6.7
지식생산물투자	6.6	7.3	5.3	9.7	7.3	7.3	5.7	5.3	3.3	7.3
재화수출(F, O, B)	6.6	6.5	2.4	3.0	4.5	3.9	3.6	1.7	-0.3	4.5
재화수입	-1.5	0.8	0.4	4.9	1.2	3.4	1.2	1.8	-1.1	1.2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7) 소비자심리지수(CSI, 분기 중 평균): 2014년 1/4분기 108.3 → 2/4분기 106.3 → 3/4분기 106.0 → 4/4분기 103.0

8)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법 보조금 차별과 통신사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보조금 상한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음(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10. 30)).

〈산업생산 · 경기〉

■ 2014년 4/4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 감소로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5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0.4%, 0.8% 늘어나 광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대(對)중국 수출 부진, 자동차업계 파업 및 승용차 수출 부진,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 및 현지생산 확대 등에 따른 ICT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함.

- 2015년 1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및 ICT 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하면서 1.7% 늘어났으나 이는 주로 2014년 1월 광공업생산 부진⁹⁾에 따른 기저효과임.

○ 2014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연말효과와 부동산경기 회복세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6% 늘어남.

- 2015년 1월 대내외 경기 불안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세도 둔화되었음.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²⁾	1월 ²⁾	2월 ²⁾
전산업생산 ³⁾	2.8	1.7	1.7	0.9	1.7	0.6	1.3	0.4	0.8
광공업	2.2	0.7	0.7	0.5	1.2	-1.9	0.0	1.7	-4.7
제조업	2.3	0.7	0.7	0.4	1.2	-1.9	0.1	1.6	-4.8
자동차	5.8	1.4	7.6	3.6	2.0	-3.1	2.4	1.3	-11.7
ICT	-0.9	3.6	-1.5	1.6	-1.2	-6.0	-1.8	1.1	-1.0
서비스업	2.1	1.5	2.0	1.5	2.6	2.6	2.2	2.1	2.9
도매 및 소매업	2.1	1.5	2.0	1.5	2.6	2.6	2.2	-2.9	2.7
운수업	0.5	0.1	0.3	-0.3	0.0	-0.6	-0.2	4.6	4.2
숙박 및 음식점업	0.4	1.0	-0.2	0.0	1.9	4.7	1.7	0.5	-1.6
금융 및 보험업	3.3	0.5	2.1	0.7	2.1	-0.1	1.2	9.6	8.5
부동산 및 임대업	-0.5	0.5	1.5	3.5	6.4	9.0	5.2	5.7	4.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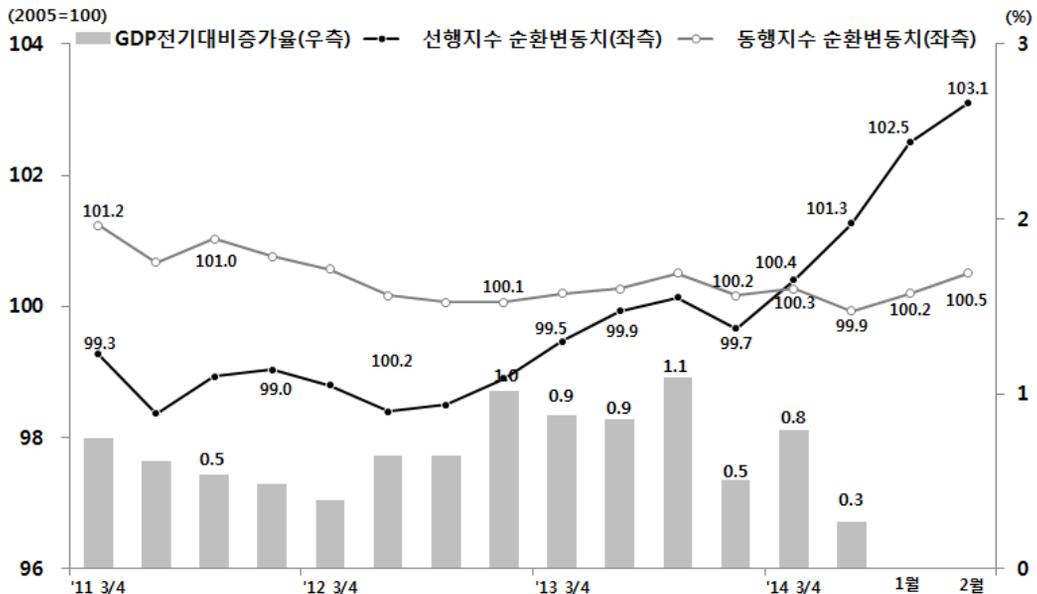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9) 2014년 1월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지수, 자동차생산지수, ICT 생산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4.4%, 3.1%, 7.5% 감소하였음.

■ 2014년 4/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9 상승한 101.3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4 하락한 99.9를 나타냈으나 2015년 1월과 2월 기준 (100)을 소폭 상회함.

- 4/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구인구직비율 상승 등으로 전분기대비 0.9 오른 101.3을 기록함.
 - 2015년 1월 건설수주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102.5를 기록하였으며 2월 소비심리 소폭 개선 등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한 103.1을 나타냄.
- 4/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전분기 대비 0.4 하락한 99.9를 나타냄.
 - 2015년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로 광공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100.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월 소매판매 및 건설기성이 소폭 회복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한 100.5를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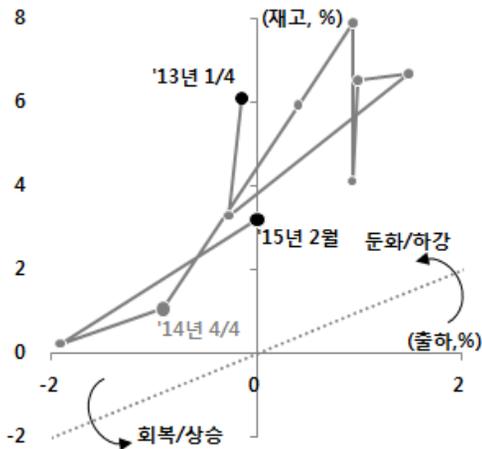
주: 2014년 4/4분기, 2015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4/4분기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하였고 재고는 전분기대비 4.8%p 하락한 1.1% 증가하는데 그쳐 제조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의 경우 재고증가세 둔화로 전분기대비 2.1%p 하락한 119.8%를 나타냄.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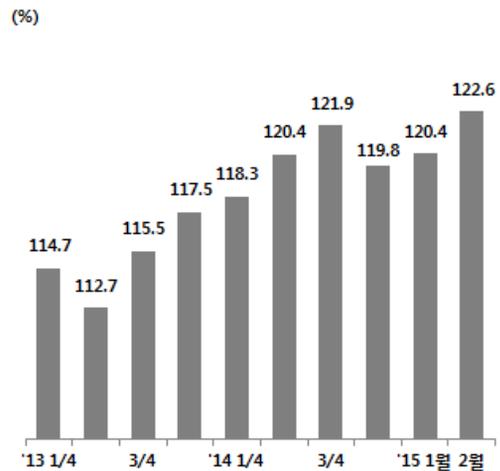
○ 2015년 1월에도 출하가 1.9% 감소하고 재고도 0.2% 증가하는데 그쳐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은 제조업 생산 증가로 120.4%를 기록함.

○ 2월 출하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재고는 3.2%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의 둔화/하강국면이 깊어지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도 전월대비 2.2%p 상승한 122.6%를 나타냄.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화를 판단하는 도표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0) 2014년 10월~2015년 2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내수부문〉

■ 2014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 소비 증가에도 준내구재 판매 부진과 비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4% 증가하는데 그쳐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상승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4/4분기 내구재 판매의 경우 승용차 판매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6.9% 증가하였으며 2015년 1월에도 10.2% 증가하였으나 2월 승용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0.3% 늘어나는데 그침.

- 승용차 판매는 2013년 4/4분기 3.4% 감소했던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6.1%p 상승한 21.3% 증가하였으며 2015년 1월에도 21.4% 늘어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¹¹⁾ 등으로 2014년 4/4분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5년 1월에는 3.2% 감소하였음.

○ 2014년 4/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0.1% 감소하였으며 2015년 1월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담배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9.0% 감소하였으나 2월 10.8% 증가하였음.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민간소비	2.2	1.9	2.6	1.7	1.5	1.4	1.8	-	-
소매판매	1.1	0.7	2.4	0.8	1.5	1.9	1.7	-2.9	5.5
내구재	-1.5	0.3	5.6	2.5	5.7	6.9	5.1	10.2	0.3
* 승용차	-3.4	2.1	14.1	15.6	15.2	21.3	16.6	21.4	6.7
준내구재	1.3	2.1	-1.8	-2.2	1.4	0.4	-0.6	-3.2	0.7
비내구재	2.4	0.4	2.6	1.4	-0.5	-0.1	0.8	-9.0	10.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1) 2015년 1월 평균 기온은 0.5℃로 2001~2010년 평균 -0.6℃ 및 2011~2014년 평균 -1.9℃보다 온난하여 의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3. 2)).

■ 2014년 4/4분기 설비투자는 기업투자심리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4.2% 증가하는데 그침.

○ 설비투자지수의 경우 기계류 투자가 증가전환하면서 전분기대비 3.9%p 높아진 5.4%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5년 1월 기계류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설비투자지수는 14.1% 높아졌으나 2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부진하여 3.6% 상승하는데 그침.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6.3% 감소하였고 2015년 1월 유가 및 이자율 하락, 연초 효과 등으로 33.1% 늘어났으나 2월 1.4% 증가하는데 그침.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설비투자	11.6	-0.8	7.2	7.7	4.2	4.2	5.8	-	-
설비투자지수	11.0	-0.8	7.5	6.7	1.5	5.4	5.0	14.1	3.6
기계류	13.0	-2.1	7.3	3.9	-0.9	5.4	3.9	17.8	4.8
운송장비	6.0	2.8	7.8	14.4	7.8	5.5	8.0	4.9	0.2
국내기계수주 ³⁾	32.0	6.6	18.5	4.0	49.4	-6.3	13.3	33.1	1.4
건설투자	8.9	8.4	8.6	9.2	8.8	5.1	-2.7	-	-
건설기성(불변)	9.8	10.2	6.6	0.1	-1.9	-5.9	7.8	-4.2	0.2
건축	18.8	15.1	17.2	11.9	5.9	-0.9	-16.3	-1.6	1.0
토목	-0.4	4.4	-7.4	-15.4	-13.2	-12.4	0.0	-8.3	-1.4
국내건설수주(경상)	26.3	-12.9	15.5	25.4	42.8	-7.5	21.5	30.5	-4.0
건축	23.3	-10.2	11.2	45.6	61.8	-5.0	-33.1	75.1	2.1
토목	33.7	-18.2	24.0	-11.5	-6.2	-13.1	0.0	-39.1	-1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4/4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3.2%p 낮아진 5.1% 증가하는데 그침.

○ 4/4분기 건설기성은 건축부문 감소 전환과 토목부문 부진 지속으로 5.9% 줄어들어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2015년 1월에도 비주거용 건축 및 플랜트를 제외한 토목 부문 감소로 4.2% 줄어들었으나 2월 건축 부문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0.2% 늘어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013년 4/4분기 국내건설수주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로 7.5% 감소하였음.
- 2015년 1월 주택경기 회복 등으로 건축 부문 수주가 75.1% 늘어나면서 국내건설수주는 30.5% 증가하였으나 2월 토목부문 감소세가 지속되고 건축 부문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4.0% 감소함.

〈고용〉

- 2014년 4/4분기 산업생산 부진으로 총취업자 증가율과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여성 및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취업자 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나¹²⁾ 실업률도 하락함.
- 총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5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1.4%, 1.5%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청년취업자 수 증가율도 2014년 4/4분기 1.5%, 2015년 1월 0.7%, 2월 0.8%를 나타냄.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60.4%를 나타냈으며 2015년 1월 58.7%로 하락함.
- 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3.2%를 나타냈으나 2015년 1월과 2월 3.8%, 4.6%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 4/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8.3%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2015년 들어 방학, 취업시즌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1월 9.2%, 2월 11.1%를 기록함.¹³⁾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년 1/4분기 3.4 → 2/4분기 2.4 → 3/4분기 2.4 → 4/4분기 2.1

13)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으로 청년 취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3. 18)).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¹⁾	2.2	1.6	3.0	1.8	2.0	1.7	2.1	1.4	1.5
청년취업자 ¹⁾	1.2	-1.3	2.6	1.4	2.7	1.5	2.0	0.7	0.8
고용률 ²⁾	60.0	59.5	58.8	60.8	60.9	60.4	60.2	58.7	58.8
실업률 ³⁾	2.8	3.1	4.0	3.7	3.3	3.2	3.5	3.8	4.6
청년 ⁴⁾ 실업률 ³⁾	7.9	8.0	9.8	9.4	8.6	8.3	9.0	9.2	11.1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9	-0.5	1.0	-3.3	-7.0	-7.2	-4.5	-9.5	-7.7
광공업	1.2	1.9	2.9	3.2	4.6	2.9	3.4	3.1	3.6
제조업	1.2	1.9	3.0	3.3	4.7	3.0	3.5	3.3	3.7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2.7	1.6	3.2	2.0	2.3	2.1	2.4	1.6	1.6
건설업	-0.5	-1.1	1.6	0.7	3.3	4.0	2.4	4.1	4.1
도·소매, 음식, 숙박	2.6	0.6	5.5	3.8	4.9	4.2	4.6	2.8	2.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9	2.1	1.9	-0.5	-2.5	-1.3	-0.6	-1.4	-0.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6	2.7	2.4	1.9	2.1	1.5	2.0	1.4	1.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4년 4/4분기 농림어업자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광공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되었음.

○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7.2% 감소하였으며 2015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9.5%, 7.7% 줄어들었음.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¹⁴⁾는 4/4분기 광공업생산 둔화로 전분기대비 1.7% 하락한 2.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15년 1월 제조업 생산이 증가전환 하면서 3.1% 늘어남.

○ 2014년 4/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2.1% 증가하는데 그침.

14) 제조업 포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4.0% 증가하였으며 2015년 1월과 2월 각각 4.1%씩 늘어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4.2%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2015년 1월 2.8%, 2월 2.4% 증가하는데 그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14년 4/4분기와 2015년 1월 각각 1.3%, 1.4% 줄어들어 2014년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4/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5년 1월에도 1.4%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대외거래〉

- 2014년 4/4분기 수출은 ASEAN 성장세 둔화, 유럽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친 1,476억 9,738만 달러,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2.8% 줄어든 1,293억 5,057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183억 4,68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수출의 경우, 중화학 공업품(+2.6%)을 제외한 식료 및 직접소비재(-2.2%), 원료 및 연료(-10.9%), 경공업 제품(-0.9%)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
 - 2015년에도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및 러시아, ASEAN 경기 둔화 등으로 1월과 2월 각각 0.9%, 3.3% 감소함.
 - 수입의 경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7.4%)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원유 및 철강, 석탄 등의 단가 하락으로 원자재(-8.6%)는 감소하였으나 자본재는 전분기대비 4.0%p 상승한 5.2% 증가하였음.
 - 2015년 1월과 2월 원자재 수입이 24.9%, 34.1% 감소함에 따라 수입도 각각 11.1%, 19.7% 줄어들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표 25〉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7	-1.7	4.8	4.5	9.4	-2.2	3.9	3.8	-14.1
	원료 및 연료	-10.6	-6.5	-7.5	2.9	3.3	-10.9	-3.2	-38.9	-39.5
	경공업 제품	-1.0	-3.6	-2.6	-0.4	-0.1	-0.9	-1.0	-3.2	-6.8
	중화학 공업품	7.6	4.0	3.4	3.5	3.9	2.6	3.3	4.9	1.9
	전체	4.7	2.1	1.6	3.2	3.6	0.9	2.3	-0.9	-3.3
금액(억 달러)		1,464	5,596	1,375	1456.7	1417.6	1477.0	5726.6	451.6	415.0
수입	소비재	10.8	7.5	9.7	12.8	19.0	7.4	12.1	11.2	7.4
	원자재	-1.4	-3.7	0.8	0.9	4.8	-8.6	-0.6	-24.9	-34.1
	자본재	8.1	2.8	1.9	4.6	1.2	5.2	3.3	14.3	3.6
	전체	2.5	-0.8	2.0	3.3	5.4	-2.8	1.9	-11.1	-19.7
	금액(억 달러)	1,331	5,156	1,324	1309.6	1328.4	1293.5	5255.1	397.9	337.9
무역수지(억 달러)		133.0	440.5	51.7	147.2	89.2	183.5	471.5	53.6	77.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5년 2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4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ASEAN, EU,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효과이며 수입의 경우 유가 하락 및 엔저 지속으로 중동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ASEAN으로의 수출은 인도네시아 수출 둔화, 태국 내수위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였고, 대(對)일본 수출도 13.9% 줄어들었으나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21.8%)으로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1월 EU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ASEAN, EU, 중동,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4/4분기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18.8% 감소하였으며 일본 및 동남아로부터의 수입도 각각 2.1%, 8.3% 줄어들었음.

- 2015년 들어서도 유가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민간소비 및 제조업 생산 부진,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1월 4.8%, 2월 13.7% 감소하였고 EU로부터의 수입도 비슷한 추세를 보임.

〈표 26〉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3	2014				연간	2015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수출	중국	25.4	8.6	2.7	-2.8	-1.7	0.4	-0.4	5.3	-7.6
	ASEAN	14.8	3.6	10.1	1.7	3.8	-3.0	3.1	-9.8	-26.1
	미국	12.3	6.0	2.6	13.0	15.0	21.9	13.3	14.6	7.4
	EU	9.0	-1.0	16.2	6.9	4.3	-4.1	5.7	-23.1	-30.7
	중남미	6.3	-1.1	-14.5	-15.5	13.6	14.6	-1.1	37.6	3.2
	중동	6.1	-11.8	-2.1	6.9	19.0	9.3	7.7	-5.0	-6.7
	일본	5.6	-10.7	-10.1	0.0	-3.5	-13.9	-7.2	-19.5	-23.4
	전체	100.0	2.1	1.6	3.2	3.6	0.9	2.3	-0.9	-3.3
수입	중동	22.7	-1.2	-2.8	-1.0	0.8	-18.8	-5.6	-34.0	-48.5
	중국	17.1	2.8	5.6	8.2	7.7	12.1	8.5	9.0	20.5
	동남아	13.5	2.7	2.8	-0.1	5.2	-2.1	1.4	-6.8	-5.7
	EU	11.9	11.6	8.8	18.9	11.2	5.5	10.9	-8.2	-15.3
	일본	10.2	-6.7	-13.9	-10.5	-8.9	-8.3	-10.4	-4.8	-13.7
	미국	8.6	-4.2	9.9	10.8	11.8	4.1	9.1	0.3	-23.8
	호주	3.9	-9.6	11.0	-2.0	-3.5	-11.5	-1.7	1.4	-26.1
	전체	100.0	-0.8	2.0	3.3	5.4	-2.8	1.9	-11.1	-19.7

주: 1) 2014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으로 상품가격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0%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과 2월에도 상품가격 하락으로 0.8%, 0.5%를 나타냄.

○ 상품가격 상승률은 기상호조 및 수요부진 등에 따른 농축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0.8%p 낮아진 0.2%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전기·수도·가스 물가 하락으로 -0.2%를 기록함.

○ 서비스물가 상승률도 상당수의 공공요금 이 동결되면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6%에 그쳤으며 2015년 1월과 2월 각각 1.5%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대비 4.3 상승한 118.4를 나타냈으나 2015년 1월 106.6, 2월 103.0을 나타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14.1	111.4	118.4	115.7	114.1	118.4	113.0	106.6	1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1.1	1.3	1.1	1.6	1.4	1.0	1.3	0.8	0.5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8	1.0	1.0	1.6	1.0	0.2	1.0	-0.1	-0.7
농축수산물	-4.3	-0.6	-4.7	-2.2	-3.3	-0.3	-0.6	0.7	1.1
공업제품	1.4	0.9	1.6	2.0	1.6	-0.1	0.9	0.1	-0.8
전기·수도·가스	4.2	4.5	5.4	4.2	3.4	2.5	4.5	-2.6	-2.5
서비스	1.3	1.5	1.3	1.6	1.7	1.6	1.5	1.5	1.5
집세	2.5	2.7	2.5	2.4	2.3	2.2	2.7	2.3	2.3
공공서비스	0.6	0.7	0.7	0.7	0.9	0.7	0.7	0.5	0.5
개인서비스	1.3	1.6	1.2	1.8	1.9	1.8	1.6	1.7	1.8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가계소득〉

■ 201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소비심리 부진 등에 따른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고용 둔화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2.4%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소비지출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9% 늘어나는데 그침.

○ 201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4%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4% 늘어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0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9만 7,000원으로 8.3%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0만 6,000원으로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0.9% 증가하였으며 소비지출은 0.1% 감소해 흑자액은 8.3%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1.5%로 전년동기보다 1.5%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8.5%로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16.3	416.2	440.3	415.2	438.8	426.4	430.2
	증가율	1.7	2.1	5.0	2.8	3.0	2.4	3.4
	실질증가율 ²⁾	0.7	0.8	3.9	1.1	1.6	1.4	2.1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40.4	338.1	356.3	338.1	355.0	350.3	349.8
	증가율	1.3	1.9	5.1	2.8	2.8	2.9	3.5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48.4	248.1	265.4	247.8	257.6	250.6	255.1
	증가율	3.0	0.9	4.4	3.1	3.3	0.9	2.8
	실질증가율 ²⁾	1.9	-0.4	3.2	1.5	1.9	-0.1	1.5
흑자액	금액(만 원)	92.0	90.0	90.9	90.3	97.4	99.7	94.7
	증가율	-3.0	4.7	7.3	2.2	1.6	8.3	5.2
평균소비성향 ³⁾		73.0	73.4	74.5	73.3	72.6	71.5	72.9
흑자율 ⁴⁾		27.0	26.6	25.5	26.7	27.4	28.5	27.1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2015년 1/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4년 3/4분기보다 20bp 하락한 1.97%를 기록함. 2015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 등의 영향에 의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2014년 4/4분기 평균 환율 1,086.7원보다 13.6원 상승한 1,100.3원을 기록함. 2015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증시 상승,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중국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평균 1,947.43보다 상승한 평균 1,965.93을 기록함. 2014년 4/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44.4% 증가하였으며,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증권과 자산운용은 감소하고 은행은 증가함.

〈금리〉

-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은 2014년 4/4분기 2.00%로 하향 조정한 기준금리를 1.75%로 다시 하향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함.
 - 국내경제는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GDP 갭 마이너스 상태의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하향 조정을 결정함.

- 2015년 1/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0bp 하락한 1.97%를 나타냄.
 - 1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2월 평균 2.14%에서 10bp 하락하여 평균 2.04%를 기록함.

- 2월 국고채 금리는 2월 초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잠시 상승하였으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가 지속되고,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국고채 금리보다 2bp 하락한 평균 2.02%를 기록함.
- 3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bp 하락하여 평균 1.87%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2.06%로 3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5bp 하락함.

- 1/4분기 CD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평균 2.06%를 나타내며 전분기대비 10bp 하락하였음.
- 1/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10bp 하락한 -9bp를 기록하며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남.
- 회사채 금리는 1/4분기 평균 2.26%로 전분기대비 25bp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평균 29bp로 전분기대비 5bp 하락함.
- 1/4분기 회사채 금리는 연초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 재개와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메리트 부각의 영향으로 국고채(3년 만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2015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2.50	2.25	2.00	1.75	-0.25	-0.75
CD(91일)	2.65	2.65	2.51	2.16	2.06	-0.10	-0.59
국고채(3년)	2.87	2.82	2.50	2.17	1.97	-0.20	-0.90
회사채(3년, AA-)	3.30	3.25	2.89	2.51	2.26	-0.25	-1.04
스프레드(국고채-CD)	0.22	0.17	-0.01	0.01	-0.09	-0.10	-0.31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3	0.43	0.39	0.34	0.29	-0.05	-0.14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 2015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평균 1,100.3원을 기록함.
 - 1월 원/달러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 유가 하락 등에 따른 미 연준 금리 정상화 지연 기대 등의 하락 요인이 있었으나 ECB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실시, 싱가포르의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아시아 통화약세의 영향으로 반등하여 평균 1,088.9원을 기록함.
 - 2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엔화 약세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 수입 업체 결제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평균 1,098.4원을 나타냄.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지속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1,112.6원을 기록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069.0	1,030.4	1,025.8	1,086.7	1,100.3	1,088.9	1,098.4	1,112.6
엔/달러	102.8	102.2	103.8	114.5	119.2	118.3	118.6	120.4
달러/유로	1.370	1.371	1.328	1.249	1.127	1.164	1.135	1.085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1/4분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그리스 정국불안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1월 달러화는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가능성 및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으며, 평균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18.3엔, 1.135달러를 나타냄.
 - 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1월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118.6엔을 기록하였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 1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1.135달러를 나타냄.

- 3월 달러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개시, 미 고용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엔/ 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하락하여 각각 3월 평균 120.4엔과 1.085달러를 기록함.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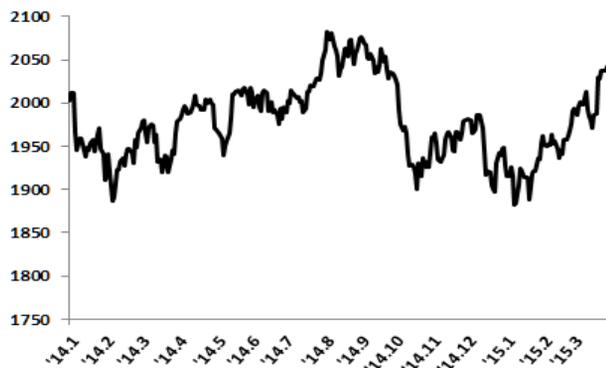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증시 상승,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중국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임.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결정 등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글로벌 증시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전망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2월 1,941.93에 비해 하락한 1,920.99를 기록함.

- 한국은행은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4년 10월 전망한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함.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여 1,961.00을 기록함.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12.62로 중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미국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였음.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 2014년 4/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9조 6,083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44.4% 증가함.
 - 4/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58.8% 증가한 16조 5,865억 원임.
 -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모두 각각 전분기대비 28.3%, 7.2% 증가하여 각각 32조 7,771억 원, 16조 1,906억 원을 기록함.
 - 4/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4% 감소한 3조 218억 원임.
 -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24.8%, 30.8% 증가하였으나 원수손해액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손해보험 순수신이 감소함.

- 2014년 4/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권과 자산운용은 감소하고 은행은 증가함.
 - 은행의 경우 일반계정과 신탁계정이 전분기대비 증가하여 각각 31조 4,189억 원, 7조 7,673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8조 7,159억 원 증가한 39조 1,862억 원을 기록함.
 - 이는 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채 발행 확대 및 연말 재정집행 자금 유입에 따른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의 영향임.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 5조 3,478억 원에서 6조 126억 원 감소하였음.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조 6,177억 원 감소한 16조 44억 원 임.
 - 금리 혜택 축소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 인출로 인한 MMF 수신이 감소함.
 - 주식형펀드 및 채권형펀드는 환매규모 확대와 시장금리 추가하락 기대 약화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음.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95,836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
- 생보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
수입보험료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
지급보험금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
- 손보	29,722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
원수보험료	169,569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
원수손해액	139,847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
은행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239,283
- 일반 ²⁾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87,280
- 신탁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52,003
증권 ³⁾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자산운용 ⁴⁾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종금 ⁵⁾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6,816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4.1%, 15.9%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55조 1,204억 원을 기록함. 2014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87조 1,507억 원임.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7% 늘어난 862조 3,828억 원을 기록함.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0.4%를 나타냄. 2014년 보험산업 연간 자본이익률은 6.6%를 기록함.

가. 수입보험료

- 2014년 4/4분기¹⁾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부분 종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²⁾ 14.8% 늘어난 55조 1,204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와 단체보험 중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14.1% 증가한 32조 7,771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소폭 증가와 퇴직연금 급증으로 15.9% 늘어난 22조 3,433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87조 1,507억 원임.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2014년 4/4분기는 2014년 10월부터 12월 까지를 말함.

2) 2014년 4/4분기의 전년 동기기간은 FY2013 3/3분기인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³⁾	연간 ⁵⁾
생명보험	24.5	24.0	28.7	77.2	25.7	26.5	25.6	32.8	110.6
	(-0.1)	(-14.7)	(-8.3)	(-8.0)	(-17.8)	(8.1)	(6.5)	(14.1)	(1.9)
손해보험	17.4	17.1	19.3	53.8	18.3	18.0	17.9	22.3	76.6
	(3.3)	(2.3)	(6.8)	(4.2)	(8.0)	(3.8)	(4.6)	(15.9)	(8.3)
합계	41.9	41.1	48.0	130.4	44.1	44.5	43.5	55.1	187.2
	(1.3)	(-8.3)	(-2.8)	(-3.4)	(-8.8)	(6.4)	(5.7)	(14.8)	(4.4)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은 2014년 1~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3.7% 늘어난 862조 3,828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 증가로 전분기대비 3.4%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의 경우 일반계정 자산 가운데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대출채권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호조세로 퇴직연금 관련 자산도 늘어나 전분기대비 4.7% 증가함.
- 2014년 연간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2.3% 늘어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생명보험	569.5	584.1	597.5	597.5	609.2	625.0	640.4	662.1	662.1
	(-0.1)	(2.6)	(2.3)	(9.1)	(2.0)	(2.6)	(2.5)	(3.4)	(10.8)
손해보험	160.3	165.1	170.6	170.6	176.9	185.1	191.4	200.3	200.3
	(2.5)	(3.0)	(3.3)	(12.4)	(3.7)	(4.6)	(3.4)	(4.7)	(17.4)
합계	729.8	749.2	768.0	768.0	786.1	810.2	831.8	862.4	862.4
	(0.5)	(2.6)	(2.5)	(9.8)	(2.4)	(3.1)	(2.7)	(3.7)	(12.3)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년은 2014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여 0.4%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0.3%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0.9%를 나타냄.
- 2014년 연간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 5.9%, 손해보험 8.7%이며, 보험산업 전체는 6.6%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1/4	2/4	3/4	4/4 ³⁾	연간
생명보험	1.6	1.8	0.7	4.0	1.9	2.0	2.0	0.3	5.9
손해보험	2.9	2.4	1.5	6.7	2.6	3.0	2.2	0.9	8.7
합계	2.0	2.0	0.9	4.7	2.1	2.3	2.0	0.4	6.6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32조 7,771억 원을,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662조 752억 원을 기록함. 2014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전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3.8% 감소한 1,559억 원을 나타냈으며, 운용자산 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은 각각 4.5%, 0.3%로 나타남. 2014년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 채널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모집조직은 전분기대비 임직원이 소폭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조직은 감소함.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와 비교했을 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4.1% 증가한 32조 7,771억 원을 기록함(〈표 4〉 참조).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45.2% 증가함.
 - 2014년 연간기준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단체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3년 대비 1.9% 소폭 증가함.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시중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662조 752억 원을 시현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수입보험료 ²⁾	24.5 (-0.1)	24.0 (-14.7)	28.7 (-8.3)	77.2 (-8.0)	25.7 (-17.8)	26.5 (8.1)	25.6 (6.5)	32.8 (14.1)	110.6 (1.9)
총자산	569.5 (-0.1)	584.1 (2.6)	597.5 (2.3)	597.5 (2.3)	609.2 (2.0)	625.0 (2.6)	640.4 (2.5)	662.1 (3.4)	662.1 (3.4)

주: 1)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특별계정 보험종목인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에 포함한 실적임.

3)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4) 2014년은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4년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및 비과세 혜택 유지로 13.4% 증가함.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6.2% 늘어남.
 -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8.8%, 3.0% 증가함.
 -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4.7%, 19.9% 증가하면서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신계약위주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6.8%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음.
 - 생사혼합보험 상품의 경우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으나 계속보험료가 8.8% 증가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변액유니버설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하였음.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감소율이 3/4분기 -18.9%에서 4/4분기 -3.1%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계속보험료가 11.2%로 증가율이 확대됨.
 - 변액종신보험 또한 계속보험료 위주로 14.8% 증가하였고, 변액CI보험이 포함된 변액보험 기타 종목은 2.3% 증가에 그침.
 - 2014년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이 4.6% 증가하였으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이 각각 7.6%, 3.5%, 1.9%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7% 감소함.
- 2014년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5.2%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2.3%, 97.5% 감소함.
 - 반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7.3%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퇴직연금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5.0% 증가한 반면 계속보험료는 3.9% 증가에 그침.
 - 2014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5.8% 증가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생존	보험료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증가율	-8.9	-39.6	-39.2	-32.0	-40.6	14.1	8.9	13.4	-7.6
	구성비	21.7	22.5	19.3	21.1	22.5	22.9	23.0	19.2	21.7
사망	보험료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증가율	3.3	4.1	4.0	3.8	3.6	4.1	4.6	6.2	4.6
	구성비	32.2	33.1	27.9	30.9	31.6	31.0	32.5	26.0	30.0
생사 혼합	보험료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증가율	3.3	-15.4	-13.2	-9.0	-25.5	8.5	6.4	6.8	-3.5
	구성비	19.4	19.3	16.0	18.1	19.7	19.5	19.2	15.0	18.1
변액 보험	보험료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증가율	0.4	-0.8	-2.5	-0.9	-6.2	-2.5	0.5	0.9	-1.9
	구성비	21.5	21.4	17.9	20.1	20.2	19.3	20.2	15.9	18.7
개인계	보험료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증가율	-0.4	-15.1	-15.0	-10.6	-19.2	5.8	5.0	6.8	-1.7
	구성비	94.8	96.3	81.1	90.2	93.9	92.7	95.0	76.0	88.6
단체	보험료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증가율	5.3	-2.4	38.6	25.7	13.2	51.2	43.5	45.2	45.8
	구성비	5.2	3.7	18.9	9.8	6.1	7.3	5.0	24.0	11.4
합계	보험료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증가율	-0.1	-14.7	-8.3	-8.0	-17.8	8.1	6.5	14.1	1.9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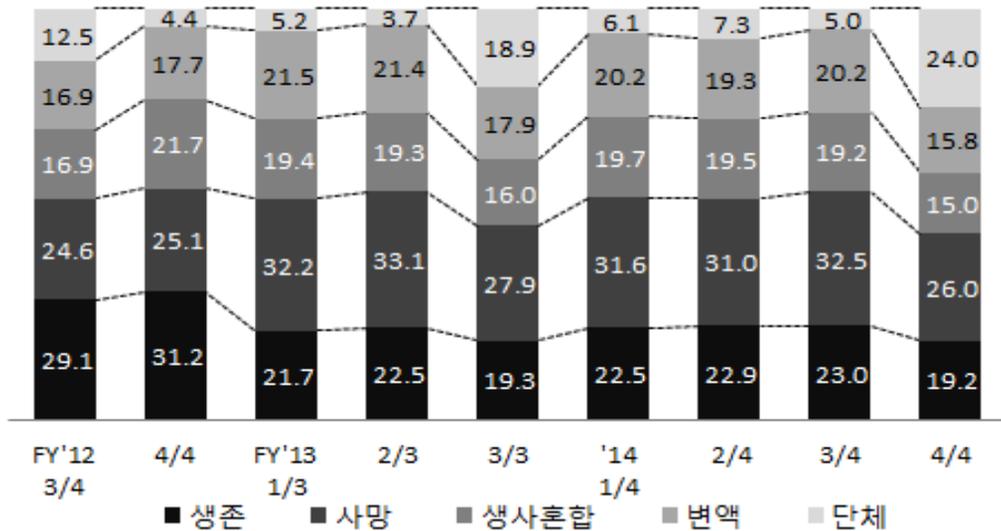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단체보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그 외의 개인보험 종목은 모두 축소됨.

-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p, 1.0%p, 2.1%p 하락하며 각각 26.0%, 15.0%, 15.8%를 나타냄.
 - 사망보험이 7분기 연속 생명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9.2%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 전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5.1%p 상승하여 24.0%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중·소형사는 상승하였고, 상위 3사와 외국사는 하락하였음.

-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1.7%와 11.1%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5%p, 4.5%p 하락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5.9%p 상승한 37.2%를 기록함.
- 2014년 기준으로 상위 3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대비 각각 0.6%p, 3.8%p 하락하여 각각 49.0%와 13.1%를 나타냈으며, 국내 중·소형사는 4.4%p 상승하여 37.9%를 나타냄.
 - 이는 외국사로 분류되었던 ING생명이 2014년 국내 법인에 인수되면서 국내 중·소형사로 편입된 영향이 존재함.

■ 2014년 4/4분기 허핀달 지수는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1 상승한 0.1315로 나타났으며, 2014년 연간 허핀달 지수는 0.1138임.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⁵⁾	1/4	2/4	3/4	4/4	연간 ⁵⁾
상위 3사	46.8	48.1	53.2	49.6	47.5	48.2	48.0	51.7	49.0
국내 중·소형사 ²⁾	36.7	34.6	31.3	33.5	38.6	38.2	37.8	37.2	37.9
외국사 ³⁾	16.4	17.3	15.6	16.9	13.9	13.7	14.2	11.1	13.1
허핀달 지수 ⁴⁾	0.1062	0.1072	0.1284	0.1140	0.1070	0.1088	0.1082	0.1315	0.1138

주: 1) 퇴직연금·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 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말 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5%p 하락한 49.4%를 기록함.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은 지급보험금이 각각 1.5%, 10.2%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4.0%p, 7.1%p 하락한 51.1%, 57.0%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하회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2.3%p 하락한 53.3%, 58.1%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한 영향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한 33.9%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12.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8.9%를 기록함.
- 2014년 보험금 지급률은 56.3%를 기록하였으며, 사업비율은 14.0%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¹⁾	55.4	54.8	52.9	54.2	60.4	58.1	59.1	49.4	56.3
개인	52.9	53.0	57.8	54.6	57.0	54.8	56.2	54.3	55.6
생존	49.1	49.0	53.8	50.7	53.1	49.5	52.8	53.3	52.2
사망	54.3	53.9	55.1	54.4	55.8	50.6	51.3	51.1	52.2
생사혼합	58.1	54.5	60.4	57.6	64.8	58.1	59.3	58.1	60.1
변액	49.8	54.6	64.1	56.1	55.5	64.4	65.1	57.0	60.5
단체	100.7	100.1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사업비율 ²⁾	15.0	15.5	14.0	14.8	14.1	15.0	14.6	12.7	14.0
해지율 ³⁾	2.5	5.0	7.2	7.2	2.6	4.9	7.0	8.9	8.9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책임준비금전입액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3.8% 감소한 1,559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하였고 투자영업이익 역시 10.4% 증가함.

○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11조 474억 원임.

- 4/4분기 IBNR(미보고 발생손해액: Incurred but Not reported Claim) 추가 적립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적립금이 증가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총수익	보험영업	18,476	18,446	18,694	55,616	19,541	19,932	19,606	20,239	79,319
	투자영업	6,540	5,753	6,180	18,473	6,120	7,059	5,410	7,172	25,761
	영업외	1,011	1,012	1,079	3,102	1,031	1,027	1,159	1,098	4,315
	소계	26,027	25,211	25,953	77,190	26,693	28,018	26,175	28,509	109,395
총비용	보험영업	14,028	13,883	14,893	42,804	15,370	14,870	14,739	15,302	60,281
	투자영업	1,494	728	1,175	3,397	900	1,461	191	1,645	4,197
	영업외	205	190	301	695	204	161	204	269	839
	소계	15,726	14,801	16,369	46,896	16,474	16,493	15,134	17,215	65,317
수지차	보험영업	4,448	4,563	3,801	12,812	4,171	5,062	4,868	4,937	19,038
		(-2.0)	(-46.6)	(-55.4)	(-40.7)	(-57.8)	(13.8)	(6.7)	(29.9)	(-16.2)
	투자영업	5,046	5,024	5,005	15,076	5,220	5,598	5,219	5,527	21,564
		(9.5)	(2.5)	(6.3)	(6.0)	(3.4)	(10.9)	(3.9)	(10.4)	(7.2)
	807	822	778	2,407	828	866	954	829	3,476	
	10,301	10,410	9,584	30,294	10,218	11,526	11,041	11,293	44,079	
책임준비금전입	9,142	9,207	9,112	27,461	9,096	10,194	9,697	11,047	40,034	
법인세	309	296	135	740	182	277	258	90	807	
당기순이익	850	906	337	2,093	941	1,055	1,085	156	3,237	
	(0.7)	(-2.0)	(-52.2)	(-15.4)	(29.7)	(24.1)	(19.8)	(-53.8)	(14.8)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4년 4/4분기 총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17.9%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9.5%, 17.4%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48.7% 증가함.

-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는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에 기인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4/4
책임준비금	금액	403	412	421	431	441	451	462
	증가율	14.3	12.8	11.3	9.3	9.4	9.3	9.6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7	7	7	8	8	9
	증가율	0.4	-15.8	-21.0	-25.6	4.6	6.1	29.5
기타부채	금액	14	13	13	13	13	14	15
	증가율	-0.4	-6.3	-9.6	-11.7	-5.0	5.5	17.4
특별계정부채	금액	96	100	106	107	109	112	117
	증가율	11.7	11.5	12.6	11.0	14.3	11.3	10.3
부채총계	금액	520	533	547	558	571	584	603
	증가율	13.2	11.5	10.3	8.4	9.8	9.5	10.2
자본금	금액	9	10	10	10	10	10	10
	증가율	1.9	3.5	2.8	2.8	3.3	1.3	1.3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9.8	9.2	2.4	1.8	1.4	1.4	2.3
이익잉여금	금액	22	22	23	23	24	25	25
	증가율	13.1	12.2	10.4	8.8	11.9	12.3	1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4	14	13	14	15	17	20
	증가율	5.2	-16.5	-22.5	-28.9	12.1	18.7	48.7
자본총계	금액	49	51	50	51	54	56	59
	증가율	7.7	0.2	-3.1	-6.9	8.8	10.7	17.9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570	584	597	609	625	640	662
	증가율	12.7	10.4	9.1	6.9	9.7	9.6	10.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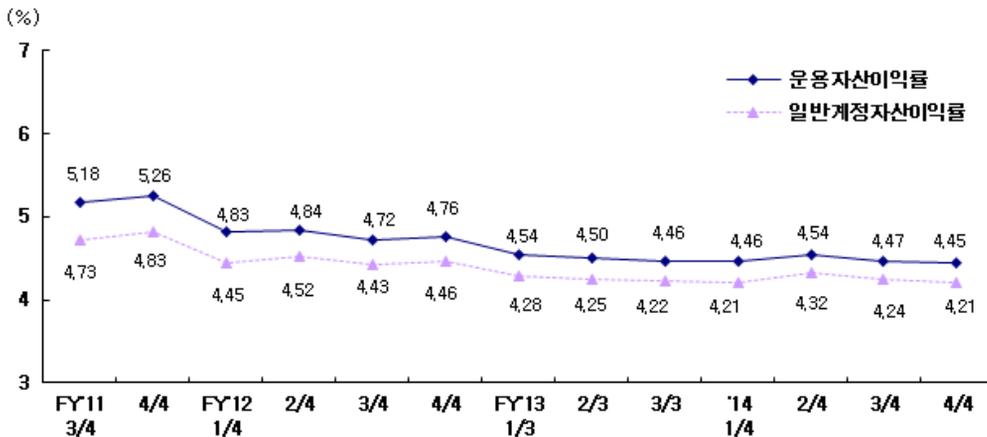
■ 2014년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4.45%로 전년동기대비 0.01%p 하락하였고,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역시 전년동기보다 0.01%p 하락한 4.21%를 나타냄.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익률이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한 4.0%로 나타남.

○ 2014년 12월 말 기준금리는 2.0%로 2013년 12월 말 기준금리 2.50%보다 0.5%p 하락함.

■ 2014년 말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1.7%, 대출채권 17.7%, 부동산 2.7%, 현금과 예금 3.0%임.

○ 2013년 말과 비교해서 유가증권 비중은 1.0%p 상승, 대출채권 비중은 0.2%p 하락, 부동산 비중은 0.3%p 하락, 현금과 예금 비중은 0.3%p 상승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3/3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2	100.0	4.2	100.0	4.3	100.0	4.2	100.0	4.2
운용자산 계	94.3	4.5	94.4	4.5	94.5	4.5	94.8	4.5	95.0	4.5
현금과 예금	2.7	2.8	2.7	3.1	2.9	3.0	2.8	3.3	3.0	3.2
유가증권	70.7	4.1	70.9	4.2	71.0	4.3	71.4	4.2	71.7	4.1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2	2.2	2.6	3.0	2.5	3.5	2.9	3.4	3.1	2.9
- 주식	0.1	0.0	0.1	-0.8	0.1	0.4	0.1	5.8	0.1	-1.1
- 채권 등	0.7	2.9	0.7	4.3	0.7	4.2	0.8	4.6	0.8	4.3
- 수익증권	1.5	2.1	1.8	2.6	1.7	3.3	2.0	2.8	2.2	2.6
○ 매도가능증권	49.7	4.1	48.9	4.3	49.1	4.3	49.3	4.2	52.5	4.0
- 주식	4.4	1.2	4.3	4.4	4.1	6.8	3.8	4.9	3.9	3.4
- 채권 등	42.3	4.4	41.5	4.2	41.8	4.1	42.2	4.1	45.2	4.1
- 수익증권	3.1	3.8	3.2	5.0	3.2	4.9	3.2	4.9	3.4	4.6
○ 만기보유증권	17.2	4.6	17.8	4.4	17.8	4.4	17.6	4.5	14.5	4.8
- 채권 등	17.2	4.6	17.8	4.4	17.8	4.4	17.6	4.5	14.5	4.8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4.1	1.6	2.4	1.6	2.5	1.7	2.4	1.7	2.7
대출채권	17.9	6.4	17.8	5.9	17.8	5.9	17.8	5.9	17.7	5.9
부동산	3.0	3.4	3.0	3.2	2.9	3.4	2.8	3.6	2.7	4.1
비운용자산	5.7	0.3	5.6	-0.1	5.5	0.7	5.2	0.4	5.0	0.0
총자산	100.0	3.9	100.0	3.5	100.0	3.9	100.0	4.0	100.0	3.8
일반계정	82.9	4.2	82.6	4.2	82.7	4.3	82.7	4.2	83.1	4.2
특별계정	17.1	2.1	17.4	0.3	17.3	1.8	17.3	2.9	16.9	1.8
총자산 규모	5,974,801		6,092,048		6,250,250		6,403,859		6,620,752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³⁾〉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 대비 0.39%p 하락한 0.2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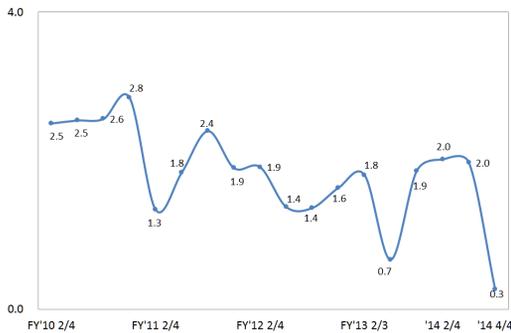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3.8% 감소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3개의 방카사, 2개의 외국사, 4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 2014년 자본이익률은 전년(FY2013 4.00%, CY2013 5.53%)대비 0.39%p 증가한 5.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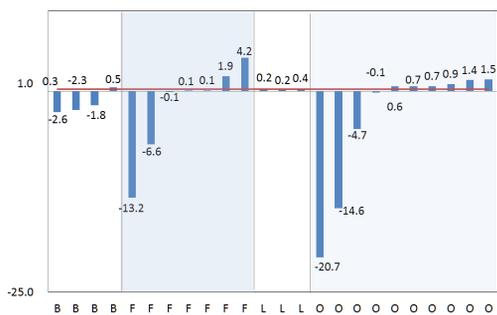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생명보험회사임.

■ 2014년 4/4분기 자본이익률은 중·소형사만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대형사, 외국사 및 방카사⁴⁾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동기에 비하여 0.3%p 하락한 0.3%를 기록함.
- 중·소형사는 4개의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수준인 0.7%를 유지함.
- 외국사의 경우 당기순이익과 총자본도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 감소율이 총자본감소율보다 큰 영향으로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0.3%를 나타냄.
- 방카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하여 -1.1%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1.5	1.8	0.6	3.7	2.1	2.1	1.8	0.3	5.7
중·소형사	1.4	1.0	0.7	3.0	1.7	1.8	2.0	0.7	5.5
외국사	2.4	3.0	1.0	6.6	1.5	2.8	3.3	-0.3	6.9
방카사	0.6	1.5	0.1	2.2	0.3	-1.6	1.0	-1.1	-1.2
전체	1.6	1.8	0.7	4.0	1.9	2.0	2.0	0.3	5.9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는 2013년 4~12월 말, 2014는 2014 1~12월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4년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판매채널이 대폭 상승하고,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이 모두 하락함.

- 2014년 4/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4.0%p 하락한 31.8%로 3분기 연속 감소 추세임.
- 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2%p, 2.7%p 하락한 12.7%와 4.5%를 기록함.
- 임직원 판매비중은 임직원 판매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3.0%p 상승한 50.8%를 나타냄.
- 2014년 연간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은 전년대비 5.8%p 하락한 49.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직원 채널은 10.9%p가 상승하면서 28.2%의 비중을 차지함.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임직원	12.1	9.6	27.8	17.3	15.5	17.0	13.4	50.8	28.2
설계사	20.3	22.2	18.9	20.3	18.0	16.8	20.9	12.7	16.4
대리점	5.7	7.2	7.2	6.7	5.7	6.0	7.4	4.5	5.7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1	0.0	0.0
방카슈랑스	61.7	60.8	45.8	55.4	60.5	60.0	58.0	31.8	49.6
기타	0.2	0.2	0.3	0.3	0.3	0.1	0.2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279	29,262	38,030	100,570	39,751	42,865	35,463	66,558	184,637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임직원을 제외한 조직이 모두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823명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됨.
 - 설계사의 경우 교차설계사와 전속설계사가 모두 감소하여 전체 설계사 수는 2,534명 감소한 13만 366명으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246개 감소한 6,867개임.
 - 2014년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임직원은 2,269명, 설계사는 전속설계사를 중심으로만 2,709명이 감소하였으며, 대리점 수도 개인 대리점을 위주로 168개가 감소함.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4/4
임직원	30,578	30,744	30,380	30,453	28,532	27,288	28,111
설계사	151,805	149,083	143,075	139,161	136,028	132,900	130,366
- 전속	142,391	140,943	135,729	131,899	128,866	125,309	122,965
- 교차	9,414	8,140	7,346	7,262	7,162	7,591	7,401
대리점	7,484	7,335	7,035	7,062	7,187	7,113	6,867
- 개인	4,141	4,023	3,855	3,820	3,876	3,768	3,616
- 법인	3,343	3,312	3,180	3,242	3,311	3,345	3,25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소폭 증가한 데다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늘어난 22조 3,433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보험, 장기 질병보험, 장기 운전자보험 호조세로 5.9% 증가한 11조 2,412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65.7% 증가한 5조 4,703억 원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 등으로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성장 여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고가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대물 및 자차 담보 증가세가 확대되어 6.9% 늘어난 3조 5,183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대부분 종목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1.9% 증가에 그친 2조 1,135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연간으로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8.3% 증가한 76조 5,754억 원을 나타냄.
- 2014년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자산이 증가한 데다 특별계정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분기대비 4.7% 증가한 200조 3,076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대출채권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4.0%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호조세에 힘입어 19.6% 증가함.
 - 2014년 연간으로는 일반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년대비 17.4% 증가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원수보험료	17.1 (2.3)	19.3 (6.8)	53.8 (4.2)	18.3 (8.0)	18.0 (3.8)	17.9 (4.6)	22.3 (15.9)	76.6 (8.3)
장기손보	10.6 (5.4)	10.6 (6.4)	31.5 (5.6)	11.1 (7.5)	11.0 (6.1)	11.1 (4.9)	11.2 (5.9)	44.4 (6.1)
연금부문 ²⁾	1.3 (-10.8)	3.3 (17.2)	6.3 (6.3)	2.0 (29.5)	1.6 (-4.3)	1.4 (9.9)	5.5 (65.7)	10.5 (34.2)
자동차	3.2 (0.1)	3.3 (2.0)	9.7 (0.4)	3.2 (3.2)	3.4 (4.1)	3.4 (6.4)	3.5 (6.9)	13.5 (5.2)
일반손해	2.0 (0.1)	2.1 (1.6)	6.2 (1.5)	2.0 (1.5)	2.1 (-1.2)	1.9 (-3.5)	2.1 (1.9)	8.1 (-0.3)
총자산 ³⁾	165.1 (3.0)	170.6 (3.3)	170.6 (12.4)	176.9 (3.7)	185.1 (4.6)	191.4 (3.4)	200.3 (4.7)	200.3 (17.4)
일반계정	158.9 (3.0)	164.0 (3.2)	164.0 (12.3)	169.3 (3.3)	177.4 (4.8)	183.7 (3.5)	191.1 (4.0)	191.1 (16.6)
특별계정	6.2 (2.0)	6.6 (7.3)	6.6 (14.4)	7.6 (14.7)	7.7 (1.3)	7.7 (0.3)	9.2 (19.6)	9.2 (39.4)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하였으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4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질병보험, 장기 운전자보험이 호조세를 나타내어 전체

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11조 2,412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안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수요 회복세가 소폭에 그치고 있어 5.3% 감소한 2조 7,718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양호한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유지되고 신규수요 증가세도 나타나 각각 12.1%, 17.0% 늘어난 3조 946억 원, 2조 5,062억 원을 시현함.
- 장기 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신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7.6% 증가한 6,787억 원을 나타냄.
- 2014년 전체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6.1% 증가한 44조 4,037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이 호조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3.5% 늘어난 5,713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저금리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7.5% 증가한 3,870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각각 26.1%, 5.6% 증가한 724억 원, 617억 원을 나타냄.
- 2014년 4/4분기 장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 강화 추세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신상품 출시가 계속되어 24.6% 증가한 155억 원을 시현함.
- 2014년 연간으로는 2013년에 비해 8.4% 증가한 2조 5,14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³⁾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6,923	27,604	81,024	28,306	29,114	29,999	30,946	118,365
		증가율	13.1	11.9	13.3	9.8	9.9	11.4	12.1	10.8
	운전자	보험료	6,233	6,305	18,694	6,386	6,438	6,624	6,787	26,235
		증가율	1.7	2.5	1.4	4.2	4.6	6.3	7.6	5.7
	재 물	보험료	9,417	9,330	28,198	9,258	9,344	9,380	9,494	37,476
		증가율	0.3	-1.3	0.1	-0.1	-1.1	-0.4	1.8	0.0
	질 병	보험료	20,482	21,418	61,290	22,382	23,243	24,181	25,062	94,868
		증가율	21.0	21.2	20.1	21.2	19.9	18.1	17.0	18.9
	저축성	보험료	30,682	29,267	89,300	32,267	28,991	28,642	27,718	117,617
		증가율	-4.7	-1.4	-4.3	3.3	-1.2	-6.6	-5.3	-2.4
통합형	보험료	12,265	12,219	36,821	12,216	12,358	12,378	12,370	49,321	
	증가율	1.6	1.4	2.2	0.5	0.2	0.9	1.2	0.7	
자산 연계형	보험료	51	45	151	42	39	37	35	154	
	증가율	-48.5	-53.3	-49.1	-42.5	-30.4	-26.5	-20.8	-31.6	
소 계	보험료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증가율	5.4	6.4	5.6	7.5	6.1	4.9	5.9	6.1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82	574	1,503	600	628	638	724	2,589
		증가율	-16.8	-15.9	-17.6	-34.2	40.6	32.4	26.1	7.3
	운전자	보험료	138	124	378	115	121	188	155	579
		증가율	25.8	19.3	20.1	10.1	4.4	36.0	24.6	19.9
	재 물	보험료	250	232	836	225	256	254	273	1,008
		증가율	-18.2	-18.4	-15.6	-13.0	-27.5	1.4	17.6	-7.9
	질 병	보험료	587	584	1,651	620	523	557	617	2,318
		증가율	55.7	17.3	40.2	-4.6	9.2	-5.1	5.6	0.7
	저축성	보험료	4,034	3,036	10,989	5,946	4,311	4,251	3,870	18,379
		증가율	-56.1	-45.7	-56.2	8.9	10.0	5.4	27.5	11.7
통합형	보험료	75	75	217	86	57	59	74	275	
	증가율	-46.8	-42.0	-48.8	-62.6	-15.1	-22.1	-2.4	-38.5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 계	보험료	5,568	4,626	15,574	7,592	5,895	5,948	5,713	25,148	
	증가율	-48.0	-36.6	-47.8	-0.3	9.6	6.8	23.5	8.4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6,441	27,030	79,521	27,707	28,486	29,360	30,223	115,776
		증가율	13.8	12.6	14.1	11.4	9.3	11.0	11.8	10.9
	운전자	보험료	6,094	6,181	18,315	6,271	6,317	6,436	6,632	25,656
		증가율	1.2	2.2	1.1	4.1	4.6	5.6	7.3	5.4
	재 물	보험료	9,167	9,098	27,362	9,033	9,088	9,126	9,221	36,468
		증가율	0.9	-0.8	0.7	0.3	-0.1	-0.4	1.4	0.3
	질 병	보험료	19,895	20,834	59,639	21,762	22,720	23,624	24,445	92,550
		증가율	20.2	21.4	19.7	22.1	20.1	18.7	17.3	19.5
	저축성	보험료	26,647	26,231	78,311	26,321	24,679	24,391	23,847	99,238
		증가율	15.9	8.9	14.8	2.1	-3.0	-8.5	-9.1	-4.7
통합형	보험료	12,190	12,143	36,604	12,130	12,302	12,319	12,296	49,047	
	증가율	2.2	1.9	2.8	1.8	0.3	1.1	1.3	1.1	
자산 연계형	보험료	51	45	151	42	39	37	35	154	
	증가율	-48.5	-53.3	-49.1	-42.5	-30.4	-26.6	-20.8	-31.6	
소 계	보험료	100,484	101,562	299,904	103,266	103,631	105,293	106,699	418,889	
	증가율	11.8	9.8	11.5	8.1	5.9	4.8	5.1	5.9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모든 종목의 해지율 하락으로 2013년⁵⁾에 비해 1.6%p 낮아진 9.9%를 기록함.

- 장기 상해보험, 장기 질병보험, 장기 운전자보험 해지율은 하락하였는데, 이는 신계약 실적 호조세로 인한 보유계약액 증가 효과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 장기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줄어들어 1.4%p 하락한 9.6%를 기록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2013 ³⁾	1/4	2/4	3/4	4/4
상 해	6.4	9.2	12.1	3.3	6.0	8.5	10.5
운전자	6.2	8.8	10.9	3.2	5.9	8.1	9.6
재 물	8.6	11.6	12.9	4.1	7.4	10.3	12.6
질 병	5.2	7.5	10.7	2.6	4.9	6.9	8.1
저축성	6.1	8.9	11.0	3.0	5.3	7.7	9.6
통합형	4.8	7.0	9.4	2.4	4.5	6.5	8.0
계	6.2	8.9	11.5	3.1	5.7	8.1	9.9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3) 2014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2013년 1~12월까지의 누적 해지율을 계산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4년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65.7% 늘어난 5조 4,703억 원을 나타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3.5% 감소한 1조 29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금저축⁶⁾ 소득공

5) 2013년 1~12월 기간의 누적 해지율과 비교함.

6)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 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의 약화와 수수료 인하⁷⁾로 인한 판매유인 감소 효과 때문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최소화리비용 상향 조정 효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98.5% 증가한 4조 4,408억 원을 나타냄.
 - 2014년 전체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가 마이너스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 전체적으로 34.2% 증가한 10조 4,809억 원을 기록함.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개인 연금	보험료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증가율	2.7	-0.7	3.1	-2.6	-3.5	-3.5	-3.2	-3.2
	구성비	80.7	32.2	50.5	52.9	63.4	70.9	18.8	39.2
퇴직 연금	보험료	2,527	22,374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증가율	-42.4	28.1	9.8	106.1	-5.5	66.0	98.5	78.9
	구성비	19.3	67.8	49.5	47.1	36.6	29.1	81.2	60.8
합계	보험료	13,100	33,014	62,991	19,558	16,153	14,395	54,703	104,809
	증가율	-10.8	17.2	6.3	29.5	-4.3	9.9	65.7	34.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7)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계획 안내」 참조.

3) 자동차보험

- 2014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고가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보다 6.9% 증가한 3조 5,183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 확대⁸⁾와 마일리지 특약 등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1.5% 감소한 7,798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9.3% 늘어난 2조 5,644억 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요율이 인상된 데다 고가자동차 판매 확대 등의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확대 유인도 있었기 때문임.
 - 2014년 연간으로는 4월부터 시작된 요율 인상과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확대 등으로 5.2% 늘어난 13조 5,484억 원을 기록함.

8) 2014년 온라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36.9%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3조 118억 원을 기록함(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5. 3. 24)).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대인 I	7,849 (-1.8)	7,918 (-1.6)	23,759 (-1.6)	7,606 (-2.1)	7,849 (-1.8)	7,896 (0.6)	7,798 (-1.5)	31,149 (-1.2)	
종합 보험	대인 II	3,271 (-0.1)	3,393 (2.5)	9,960 (0.9)	3,270 (2.2)	3,366 (2.1)	3,431 (4.9)	3,614 (6.5)	13,681 (4.0)
	대물	10,956 (6.8)	11,348 (8.6)	33,227 (7.2)	11,011 (6.5)	11,583 (6.0)	11,869 (8.3)	12,414 (9.4)	46,877 (7.6)
	자차	7,168 (-7.5)	7,211 (-5.4)	21,523 (-7.8)	7,505 (2.7)	7,630 (6.8)	7,749 (8.1)	7,973 (10.6)	30,857 (7.0)
	자손	1,191 (4.2)	1,277 (9.2)	3,635 (5.6)	1,220 (8.9)	1,275 (9.3)	1,345 (12.9)	1,407 (10.2)	5,248 (10.3)
	무보험	233 (-6.8)	232 (-7.3)	695 (-7.8)	220 (-3.3)	225 (-2.7)	233 (0.0)	235 (1.3)	912 (-1.2)
	소계	22,820 (0.6)	23,461 (2.9)	69,041 (0.9)	23,225 (4.7)	24,079 (5.8)	24,627 (7.9)	25,644 (9.3)	97,575 (6.9)
외화표시	23 (2.7)	34 (1.1)	91 (5.3)	20 (-17.2)	29 (-14.8)	23 (-0.6)	42 (23.7)	114 (-1.2)	
이륜자동차 ²⁾	212 (0.7)	173 (7.2)	635 (-0.8)	167 (9.8)	257 (3.1)	240 (12.8)	189 (9.2)	853 (8.3)	
기타 ³⁾	1,285 (2.3)	1,321 (7.9)	3,909 (3.8)	1,358 (9.4)	1,452 (11.4)	1,473 (14.7)	1,511 (14.3)	5,794 (12.5)	
합계	32,190 (0.1)	32,907 (2.0)	97,435 (0.4)	32,377 (3.2)	33,665 (4.1)	34,259 (6.4)	35,183 (6.9)	135,484 (5.2)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5.5%로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2014년 2월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⁹⁾의 영향으로 발생손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4%p 하락한 77.3%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유가 하락에 따른 자동차 운행 증가 등으로 11.7%p 상승한 101.5%를 나타냄.

9)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해 항목이 변동함에 따라 대인Ⅱ 손해율은 67.1%p 상승한 146.6%를 기록함.
 -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해당 기간 추석과 연말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자동차 운행량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물담보 손해율은 1.7%p 상승한 97.3%, 자차담보 손해율은 3.5%p 상승한 92.2%를 나타냄.
-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물·자차담보 발생손해액이 늘어나고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와 할인형 상품¹⁰⁾ 판매 증가에 따른 경과보험료 감소 효과도 나타나 2013년에 비해 1.6%p 상승한 88.5%를 기록함.¹¹⁾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대인 I	89.9	91.7	88.5	69.8	65.5	68.6	77.3	70.3	
종합보험	대인Ⅱ	102.3	79.5	91.3	113.6	135.8	137.4	146.6	133.7
	대물	91.4	95.6	92.4	85.2	87.8	92.3	97.3	90.8
	자차	81.3	88.7	82.1	86.5	80.7	89.1	92.2	87.2
	자손	91.4	79.2	82.6	77.5	64.2	69.5	78.7	72.5
	무보험	80.5	54.4	63.3	115.7	91.5	77.8	69.0	88.4
	소계	89.3	89.8	88.1	89.6	91.3	96.4	101.5	94.8
외화표시	69.3	71.5	66.1	77.9	83.3	72.3	70.5	76.0	
이륜자동차 ²⁾	94.3	94.9	93.3	79.4	104.3	107.8	111.1	101.0	
기타 ³⁾	85.0	88.4	81.5	72.8	70.3	80.3	90.6	78.8	
합계	89.3	90.3	87.9	84.0	84.4	89.3	95.5	88.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함.

11) 2014년 전체 손해율은 2014년 1~12월 손해율이며, 2013년 1~12월 손해율과 비교함.

4) 일반손해보험

■ 2014년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대부분 종목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친 2조 1,135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효과 소멸과 공장물건 감소 등으로 1.9% 줄어든 905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3 3/3분기 24.3%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4년 4/4분기 원수보험료는 11.7% 증가한 1,830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¹²⁾ 등의 영향으로 1.8% 증가에 그친 4,048억 원을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증가세 둔화에도 종합보험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2.9% 늘어난 1조 2,793억 원을 시현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 증가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0.0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여행보험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상해보험과 일반상해보험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업성 종합보험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6.2% 늘어남.
- 2014년 전체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0.3% 감소한 8조 1,424억 원을 기록함.

12)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법 보조금 차별과 통신사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보조금 상한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음(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10. 30)).

〈표 20〉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화재	보험료	734	923	2,413	759	739	703	905	3,106
	증가율	-3.1	-2.4	-2.9	-6.1	-2.1	-4.3	-1.9	-3.6
	구성비	3.7	4.5	3.9	3.7	3.5	3.7	4.3	3.8
해상	보험료	2,257	1,638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증가율	1.8	-24.3	-10.7	17.0	-9.2	-18.5	11.7	-2.2
	구성비	11.4	7.9	9.8	8.6	9.2	9.6	8.7	9.0
보증	보험료	3,461	3,976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증가율	-9.1	1.6	-4.8	-4.3	-3.9	4.3	1.8	-0.6
	구성비	17.5	19.2	18.2	18.9	17.5	18.9	19.2	18.6
특종	보험료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증가율	-1.6	3.1	2.4	2.6	0.3	-1.2	2.9	1.2
	구성비	58.9	60.0	60.3	61.9	62.8	60.3	60.5	61.4
해외 원보험	보험료	1,688	1,762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증가율	47.1	34.0	40.0	-3.0	4.7	-14.6	-11.5	-6.8
	구성비	8.5	8.5	7.8	6.8	7.0	7.5	7.4	7.2
합계	보험료	19,813	20,733	61,679	20,289	20,873	19,128	21,135	81,424
	증가율	0.1	1.6	1.5	1.5	-1.2	-3.5	1.9	-0.3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4년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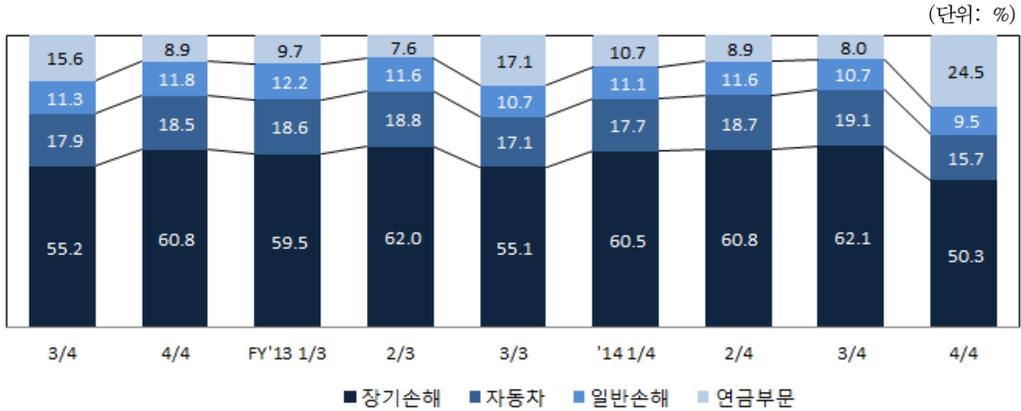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큰 폭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7.4%p 늘어난 24.5%를 차지함.

○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모두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원수보험료 비중은

연금부문 비중 확대에 의한 각각 4.8%p, 1.4%p 축소된 50.3%, 15.7%를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1.2%p 축소된 9.5%를 기록함.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4/4분기 상위 4사¹³⁾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국내 중·소형사, 전업사,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고,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93 감소한 0.1541을 기록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퇴직연금 호조세에 힘입은 일부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비중 확대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1.0%p 확대된 71.2%를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의 경우 일부 회사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0.6%p 축소된 25.2%를 기록함.
- 전업사와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모두 1.8%로 나타났으며,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각각 0.3%p, 0.2%p 감소함.
- 2014년 연간으로는 상위 4사 점유율이 FY2013과 비교하여 0.7%p 축소되었으나 국내 중·

13)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소형사 점유율은 0.8%p 확대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07 감소한 0.1446을 기록함.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⁶⁾
상위 4사 ²⁾	69.9	70.2	70.1	67.4	69.4	69.4	71.2	69.4
국내 중·소형사 ²⁾	25.9	25.8	25.7	28.4	26.4	26.3	25.2	26.5
전업사 ³⁾	2.0	2.1	2.1	2.1	2.0	2.0	1.8	2.0
외국사 ³⁾	2.2	2.0	2.1	2.1	2.2	2.3	1.8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2.1	1.9	2.0	2.1	2.1	2.2	1.8	2.0
허핀달 지수 ⁵⁾	0.1459	0.1448	0.1453	0.1386	0.1424	0.1435	0.1541	0.1446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4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 대비 3.1%p 상승한 85.6%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장기 상해보험, 장기 질병보험, 장기 운전자보험 발생손해액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1%p 상승한 86.1%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 증가와 대물·자차담보 발생손해액 증가 등으로 5.2%p 상승한 95.5%를 기록함.

○ 2014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1.0%p 상승한 83.4%를 기록함.¹⁴⁾

■ 2014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19.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 감소 노력 등으로 3.1%p 하락한 19.4%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신규판매 부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 효과로 3.6%p 개선된 24.2%를 나타냄.

○ 2014년 연간 사업비율은 대부분 종목의 사업비가 하락하여 전년대비 1.1%p 낮아진 19.0%를 시현함.¹⁵⁾

■ 2014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2.1%p 상승한 105.1%를 나타냄.

○ 2014년 연간으로는 손해율 악화와 사업비율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0.2%p 상승한 102.4%를 기록함.¹⁶⁾

14) 2014년 전체는 2014년 1~12월 기준 손해율이며, 2013년 1~12월 기준 손해율과 비교함.

15) 2014년 전체는 2014년 1~12월 기준 사업비율이며, 2013년 1~12월 기준 사업비율과 비교함.

16) 2014년 전체는 2014년 1~12월 기준 합산비율이며, 2013년 1~12월 기준 합산비율과 비교함.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⁴⁾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3.5	84.0	83.8	85.1	84.4	85.2	86.1	85.2
	자동차보험	89.3	90.3	87.9	84.0	84.4	89.3	95.5	88.5
	화재보험	60.9	44.0	33.8	73.2	50.2	53.4	45.4	55.4
	해상보험	58.0	67.5	57.7	89.5	18.5	44.3	85.4	59.8
	보증보험	31.7	45.8	76.5	72.5	7.4	70.8	41.6	47.9
	특종보험	71.1	66.1	65.8	69.2	71.0	67.7	66.5	68.5
	해외원보험	54.1	116.9	79.1	64.6	89.4	98.1	124.7	94.8
	해외수재보험	60.0	52.8	57.6	72.9	45.1	67.1	83.2	66.3
	전체	81.8	82.5	82.3	83.3	80.6	83.9	85.6	83.4
사업비율	19.2	20.4	19.7	19.1	18.7	18.8	19.4	19.0	
합산비율	101.0	103.0	102.0	102.3	99.3	102.7	105.1	102.4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4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한 3,091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 발생손해액 증가로 1조 1,128억 원 적자를 실현하였고,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112억 원 확대됨.
- 투자영업이익은 만기보유증권과 대출채권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56억 원 늘어난 1조 5,274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4년 연간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영업이익이 줄어들었으나 운용자산 증가

로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0.2% 증가한 2조 3,303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단, 보험영업이익에는 2013년 보증보험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총수익	보험영업	16,590	16,698	49,484	16,835	16,921	17,150	17,489	68,397
	투자영업	1,603	1,805	5,276	1,780	1,979	1,523	2,251	7,532
	기타	143	949	1,419	245	361	161	1,247	2,015
	소계	18,336	19,451	56,179	18,860	19,261	18,835	20,988	77,944
총비용	보험영업	16,914	17,398	51,062	17,415	17,060	17,831	18,602	70,908
	투자영업	366	493	1,524	394	634	39	724	1,790
	기타	203	1,024	1,587	286	422	202	1,270	2,180
	소계	17,483	18,915	54,172	18,095	18,117	18,071	20,595	74,878
수지차	보험영업	-324	-701	-1,578	-580	-139	-680	-1,113	-2,512
	투자영업	1,237	1,312	3,752	1,386	1,345	1,484	1,527	5,742
	기타	-61	-75	-167	-40	-61	-40	-22	-164
	소계	852	536	2,007	765	1,145	764	392	3,066
법인세		173	163	515	194	282	176	83	735
당기순이익(A) ²⁾		680	374	1,492	571	863	587	309	2,330
		(-1.0)	(-14.8)	(-23.2)	(31.2)	(96.7)	(-13.6)	(-17.2)	(20.2)
당기순이익(B) ³⁾		426	270	1,212	460	558	439	185	1,661
		(-23.1)	(-13.9)	(-19.8)	(31.5)	(8.1)	(3.2)	(-31.5)	(6.4)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4/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⁷⁾의 당기순이익(B)은 손해를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1.5% 감소한 1,848억 원 흑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 흑자가 이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확대되었으나, 보험영업 적자도 자동차 손해를 악화 등으로 많이 늘어남.
- 2014년 연간으로는 보험영업이익이 손해를 악화로 감소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이 운전자산이 늘어나 확대되어 전년대비 6.4% 증가한 1조 6,614억 원 흑자를 기록함.

〈총부채·총자본〉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의 경우 총부채와 총자본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200조 3,076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7.1% 늘어났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함.

17)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1/4	2/4	3/4	4/4
책임준비금	금액	125.9	130.4	135.8	141.1	145.8	150.2
	증가율	16.5	16.5	17.5	16.7	15.8	15.2
기타부채	금액	10.5	10.4	10.7	11.4	11.9	12.0
	증가율	2.2	-7.4	-3.0	0.1	13.4	15.3
특별계정부채	금액	6.2	7.4	7.6	7.6	7.6	9.3
	증가율	10.9	17.5	21.5	24.6	23.4	25.3
부채총계	금액	142.5	148.2	154.2	160.2	165.3	173.4
	증가율	15.0	14.5	16.0	15.7	16.0	17.1
자본금	금액	2.1	2.3	2.3	2.3	2.3	2.4
	증가율	-5.7	7.4	7.5	12.8	12.6	3.3
자본잉여금	금액	2.1	2.1	2.1	2.3	2.3	2.4
	증가율	16.6	9.7	9.7	10.4	9.3	13.7
이익잉여금	금액	15.3	15.6	15.8	16.7	17.2	17.6
	증가율	12.9	11.1	9.9	13.7	12.7	12.3
자본조정	금액	-0.6	-1.0	-1.0	-0.7	-0.8	-0.9
	증가율	9.2	72.4	72.4	33.1	26.9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7	3.3	3.5	4.4	5.0	5.5
	증가율	-27.2	-31.3	-38.0	21.6	35.2	65.2
자본총계	금액	22.6	22.4	22.8	24.9	26.1	26.9
	증가율	2.2	-0.1	-3.4	14.1	15.7	20.0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65.1	170.6	176.9	185.1	191.4	200.3
	증가율	13.1	12.4	13.1	15.5	15.9	17.4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보다 0.10%p 상승한 4.0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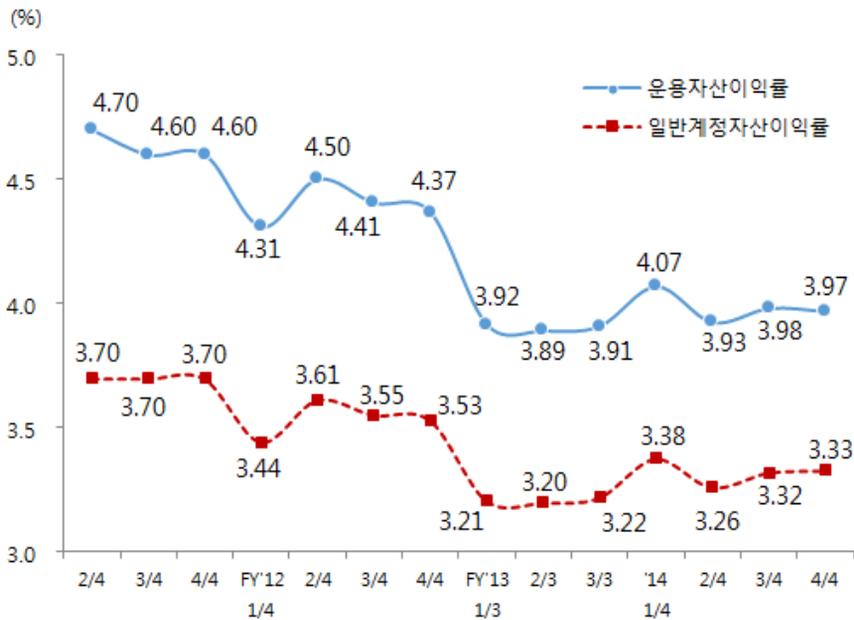
○ 현금과 예금 이익률과 유가증권 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41%p, 0.08%p 상승한 3.05%, 4.00%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0.40%p 하락한 4.61%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0.02%p 상승한 1.09%를 기록함.

■ 2014년 4/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4.8%, 대출채권 21.9%, 현금과 예금 4.7%, 부동산 3.4% 순으로 나타남.¹⁸⁾

○ 현금과 예금과 유가증권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4%p, 0.1%p 증가하였으나 대출채권 비중은 0.4%p 감소하였고 부동산 비중은 동일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3/3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2	100.0	3.4	100.0	3.3	100.0	3.3	100.0	3.3
운용자산 계	82.9	3.9	83.1	4.1	82.9	3.9	83.9	4.0	84.8	4.0
현금과 예금	4.7	1.6	4.3	3.9	4.1	2.0	4.3	2.7	4.7	3.0
유가증권	54.0	3.9	54.3	4.1	54.6	4.0	55.2	4.0	54.8	4.0
○ 당기손익인식증권	3.6	2.2	4.6	2.7	4.2	3.3	4.4	3.6	3.8	3.6
- 주식	0.1	2.4	0.1	9.7	0.1	9.1	0.1	14.9	0.1	4.0
- 채권 등	1.9	1.6	2.3	3.1	2.3	4.1	2.1	4.6	2.1	4.3
- 수익증권	1.7	2.8	2.2	1.5	1.8	1.8	2.2	1.7	1.6	2.2
○ 매도가능증권	42.2	4.2	41.2	4.3	42.0	4.1	42.4	4.1	42.5	4.2
- 주식	3.4	-0.1	3.2	5.0	3.4	2.4	3.2	2.4	3.2	1.6
- 채권 등	34.7	4.7	33.9	4.3	34.3	4.3	34.5	4.3	34.2	4.4
- 수익증권	4.1	3.9	4.1	3.5	4.4	4.0	4.6	4.3	5.1	4.2
○ 만기보유증권	6.8	4.2	6.9	4.0	6.7	3.7	6.7	3.8	6.7	3.9
- 채권 등	6.8	4.2	6.9	4.0	6.7	3.7	6.7	3.8	6.7	3.9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	0.9	1.7	1.6	1.7	1.8	1.7	1.6	1.8	1.1
대출채권	20.2	5.0	20.7	4.6	20.6	4.8	20.9	4.7	21.9	4.6
부동산	3.9	1.1	3.8	1.1	3.6	1.2	3.5	1.2	3.4	1.1
비운용자산	17.1	0.1	16.9	0.0	17.1	0.1	16.1	0.0	15.2	0.0
총자산	100.0	3.1	100.0	3.2	100.0	3.1	104.2	3.2	104.8	3.1
일반계정	96.2	3.2	95.7	3.4	95.9	3.3	96.0	3.3	95.4	3.3
특별계정	3.8	0.0	4.3	0.0	4.1	0.0	4.0	0.0	4.6	0.0
총자산 규모	1,705,563		1,769,154		1,851,278		1,913,805		2,003,076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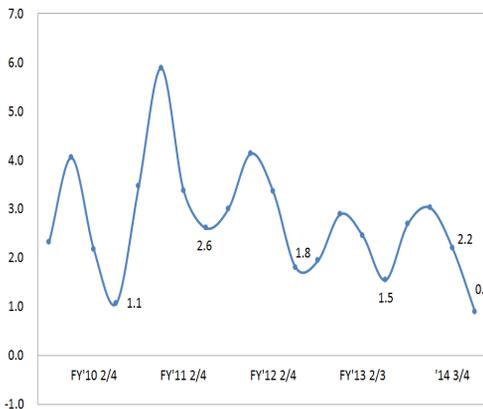
〈자본이익률¹⁹⁾〉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데다 기증자본도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0.9%를 기록함.

○ 대부분 대형사²⁰⁾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체 손해보험 평균(0.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대부분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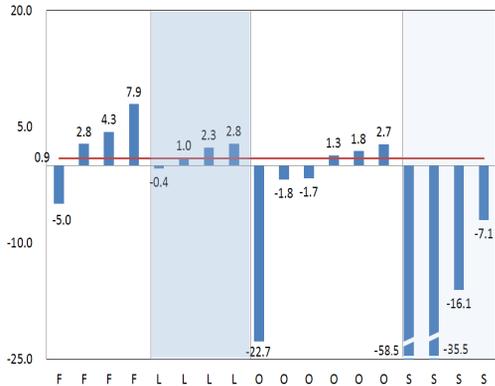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외국사를 제외한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 대비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손해를 악화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로 각각 0.5%p, 1.8%p, 3.8%p 하락한 1.4%, -0.2%, -18.0%를 기록함.

○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가 기증자본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 3.0%p 상승한 3.1%를 나타냄.

19)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증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20)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3.0	1.9	7.7	3.2	3.2	2.5	1.4	10.2
중·소형사	0.5	1.6	4.3	0.6	2.3	1.0	-0.2	3.5
외국사	3.3	0.1	10.1	-0.7	2.1	6.7	3.1	16.4
전업사	-5.3	-14.2	-17.3	-1.2	0.1	-8.2	-18.0	-27.4
전체	2.4	1.5	6.7	2.6	3.0	2.2	0.9	8.7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 연간수치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4년 4/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인 FY2013 3/3분기보다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상품인 퇴직연금 실적 호조세로 전년동기대비 8.1%p 확대된 28.3%를 기록함.
- 설계사 채널, 대리점 채널, 방카슈랑스 채널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원수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채널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모두 전년동기대비 축소됨.
- 2014년 연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실적 증가에 힘입어 임직원 채널 비중이 확대됨.²¹⁾

21) 2014년 전체는 2014년 1~12월 기준이며, 2013년 1~12월 기준과 비교함.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임직원	21,083	39,003	83,888	26,843	24,779	24,529	63,198	139,845
	12.3	20.2	15.6	15.5	13.7	13.7	28.3	18.3
설계사 ²⁾	53,409	53,038	159,889	53,646	57,315	48,191	54,038	213,341
	31.2	27.5	29.7	30.9	31.8	26.9	24.2	27.9
대리점	73,923	78,012	226,884	74,990	74,286	83,329	82,712	315,326
	43.2	40.5	42.2	43.3	41.2	46.5	37.0	41.2
중개사	1,334	1,795	4,377	1,205	1,614	1,590	1,765	6,176
	0.8	0.9	0.8	0.7	0.9	0.9	0.8	0.8
방카슈랑스	21,224	20,710	61,941	16,556	21,967	21,148	21,313	90,030
	12.4	10.7	11.5	9.5	12.2	11.8	9.5	11.8
공동인수	183	284	602	131	256	236	407	1,036
	0.1	0.1	0.1	0.1	0.1	0.1	0.2	0.1
전체	171,156	192,842	537,582	173,369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4년 4/4분기 말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대형사 정규직 직원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분기대비 209명 감소한 3만 3,047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전속설계사 수와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96명 줄어든 15만 6,662명을 기록함.
-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75개 줄어든 3만 2,995개로 조사됨.

- 개인대리점 수는 대리점 대형화 추세로 292개 줄어든 2만 2,057개를 기록하였으나
 법인대리점 수는 117개 늘어난 1만 938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4/4
임직원	32,944	33,570	33,479	33,320	33,286	33,256	33,047
설계사	168,968	166,915	164,253	161,131	157,335	156,958	156,662
- 전속	93,712	92,952	90,167	86,988	83,630	82,504	82,299
- 교차	75,256	73,963	74,086	74,143	73,705	74,454	74,363
대리점	37,500	37,268	36,952	36,559	33,586	33,170	32,995
- 개인	24,063	23,666	23,244	22,702	22,632	22,349	22,057
- 법인	13,437	13,602	13,708	13,857	10,954	10,821	10,93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중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영국은 2014년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음. 일본의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신규보험료의 감소로 1.5% 감소하였으며,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함. 글로벌 손해보험시장은 전년동기대비 미국은 36.2% 감소하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2.8%, 17.0% 증가함. 미국 손해보험은 총보험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 일본은 운송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고, 중국은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이 성장함.¹⁾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4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³⁾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하였음.

- 3/4분기 생명보험시장 성장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보험 성장의 영향을 받음.
-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가 5분기 연속 감소추세이지만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함.

1) 미국은 2014년 3/4분기, 영국은 2014년 연간, 중국은 2014년 4/4분기, 일본은 FY2014 3/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와 높은 보험가격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3/4분기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신규보험료는 경제 지표 상승 및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높아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보임.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음.
-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성장이 미미했으며,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은 소폭 상승하고, 종신보험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3/4분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37%로 전분기대비 1%p 상승하였으며,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신규보험료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33%와 23%였음.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	-8	-23	-7	40	-15	-8	2	37		
기타변액	0	0	0	0	0	11	0	0	0		
변액유니버설	9	33	36	24	6	20	42	22	7		
정기	6	5	-1	3	22	-4	-2	0	23		
종신	5	2	3	4	32	-3	5	6	33		
계	4	0	-8	0	100	-7	1	4	100		
연납화 보험료	2,532	2,332	2,667	9,994		2,260	2,243	2,427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4, 11),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4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의 신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였음.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355억 달러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하여 227억 달러를 나타냄.
-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거치식 연금과 인덱스형 연금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8.0	35.7	36.4	145.4	34.2	36.2	35.5
	증가율	-1.3	-3.0	4.0	-1.4	-3.1	-4.7	-0.6
	비중	67.6	59.9	59.2	63.3	58.8	59.0	61.0
정액연금	보험료	18.8	23.9	25.1	84.4	24.0	25.2	22.7
	증가율	-0.9	33.5	41.8	16.7	4.5	34.0	-5.0
	비중	32.4	40.1	40.8	36.7	41.2	41.0	39.0
합계	보험료	56.8	59.6	61.5	229.7	58.2	61.4	58.2
	증가율	-1.2	9.0	16.7	4.6	12.4	8.1	-2.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12), U.S. Individual Annuities.

■ 2014년 3/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19.8%, 은행 16.0%,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5.6%, 13.1%, 7.0%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1/4	2/4	3/4
은행	14.8	17.3	16.0	16.3	16.6	16.0
전속설계사	21.0	20.7	20.5	20.5	19.9	19.8
직접판매	8.3	7.4	8.5	7.3	7.0	7.0
독립중개인	24.9	23.2	22.6	23.9	25.7	26.1
독립설계사	15.3	15.5	17.6	16.6	16.3	15.6
증권중개인	13.2	13.6	12.5	13.5	12.1	13.1
기타	2.5	2.4	2.3	1.9	2.4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4, 12),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4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성장률은 Non-cancellable⁴⁾ 신규보험료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Guaranteed Renewable⁵⁾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 증가율은 -8.6%로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 신규보험료는 상위 5개 보험사와 1개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의 판매실적이 감소하였음.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Multilife⁶⁾ 보험 판매가 다시 성장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65.3	75.3	73.6	310.6	101.8	62.8	67.4
		증가율	-3.3	0.4	-5.5	-5.3	5.7	-3.8	-10.5
		구성비	64.4	65.0	63.1	66.8	75.8	64.0	60.8
	Non-cancellable	건수	36.3	40.3	43.0	154.3	32.5	35.3	43.5
		증가율	3.8	0.8	0.5	1.0	-6.4	-2.6	7.8
		구성비	35.8	34.8	36.9	33.2	24.2	36.0	39.2
	전체	건수	101.4	115.8	116.7	464.9	134.3	98.1	110.9
		증가율	-1.0	0.7	-3.3	-3.3	2.5	-3.2	-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5.0	48.7	49.8	201.3	60.3	41.3	44.5
		증가율	-3.6	-1.7	-2.9	-5.0	4.1	-8.1	-8.6
		구성비	36.5	36.5	36.6	38.8	47.7	35.8	34.1
	Non-cancellable	보험료	78.2	84.6	86.1	318.1	66.1	74.3	86.1
		증가율	1.1	0.9	4.2	1.0	-4.5	-5.0	1.7
		구성비	63.5	63.5	63.4	61.2	52.3	64.2	65.9
	전체	보험료	123.2	133.2	135.9	519.4	126.4	115.6	130.6
		증가율	-0.7	0.0	1.5	-1.4	-0.5	-6.1	-2.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11),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라. 손해보험

- 2014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51.1% 감소한 약 40억 달러를 시현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30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850억 달러임.
 - 2014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1.8%에서 약 3.7%p 상승한 95.5%를 나타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M&FG: Mortgage and Financial Guaranty Insurers)를 제외한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1,2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지급보험료 증가로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4.9%에서 95.7%로 악화되었음.

- 2014년 3/4분기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실현자본이익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129억 달러를 기록함.
 - 3/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약 1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하였으며, 실현자본이익은 1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4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총보험영업이익의 급격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6.2% 감소한 11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11.8%에서 4.9%p 하락한 6.9%였음.
 - M&FG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3/4분기 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2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17.5%로 전년동기 110.4%에 비하여 대폭 하락함.
 - M&FG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10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33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6.7%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자본이익률 9.5%에 비해 2.8%p 하락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19,888	126,018	114,241	477,348	121,421	124,983	130,567
	증가율	4.9	3.6	5.8	4.6	3.6	4.2	3.6
지급보험금	금액	83,596	77,601	79,471	315,044	80,789	87,605	84,982
	증가율	-1.4	-6.1	-12.0	-5.5	8.6	4.8	9.5
보험영업이익	금액	-1,848	8,388	6,285	17,901	2,908	-1,801	4,232
	증가율	-69.4	1419.6	-176.7	-234.6	-42.7	-2.5	-49.5
계약자 배당금	금액	450	261	1,263	2,529	673	270	261
	증가율	56.8	-17.4	26.2	19.1	21.3	-40.0	0.0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2,298	8,127	5,022	15,372	2,235	-2,071	3,971
	증가율	-63.7	3343.6	-154.6	-199.7	-50.6	-9.9	-51.1
투자영업이익	금액	11,827	11,002	13,014	47,256	11,180	11,793	11,331
	증가율	-2.6	-4.1	2.8	-1.4	-2.0	-0.3	3.0
실현자본이익	금액	2,488	2,139	5,394	11,408	2,933	4,234	1,593
	증가율	142.7	73.1	66.9	84.5	111.5	70.2	-25.5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4,315	13,141	18,408	58,664	14,113	16,027	12,923
	증가율	8.7	3.4	15.9	8.4	10.3	12.0	-1.7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0,011	19,692	18,607	64,104	13,654	10,133	12,714
	증가율	38.9	61.8	412.2	83.8	-13.5	1.2	-35.4
당기순이익	금액	10,141	18,295	20,755	63,518	13,754	12,124	11,672
	증가율	44.9	72.4	186.2	81.1	-4.0	19.6	-36.2
자기자본(Surplus)	금액	613,515	623,884	653,348	653,348	662,013	671,575	673,929
	증가율	7.4	6.8	11.3	11.3	8.6	9.5	8.0
지급준비금	금액	577,088	573,230	573,727	573,727	574,648	578,342	579,056
	증가율	0.6	-0.4	-0.5	-0.5	-0.3%	0.2	1.0
자기자본이익률		6.6	11.8	13.0	10.3	8.4	7.3	6.9
합산비율		100.9	91.8	97.1	96.1	97.3	100.6	95.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5. 1), ISO Release: P/C Insurers' Net Income and Overall Profitability Both Declined In Nine-Months 2014.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2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4%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생명보험 전체〉

- 2014년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보험료⁸⁾ 기준으로 전년보다 3.0% 증가(20억 4,320만 파운드)한 696억 5,431만 파운드였음.
 - 전체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대비 33.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소폭 증가함.

- 2014년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68억 5,243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3.2% 감소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0.6%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s) 보험료가 16.9% 감소하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4년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628억 188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3.8% 증가함.
 - 일시납 보험료 비중이 두 번째로 큰 퇴직연금계좌 보험료가 8.6% 감소하였으나 일시납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 보험료가 33.3% 증가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203.9	8,563.9	1,960.5	1,941.9	2,287.4	2,125.5	8,315.2
	증가율	-35.6	-33.3	-13.8	-3.0	9.9	-3.6	-2.9
	구성비	15.6	14.1	12.2	12.2	17.9	11.8	13.2
역외영업	금액	1,033.5	4,137.0	880.5	868.1	1,116.5	833.2	3,698.2
	증가율	-20.5	-12.5	-13.5	-16.9	7.4	-19.4	-10.6
변액연동채권	금액	608.7	2,463.3	549.4	506.9	506.4	512.7	2,075.3
	증가율	n.a.	n.a.	-25.8	-8.0	-10.2	-15.8	-15.8
유배당채권	금액	551.4	1,924.0	524.1	556.5	655.1	768.7	2,504.5
	증가율	n.a.	n.a.	3.5	40.2	39.6	39.4	30.2
퇴직연금계좌	금액	3,227.8	14,277.3	3,323.0	3,428.3	2,927.7	3,373.6	13,052.6
	증가율	-15.1	-12.7	-14.5	-12.9	-9.2	4.5	-8.6
	구성비	22.8	23.6	20.7	21.6	22.9	18.7	20.8
Individual Pension	금액	1,710.1	6,808.3	1,919.7	1,982.1	1,954.6	2,016.3	7,892.7
	증가율	-11.9	-32.9	9.2	9.7	27.4	17.9	15.6
Personal Pension	금액	1,011.8	4,334.1	1,098.3	1,146.5	1,113.7	1,241.3	4,599.9
	증가율	n.a.	n.a.	2.0	-5.6	8.0	22.7	6.1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63.1	366.0	105.2	113.7	77.7	79.9	376.5
	증가율	n.a.	n.a.	-21.6	3.1	32.9	26.7	2.9
SIPP	금액	619.2	2,030.7	696.1	708.1	750.3	683.1	2,837.6
	증가율	n.a.	n.a.	34.6	52.1	75.1	10.3	39.7
Work-based Pensions	금액	1,517.7	7,469.0	1,403.2	1,446.3	973.1	1,357.3	5,179.6
	증가율	-18.5	20.2	-34.1	-32.2	-42.4	-10.6	-30.6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456.6	7,034.2	1,312.4	1,361.9	921.0	1,306.0	4,901.3
	증가율	n.a.	n.a.	-30.5	-33.8	-43.6	-10.3	-30.3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61.1	305.2	90.8	84.4	52.2	51.3	278.7
	증가율	n.a.	n.a.	-18.6	14.6	-11.5	-16.0	-8.7
퇴직연금	금액	5,525.2	23,822.0	7,790.4	8,028.0	5,288.5	10,658.8	31,756.7
	증가율	-2.3	37.3	37.7	99.2	-38.6	92.9	33.3
	구성비	39.0	39.4	48.5	50.5	41.4	59.0	50.6
Bulk Buyouts	금액	1,912.3	9,428.8	4,315.9	2,882.2	1,732.4	4,740.3	13,902.3
	증가율	n.a.	n.a.	327.4	151.9	-67.7	147.9	47.4
보장성보험	금액	49.8	197.5	43.3	29.6	36.6	40.1	149.5
	증가율	-0.1	-3.2	-11.5	-32.9	-33.1	-19.6	-24.3
	구성비	0.4	0.3	0.3	0.2	0.3	0.2	0.2
퇴직소득보험	금액	3,159.0	13,669.2	2,962.1	2,459.7	2,232.9	1,864.1	9,518.8
	증가율	-23.6	-10.3	-17.9	-30.2	-33.9	-41.0	-30.4
	구성비	22.3	22.6	18.4	15.5	17.5	10.3	15.2
소계(B)	금액	14,165.7	60,530.0	16,079.2	15,887.5	12,773.1	18,062.1	62,801.9
	증가율	-17.0	-2.3	3.9	17.4	-26.4	27.5	3.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총계(A+B)	금액	15,865.0	67,611.1	17,750.9	17,686.6	14,444.8	19,772.0	69,654.3
	증가율	-15.0	0.1	3.1	12.9	-23.4	24.6	3.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 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전년대비 3.0% 감소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은 일시납 역외영업 신규보험료가 10.6% 감소하고 일시납 변액 연동채권 보험료도 15.8% 감소하면서 전체 신규 보험료가 2.9% 줄어들.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전년대비 17.9% 감소한 3,315만 파운드에 그쳤으며, 이는 5분기 연속 줄어든 것임.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4년 퇴직연금계좌⁹⁾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0.6%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8.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4% 줄어들.
- 2014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6% 소폭 증가에 그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판매가 전년대비 8.3% 감소하고 Personal Pension도 2.4%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7.9% 축소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s) 보험료는 비중이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1.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2% 늘어남.
- 2014년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한 130억 5,259만 파운드로 집계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전년대비 6.1% 늘어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됨.

39.7%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5.6% 확대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대비 30.6% 확대되었으며, 이는 규모가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30.3%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보험료도 8.7% 늘어났기 때문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4년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330억 71만 파운드로 집계됨.
- 2014년 정기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대비 16.9% 감소한 12억 3,500만 파운드로 감소세가 지속됨.
 - 이는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대비 29.2% 감소한데 기인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모든 종목의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3.3% 확대된 317억 5,671만 파운드로 집계됨.
 - DC형 퇴직연금, TIPs와 Bulk Buyouts¹¹⁾ 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22.1%, 22.4%, 47.4%의 증가율을 시현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3.6% 감소한 11억 8,485만 파운드임.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¹²⁾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0억 3,531만 파운드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함.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 기타 정기보험이 7.8% 감소하였으나 모기지관련 정기보험이 9.9% 증가하면서 전체 개인 보장성보험은 2.0% 늘어나고 단체 보장성 신규보험료가 3.6%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대비 24.3% 감소한 1억 4,954만 파운드였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감.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30.4% 감소한 95억 1,880만 파운드임.

- 소득인출 보험료가 전년대비 45.2% 증가하였으나, 가장 규모가 큰 종신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대비 41.6%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4년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컸음.

- 전체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보다 3.8%p 증가한 75.3%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85.5%로 가장 컸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대비 3.0%p 감소한 14.7%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 중 無자문 채널 비중이 45.6%로 가장 컸음.
- 제한적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보다 0.8%p 감소한 9.9%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 중 비중이 19.2%로 가장 컸음.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2014년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제한적 자문 비중이 증가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4.1%p 줄어든 63.4%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87.2%, 퇴직연금계좌 84.5%로 그 비중이 크고, 퇴직소득 보험의 비중이 45.0%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6.1%로 전년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 중 비중이 45.6%, 퇴직연금 중 동 비중이 33.5%를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10.4%로 가장 작으나 전년대보다는 5.0%p 증가했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동 채널의 비중은 23.9%로 비교적 크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5.1%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4년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투자 및 저축보험	71.5	0.5	75.3	73.3	10.7	6.9	21.0	23.9	17.7	92.6	3.7	2.8
퇴직연금계좌	83.3	85.5	83.9	84.5	8.5	8.7	5.0	5.1	8.1	5.8	11.1	10.4
퇴직연금	38.0	44.3	52.8	55.7	11.5	6.8	1.8	10.9	50.5	48.8	45.4	33.5
보장성보험	69.5	69.0	85.9	87.2	19.1	19.2	13.6	12.4	11.4	11.8	0.5	0.5
퇴직소득보험	-	-	n.a.	45.0	-	-	n.a.	9.4	-	-	n.a.	45.6
전체 ³⁾	71.5	75.3	67.5	63.4	10.7	9.9	5.4	10.4	17.7	14.7	27.2	26.1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4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정기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대비 31.2% 감소한 12억 2,167만 파운드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대비 28.5% 축소된 1억 2,339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25.5% 감소하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36.1% 줄어든데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대비 31.6% 감소한 10억 9,828만 파운드였으며,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의 경우 28.1% 감소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감소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3	2014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0.6 (n.a)	0.3 (217.6)	0.0 (6.1)	0.0 (-109.1)	0.1 (-11.4)	0.6 (-7.3)	661.7 (n.a)	115.1 (-60.6)	109.4 (-5.4)	126.4 (0.9)	124.7 (-2.8)	475.6 (-28.1)
퇴직연금계좌	51.3 (n.a)	11.9 (23.6)	7.9 (-28.2)	6.2 (-70.4)	6.8 (-31.1)	32.8 (-36.1)	135.2 (n.a)	28.2 (-34.5)	32.2 (2.0)	18.4 (-35.9)	17.1 (-46.2)	95.9 (-29.1)
퇴직연금	0.0 (n.a)	0.0 (n.a)	0.0 (n.a)	0.0 (0.0)	0.0 (0.0)	0.0 (116.7)	200.8 (n.a)	54.9 (-3.9)	40.5 (4.3)	5.5 (-89.6)	3.7 (92.9)	104.5 (-48.0)
역외영업	0.2 (n.a)	0.0 (15.4)	0.0 (1.8)	0.1 (28.9)	0.0 (15.2)	0.2 (14.5)	383.3 (n.a)	94.3 (9.3)	76.6 (-15.3)	70.5 (-17.5)	72.1 (-40.4)	313.6 (-18.2)
보장성보험	116.2 (n.a)	26.9 (-20.4)	23.7 (-20.4)	22.3 (-19.1)	17.0 (-38.2)	89.8 (-25.5)	12.4 (n.a)	4.4 (10.7)	5.9 (35.8)	4.0 (-32.7)	3.5 (-42.0)	17.8 (-17.5)
퇴직소득보험 ¹⁾	-	-	-	-	-	-	202.8 (n.a)	32.2 (-49.9)	20.7 (-53.5)	22.2 (-55.2)	15.7 (-64.5)	90.9 (-55.2)
전체	170.7 (n.a)	38.4 (-8.8)	31.8 (-22.9)	28.5 (-41.5)	23.9 (-36.2)	123.4 (-28.5)	1,605.6 (n.a)	329.1 (-39.7)	285.2 (-12.3)	247.1 (-28.9)	237.0 (-38.3)	1,098.3 (-31.6)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부터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⁴⁾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4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 신규계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신규계약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5% 줄어든 20조 4,377억 엔이었음.

○ 3/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은 증가하였지만, 생사혼합보험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2%, 7.1%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함.

- 반면,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6.2%, 50.5% 감소함.

○ 3/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고 있지만 전분기대비 증가 폭은 줄어들음.

- 3/4분기 정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고, 변액연금보험 계약은 약 2배 정도 늘어남.

○ 한편, 3/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⁵⁾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54.7% 감소한 4,529억 엔을 기록함.

- 3/4분기 단체정기보험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4.8%, 54.6% 감소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3/4	4/4	연간	1/4	2/4	3/4
개 인	금액	178,390	166,772	677,145	165,379	173,735	177,931
	증가율	-2.3	-18.1	-7.5	4.8	-0.2	-0.3
	구성비	85.9	78.0	84.5	83.9	86.5	87.1
사 망	금액	145,083	141,933	561,456	139,541	147,363	152,700
	증가율	-5.5	-17.9	-8.5	7.1	2.2	5.3
	구성비	69.9	66.4	70.0	70.8	73.4	74.7
정기보험	금액	76,150	74,110	290,916	71,808	78,434	80,119
	증가율	-4.7	-15.7	-7.4	8.0	5.8	5.2
중신보험	금액	36,450	36,616	145,252	33,940	36,711	39,048
	증가율	-13.7	-29.4	-17.0	5.2	-8.1	7.1
생사 혼합	금액	31,678	22,835	109,217	20,790	21,617	21,006
	증가율	13.8	-21.2	-3.4	-20.6	-24.2	-33.7
	구성비	15.3	10.7	13.6	10.5	10.8	10.3
양로보험 ²⁾	금액	13,287	12,724	54,467	11,691	12,518	11,138
	증가율	-3.6	-11.2	-5.0	-14.6	-15.2	-16.2
기 타	금 액	17,429	9,137	51,114	8,063	8,041	8,625
	증가율	31.0	-33.8	-3.4	-31.0	-37.5	-50.5
생 존	금액	1,629	2,004	6,473	5,048	4,755	4,225
	증가율	40.6	18.4	29.1	260.6	230.2	159.4
	구성비	0.8	0.9	0.8	2.6	2.4	2.1
개인연금	금액	19,185	26,744	79,734	21,340	21,640	21,917
	증가율	-4.7	-8.1	-6.8	34.0	21.1	14.2
	구성비	9.2	12.5	9.9	10.8	10.8	10.7
정액연금	금액	17,038	24,222	70,542	18,011	17,075	17,782
	증가율	-10.6	-11.0	-12.1	35.3	6.9	4.4
변액연금	금액	2,147	2,522	9,192	3,329	4,565	4,134
	증가율	100.7	32.9	74.5	27.2	139.6	92.5
단체보험	금액	10,007	20,306	44,794	10,376	5,380	4,529
	증가율	148.4	76.8	47.3	-0.5	32.6	-54.7
	구성비	4.8	9.5	5.6	5.3	2.7	2.2
단체정기 ³⁾	금액	7,356	14,348	35,141	4,358	4,360	3,326
	증가율	89.3	27.9	50.6	-56.4	26.8	-54.8
단체신용생명	금액	2,651	5,958	9,653	6,018	1,020	1,203
	증가율	1,766.9	2,139.8	36.3	1,312.7	65.0	-54.6
합 계	금액	207,582	213,822	801,673	197,095	200,755	204,377
	증가율	0.4	-12.4	-5.5	7.0	2.4	-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 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3/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부동산을 제외한 단기자금,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 주요 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366조 702억 엔을 기록함.

○ 3/4분기 국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2.1% 증가하며 299조 51억 엔을 나타냄.

- 3/4분기 주식 규모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 호조 및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8.3% 증가하였고, 외화증권의 규모도 전분기대비 7.1% 늘어남.

- 지방채와 회사채의 규모도 전분기대비 각각 0.3%, 0.7% 증가한 반면, 국채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6,270	-10.2	44,168	21.8	41,816	-5.3	47,833	14.4	47,921	0.2
단기자금	18,650	-13.9	26,697	43.1	26,923	0.8	26,645	-1.0	31,163	17.0
매입금전채권	26,523	-2.6	25,859	-2.5	26,559	2.7	26,923	1.4	27,738	3.0
금전신탁	23,136	6.6	24,592	6.3	28,909	17.6	29,906	3.4	33,016	10.4
유가증권	2,875,769	2.0	2,850,318	-0.9	2,864,775	0.5	2,928,616	2.2	2,990,051	2.1
- 국채	1,499,348	0.3	1,498,157	-0.1	1,489,079	-0.6	1,495,263	0.4	1,490,328	-0.3
- 지방채	143,220	1.4	140,089	-2.2	140,116	0.0	139,861	-0.2	140,332	0.3
- 회사채	252,754	-0.3	248,959	-1.5	246,686	-0.9	247,828	0.5	249,524	0.7
- 주식	190,312	4.1	180,299	-5.3	182,800	1.4	192,412	5.3	208,477	8.3
- 외화증권	613,478	7.3	614,509	0.2	638,222	3.9	688,462	7.9	737,440	7.1
대출금	386,344	-0.5	380,992	-1.4	378,104	-0.8	373,651	-1.2	374,598	0.3
부동산	63,041	0.7	62,372	-1.1	62,560	0.3	63,141	0.9	62,777	-0.6
운용자산 ³⁾	3,456,510	1.4	3,448,009	-0.2	3,457,515	0.3	3,525,635	2.0	3,597,370	2.0
비운용자산	59,802	-1.6	57,817	-3.3	62,650	8.4	60,185	-3.9	63,332	5.2
총자산 ⁴⁾	3,516,312	1.3	3,505,826	-0.3	3,520,165	0.4	3,585,820	1.9	3,660,702	2.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0.2%, 17.0%, 3.0% 증가함.
- 또한, 3/4분기 금전신탁은 전분기대비 10.4% 성장하였으며, 대출금도 전분기대비 1.5%p 상승한 0.3% 증가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4 3/4분기 손해보험의 경우 운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한 2조 2,279억 엔으로 집계됨.
 - 3/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고,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6% 성장하며 증가세를 이어감.
 - 동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714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 성장한 2,549억 엔으로 집계됨.
 - 3/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하며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2,639억 엔이었음.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2,535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47.7%)의 원수보험료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6)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²⁾	3,854	3,740	14,523	3,624	3,482	4,140
	증가율 ³⁾	1.6	5.0	2.8	5.6	-0.4	7.4
	구성비	17.8	17.5	16.9	16.1	16.2	18.6
해상	보험료	531	545	2,167	569	539	545
	증가율	11.8	4.8	9.5	1.2	2.1	2.6
	구성비	2.5	2.6	2.5	2.5	2.5	2.4
운송	보험료	157	163	644	172	152	157
	증가율	1.3	4.5	1.9	0.0	0.0	0.0
	구성비	0.7	0.8	0.8	0.8	0.7	0.7
자동차	보험료	9,652	9,409	37,505	9,740	9,417	9,714
	증가율	6.8	4.7	4.4	3.5	4.2	0.6
	구성비	44.6	44.0	43.8	43.3	43.9	43.6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20	2,583	10,229	2,582	2,487	2,549
	증가율	13.8	5.3	9.9	1.7	-3.8	1.2
	구성비	11.6	12.1	11.9	11.5	11.6	11.4
상해	보험료	2,437	2,324	10,134	2,824	2,643	2,639
	증가율	-2.4	1.6	-1.6	1.9	1.7	8.3
	구성비	11.2	10.9	11.8	12.5	12.3	11.8
특종	보험료	2,512	2,597	10,486	3,004	2,737	2,535
	증가율	10.7	9.8	8.7	6.2	7.4	0.9
	구성비	11.6	12.2	12.2	13.3	12.8	11.4
합계	보험료	21,664	21,362	85,688	22,517	21,458	22,279
	증가율	6.0	5.1	4.6	3.7	2.4	2.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3/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단기자금, 부동산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의 자산 규모 증가로 전분기대비 2.6% 성장한 30조 3,039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272	-13.9	8,612	18.4	6,734	-21.8	9,175	36.2	9,507	3.6	
단기자금	4,012	2.5	4,044	0.8	5,135	27.0	4,822	-6.1	3,363	-30.3	
환매조건부채권	3,703	14.7	2,710	-26.8	3,294	21.6	5,059	53.6	6,674	31.9	
매입금전채권	2,443	-4.1	1,383	-43.4	1,617	16.9	1,800	11.3	2,137	18.7	
금전신탁	1,192	5.4	1,193	0.1	985	-17.5	1,145	16.2	1,291	12.7	
유가증권	국채	64,563	0.1	66,010	2.2	67,608	2.4	66,050	-2.3	65,576	-0.7
	지방채	3,575	0.6	3,461	-3.2	3,368	-2.7	3,270	-2.9	3,213	-1.7
	회사채	26,048	-2.0	26,193	0.6	24,688	-5.7	24,079	-2.5	24,287	0.9
	주식	73,634	4.9	67,307	-8.6	68,727	2.1	72,069	4.9	75,959	5.4
	외화증권	53,167	5.6	52,922	-0.5	53,696	1.5	55,551	3.5	57,514	3.5
	기타증권	2,394	-2.7	2,470	3.2	2,329	-5.7	2,334	0.2	2,339	0.2
	소계	223,381	2.7	218,363	-2.2	220,416	0.9	223,353	1.3	228,889	2.5
대출금	16,680	-1.6	16,252	-2.6	16,121	-0.8	15,743	-2.3	15,822	0.5	
부동산	10,321	-1.0	10,225	-0.9	10,150	-0.7	9,975	-1.7	9,895	-0.8	
운용자산	269,005	1.8	262,784	-2.3	264,453	0.6	271,072	2.5	277,578	2.4	
비운용자산 ²⁾	26,076	-0.8	26,514	1.7	25,736	-2.9	24,271	-5.7	25,461	4.9	
총자산	295,082	1.6	289,298	-2.0	290,190	0.3	295,344	1.8	303,039	2.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3/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9,507억 엔이었으며, 환매조건부채권도 전분기대비 31.9% 증가한 6,674억 엔으로 집계됨.
-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30.3% 감소한 반면,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8.7%, 12.7%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3/4분기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2.5% 늘어남.
 - 3/4분기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0.7%, 1.7% 줄어들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회사채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주식의 경우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주력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5.4% 성장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3.5% 증가함.
- 3/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5% 증가한 반면, 부동산은 전분기대비 0.8%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 (<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團體保險), 단체연금보험(團體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醫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⁷⁾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4년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4,30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지속함.
 - 한편, 2014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17.5% 증가한 2조 235억 위안으로 나타남.

- 2014년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1,97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축소되었으나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상승함.
 - 한편, 2014년 전체 지급보험금은 7,21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함.

- 2014년 4/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857억 위안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 연간 사업비는 11.9% 증가한 2,796억 위안으로 나타남.

17)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3,790	17,222	7,000	4,489	4,445	4,301	20,235
	증가율 ³⁾	11.1	11.2	35.9	2.9	13.4	13.5	17.5
인보험	금액	2,199	11,010	5,243	2,623	2,726	2,439	13,031
	증가율 ³⁾	6.1	8.4	44.1	-4.5	12.4	10.9	18.4
손해보험	금액	1,591	6,212	1,757	1,866	1,719	1,862	7,203
	증가율 ³⁾	18.8	16.5	16.1	15.6	15.0	17.0	16.0
지급보험금	금액	1,704	6,213	1,859	1,672	1,706	1,978	7,216
	증가율 ³⁾	28.7	31.7	24.9	13.4	10.3	16.1	16.1
인보험	금액	617	2,774	1,025	793	778	832	3,428
	증가율 ³⁾	35.0	46.0	35.2	11.7	13.0	34.8	23.6
손해보험	금액	1,087	3,439	834	879	928	1,147	3,788
	증가율 ³⁾	25.5	22.1	14.2	14.9	8.2	5.5	10.2
사업비	금액	772	2,500	613	656	671	857	2,796
	증가율 ³⁾	16.3	15.1	12.3	12.1	12.4	10.9	11.9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4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5.7% 증가한 10조 1,59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6.4% 증가한 9조 3,314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1.5% 감소한 8,277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주식과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5,31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1.2%p 감소한 24.9%를 기록함.

○ 투자금은 6조 8,004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5.1%에서 66.9%로 상승함.

○ 2014년 4/4분기 운용자산 중 주식과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은 각각 11.1%, 23.7%로 전분기에 비해 1.1%p, 2.8%p 상승함.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76,873	76,873	82,228	85,907	87,677	93,314	93,314
	증가율 ³⁾	3.7	12.2	7.0	4.5	2.1	6.4	21.4
	구성비	92.7	92.7	91.9	91.6	91.3	91.9	91.9
예치금	금액	22,641	22,641	25,031	25,618	25,095	25,311	25,311
	증가율 ³⁾	-1.0	-3.4	10.6	2.3	-2.0	0.9	11.8
	구성비	27.3	27.3	28.0	27.3	26.1	24.9	24.9
투자금	금액	54,232	54,232	57,197	60,288	62,582	68,004	68,004
	증가율 ³⁾	5.8	20.3	5.5	5.4	3.8	8.7	25.4
	구성비	65.4	65.4	63.9	64.3	65.1	66.9	66.9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6,014	6,014	7,231	7,831	8,399	8,277	8,277
	증가율 ³⁾	-5.6	20.2	20.2	8.3	7.3	-1.5	37.6
	구성비	7.3	7.3	8.1	8.4	8.7	8.1	8.1
총자산	금액	82,887	82,887	89,459	93,737	96,076	101,591	101,591
	증가율 ³⁾	2.9	12.7	7.9	4.8	2.5	5.7	2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439억 위안¹⁸⁾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함.
 - 한편, 2014년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3,0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함.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분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축소되었음.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8.9%, 17.5% 증가한 1,998억 위안, 114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한 327억 위안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15.7%, 41.3%, 17.6% 증가한 1조 902억 위안, 1,587억 위안, 543억 위안임.

- 2014년 중국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로 나타남.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에 따르면 192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17.8%로 나타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¹⁹⁾의 수익률은 각각 18.6%와 22.2%였음.

18)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19)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2,199	11,010	5,243	2,623	2,726	2,439	13,031
	증가율 ⁴⁾	6.1	8.4	44.1	-4.5	12.4	10.9	18.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1,836	9,425	4,607	2,080	2,216	1,998	10,902
	증가율 ⁴⁾	2.0	5.8	42.9	-10.8	9.0	8.9	15.7
	구성비	83.5	85.6	87.9	79.3	81.3	81.9	83.7
건강보험	보험료	266	1,123	492	401	367	327	1,587
	증가율 ⁴⁾	37.8	30.2	66.8	37.3	35.6	22.9	41.3
	구성비	12.1	10.2	9.4	15.3	13.5	13.4	12.2
상해보험	보험료	97	461	144	142	143	114	543
	증가율 ⁴⁾	18.2	19.5	21.0	14.5	17.5	17.5	17.6
	구성비	4.4	4.2	2.7	5.4	5.2	4.7	4.2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83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623억 위안, 173억 위안, 3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6.4%, 34.9%, 11.9% 증가함.

○ 한편, 2014년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3,428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3.6% 증가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617	2,774	1,025	793	778	832	3,428
	증가율 ⁴⁾	35.0	46.0	35.2	11.7	13.0	34.8	23.6
생명보험	보험금	457	2,253	863	639	604	623	2,728
	증가율 ⁴⁾	30.2	49.7	34.0	7.6	8.1	36.4	21.1
건강보험	보험금	129	411	133	124	140	173	571
	증가율 ⁴⁾	62.7	38.0	49.4	34.8	38.3	34.9	38.9
상해보험	보험금	32	110	29	30	34	35	128
	증가율 ⁴⁾	16.9	12.9	16.0	25.0	18.2	11.9	17.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4분기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2.7%로 전분기에 비해 0.3%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7.0%에서 7.3%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⁰⁾의 시장점유율은 61.1%로 전분기에 비해 0.4%p 증가함.

20)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신화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중국런민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2%, 15.0%, 9.9%, 7.5%, 3.4%임(2014년 4/4분기 기준).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8.4	69.5	65.8	58.9	60.7	61.1	62.5
		중·소형사 ³⁾	24.4	24.9	30.5	33.9	32.3	31.7	31.8
		소계	92.8	94.4	96.3	92.8	93.0	92.7	94.2
	외국계	7.2	5.6	3.7	7.2	7.0	7.3	5.8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86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함.

- 손해보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손해보험 수입보험의 증가율도 소폭 상승하였음.

- 2014년 4/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6.4%로 전분기 4.2%에 비해 2.2%p 상승하였음.

- 한편, 2014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203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6.0%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³⁾	1,591	6,212	1,757	1,866	1,719	1,862	7,203
	증가율 ⁴⁾	18.8	16.5	16.1	15.6	15.0	17.0	16.0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14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 자동차 부품 가격 하락으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7%p 낮아졌음.
 - 중국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자동차부품기업들은 중국 반독점법 집행 강화로 201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 가격을 크게 인하하였음.
 - 한편, 2014년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3,78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³⁾	1,087	3,439	834	879	928	1,147	3,788
	증가율 ⁴⁾	25.5	22.1	14.2	14.9	8.2	5.5	10.2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7%p 하락한 97.1%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2%에서 2.9%로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²¹⁾의 시장점유율은 62.8%로 전분기에 비해 3.0%p 감소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IG, Liberty Mutual, Samsung Insurance로 조사됨.

21)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국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1.6%, 19.6%, 11.6%임(2014년 4/4분기 기준).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6	64.8	65.5	64.8	65.8	62.8	64.7
		중·소형사 ³⁾	34.0	33.9	33.3	32.5	32.0	34.4	33.1
		소계	98.6	98.7	98.9	97.3	97.8	97.1	97.8
	외국계	1.4	1.3	1.1	2.7	2.2	2.9	2.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²⁾

■ 2014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3,160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7.2%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는 2014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증가세가 전년보다 확대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4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60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²⁾	금액	143	589	166	141	133	168	607
	증가율 ²⁾	-10.7	-11.1	-0.6	-3.4	0.1	17.4	3.1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495	2,495	2,648	2,804	2,949	3,160	3,160
	증가율 ³⁾	4.7	24.2	6.1	5.9	5.2	7.2	26.6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2)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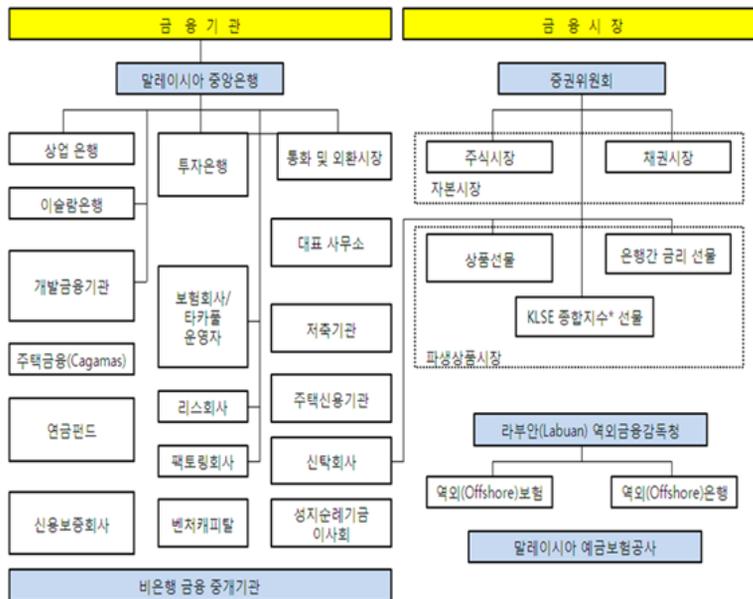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록 말레이시아 금융산업¹⁾ 및 보험산업 현황

1. 말레이시아 금융산업

-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보험, 타카풀(Takaful),²⁾ 중개기관, 개발금융기관으로 분류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과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감독하고 있음.

〈그림 1〉 말레이시아 금융감독 체계



주: *KLSE 종합지수(Kuala Lumpur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1) 본고는 IMF(2013)의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의 “말레이시아 은행산업 동향”을 참조함.
 2) 이슬람 율법 샤리아(Sariah)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보험으로, 이슬람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투기성, 불확실성, 이자지급 등의 특징을 갖는 일반적인 보험을 대체하는 이슬람 보험상품임.

■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2011년 GDP의 11.6%를 차지하였고, 2006년 이후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8.0~1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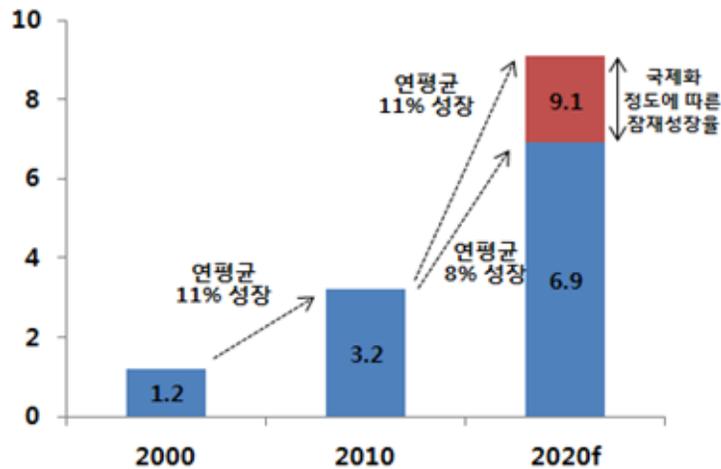
- 금융연관비율³⁾은 2010년 GDP 대비 4.3배이며, 2020년에는 GDP 대비 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자산 기준으로 은행부문은 2010년 GDP 대비 2.4배에서 2020년에는 GDP 대비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ASEAN 국가 중에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임.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13-14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금융시장 발전정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의 경우 148개국 중 싱가포르가 2위, 말레이시아가 6위를 차지하였음.

〈그림 2〉 말레이시아 금융산업 성장 전망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마스터플랜 2.

3) GDP 대비 예금과 적금, 예탁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는 총금융자산이며, 이는 금융 중개기관 및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반영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부문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등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중앙은행은 2020년까지 금융산업 발전 청사진을 발표하였고 증권위원회(SC: Securities Commission)는 같은 기간 동안 자본시장 종합계획(CMP2: Capital Market Program)을 발표함.

- 이슬람 금융⁴⁾의 지역통합과 국제화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 향후 시장자유화를 목표로 함.

○ 또한 기업 지배구조 청사진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계획됨.

■ 2011년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1986년에 비하여 국내 기관 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계 기관은 증가함.

○ 말레이시아 국내 보험산업 합리화에 따른 합병이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 회사 수는 1986년 53개사에서 2013년 17개사로 감소함.

○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계 은행은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지점 형태로 진출할 수 없음.

- 외국계 은행의 지점 및 ATM 증설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함.

○ 국제 이슬람 은행으로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Alkhair International Islamic Bank Bhd,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Elaf Bank B.S.C., PT. Bank Syariah Muamalat Indonesia 등 5개사가 있음.

4)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서 정해진 각종 사회/경제적 제약조건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금융업.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 및 실물투자만 허용, 이자 및 투기적 계약 금지, 인간의 노력과 노동력에서 창출된 화폐가치 증가, 이슬람 사회에 균등한 수익 배분 등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금융(Conventional Banking)과는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함.

〈표 1〉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수 변화 추이

금융기관	1986		2013	
	국내	외국계	국내	외국계
상업은행	22	16	8	19
금융회사 ¹⁾	42	5	0	0
투자은행/종합금융회사	12	0	13	0
할인상사 ²⁾	7	0	0	0
이슬람 은행	1	0	10	6
국제 이슬람 은행 ³⁾	0	0	0	5
보험회사	53	10	17	16
생명보험회사	-	-	5	4
손해보험회사	-	-	10	9
복합보험회사	-	-	2	3
재보험회사	1	0	3	4
타카풀사	1	0	9	2
재타카카풀사(Retakafu) ⁴⁾	0	0	1	3
국제 타카풀사	0	0	0	1
합계	139	31	61	56

주: 1) 1998년 3월 31일 중앙은행은 금융회사 합병 프로그램에 따라 Mayban Finance Berhad, Public Finance Berhad, Hong Leong Finance Berhad, Arab-Malaysian Finance Berhad, EON Finance Berhad and Credi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United Merchant Finance Berhad 등 6개의 주요 금융회사가 모든 중소 금융회사를 합병함.

2) 할인상사(Discount House)는 196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시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여 콜머니, 오버나이트 자금, 단기예금과 같은 자금의 유통화에 주력하여 간접금융시장의 원활한 작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기관임. 모든 할인상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은행 그룹에 속하는 할인상사들은 각 그룹 내의 종합금융회사에 흡수되었음.

3) 국제 이슬람 은행(IIB: International Islamic Bank)은 외국계나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며, 국제 이슬람 은행사업에서 말레이시아 링깃화가 아니라 국제 통화로 거래가 되는 은행임.

4) 이슬람 재보험.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가. 은행산업⁵⁾

■ 말레이시아 은행은 자산기준으로 전체 금융산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BNM), 상업은행,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분류됨.

- 중앙은행은 1959년에 설립되어 통화 발행 및 외화 관리 등을 수행하며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화폐 가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함.
- 상업은행은 은행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예금, 대출 등 기본적 소매금융, 무역금융, 보관서비스, 국제 결제서비스,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당좌계정 서비스가 유일하게 허용된 기관임.
-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은행법(Islamic Banking Act 1983) 등을 기반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ariah)⁶⁾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임.
 - 1983년에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은행인 Bank Islam Malaysia Berhad가 설립된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투자은행은 기존의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와 주식중개회사 및 할인상사(Discount House)⁷⁾ 등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기관으로 13개사가 영업 중이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개발금융기관의 경우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Malaysia), 농업은행(Agrobank), 개발은행(Bank Pembangunan Malaysia Berhad), SME은행, 산업기술은행(Bank Industrial & Technology Malaysia), 산업개발금융(MIDF: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erhad) 등이 농업, 기반시설, 수출입, 중소기업 등 전략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함.

5)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의 “말레이시아 은행산업 동향”과 한국수출입은행(2010)의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참조함.

6) 이슬람 율법(Sharia)은 이자 수수, 불명확한 자금거래, 투기, 술·담배·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정기적 확정수입 수취 등을 금지함.

7) 196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시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여 콜머니, 오버나이트 자금, 단기에금과 같은 자금의 유동화에 주력하며 이를 통해 간접금융시장의 원활한 작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기관임.

- 상업은행,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소수의 대형 금융그룹과 각 부문에서 단독기업으로 영업하는 다수의 소형 금융기관이 존재함.
 - 말레이시아에는 2013년 27개의 상업은행, 13개의 투자은행, 16개의 이슬람 은행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며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
 - 1986년 77개의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상업은행, 투자은행, 이슬람은행)이 2011년 34개로 감소함.

-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의 시장점유율이 85%를 상회하며, 특히 상위 3개 은행이 과반을 점유함.
 - 최대 은행인 Maybank 그룹과 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CIMB) 및 Public bank 그룹이 2011년 기준 전체 은행산업의 56.6%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HSBC, United Overseas Bank(UOB), OCBC 등 상위 3개 외국계은행의 점유율은 12.3% 수준임.

- 주요 은행이 보험, 펀드관리회사 및 증권회사를 소유하며 복합금융그룹화가 되어 있음.
 - 금융지주회사(FHC: Financial Holding Company)가 6개⁸⁾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며 라이선스를 소유한 금융회사가 2개사⁹⁾를 운영함.
 - 은행산업 총자산의 70%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대형은행이 9개의 생명보험회사 중 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보험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8) CIMB Group, RHB Group, Affin Group, Alliance Group, Hong Leong Group, AmBank Group임.

9) Maybank Group와 Public Bank Group임.

〈표 2〉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수 변화 추이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슬람 은행
1	Affin Bank Berhad	Affin Investment Bank Berhad	Affin Islamic Bank Berhad
2	Alliance Bank Malaysia Berhad	Alliance Investment Bank Berhad	Alliance Islamic Bank Berhad
3	AmBank (M) Berhad	AmInvestment Bank Berhad	AmIslamic Bank Berhad
4	CIMB Bank Berhad	CIMB Investment Bank Berhad	Bank Islam Malaysia Berhad
5	Hong Leong Bank Berhad	Hong Leong Investment Bank Berhad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
6	Malayan Banking Berhad	HwangDBS Investment Bank Berhad	CIMB Islamic Bank Berhad
7	Public Bank Berhad	KAF Investment Bank Berhad	Hong Leong Islamic Bank Berhad
8	RHB Bank Berhad	Kenanga Investment Bank Berhad	Maybank Islamic Berhad
9	BNP Paribas Malaysia Berhad	MIDF Amanah Investment Bank Berhad	Public Islamic Bank Berhad
10	Bangkok Bank Berhad	MIMB Investment Bank Berhad	RHB Islamic Bank Berhad
11	Bank of America Malaysia Berhad	Maybank Investment Bank Berhad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12	Bank of China (Malaysia) Berhad	Public Investment Bank Berhad	Asian Finance Bank Berhad
13	Bank of Tokyo-Mitsubishi UFJ (Malaysia) Berhad	RHB Investment Bank Berhad	HSBC Amanah Malaysia Berhad
14	Citibank Berhad		Kuwait Finance House (Malaysia) Berhad
15	Deutsche Bank (Malaysia) Berhad		OCBC Al-Amin Bank Berhad
16	HSBC Bank Malaysia Berhad		Standard Chartered Saadiq Berhad
17	India International Bank (Malaysia) Berhad		
18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Malaysia) Berhad		
19	J.P. Morgan Chase Bank Berhad		
20	Mizuho Bank (Malaysia) Berhad		
21	National Bank of Abu Dhabi Malaysia Berhad		
22	OCBC Bank (Malaysia) Berhad		
23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erhad		
24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alaysia Berhad		
25	The Bank of Nova Scotia Berhad		
26	The Royal Bank of Scotland Berhad		
27	United Overseas Bank (Malaysia) Bhd.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 예금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보다 높고, 예금에서는 기업이, 대출에서는 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1년 말 기준 말레이시아 은행 예금 및 대출 규모는 각각 1.3조 링깃(약 4,087억 달러) 과 1.0조 링깃으로, 최근 10년간 각각 약 10.5%와 8.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함.

〈표 3〉 예금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은행명	예금액	시장점유율
Maybank	313,300	24.1
CIMB	222,300	17.1
Public bank	200,200	15.4
HSBC Malaysia	58,500	4.5
UOB Malaysia	53,300	4.1
OCBC Malaysia	49,400	3.8
기타 국내은행	378,300	29.1
기타 외국계은행	24,700	1.9
총계	1,300,000	10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2011).

〈표 4〉 대출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종류	대출액	시장점유율
상업은행	796,000	79.6
이슬람 은행	199,000	19.9
투자은행	5,000	0.5
총계	1,000,000	100.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2011).

나. 이슬람 금융

- 이슬람 금융은 전통적 금융과 달리, 미리 결정된 이자지급이 없으며 상업거래 (Commercial Trade)/투자에 의한 이익 추구활동을 권장함.
 - 투자자와 예금자는 고정된 이자수익보다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타입의 이익 배분권을 가진.
 - 투자 발생 이전에 특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며 거래 이후 이익손실분할원칙(Profit-Loss Sharing Principle)에 따라 수익을 배분함.
 - 투자성과에 따라 예금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투자방식은 직접투자,¹⁰⁾ 파트너쉽,¹¹⁾ 주식투자,¹²⁾ 유동화, 대출¹³⁾ 등이 있음.
- 2011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1.22조 달러의 이슬람 금융자산 중 약 17.0%를 보유¹⁴⁾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은 은행과 타카ful, 수쿠크, 증권시장 등이 모두 갖추어진 종합 금융시스템으로 구성됨.

10)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제 3의 기관/전문가 고용을 통해 이슬람 금융기관의 투자 프로젝트를 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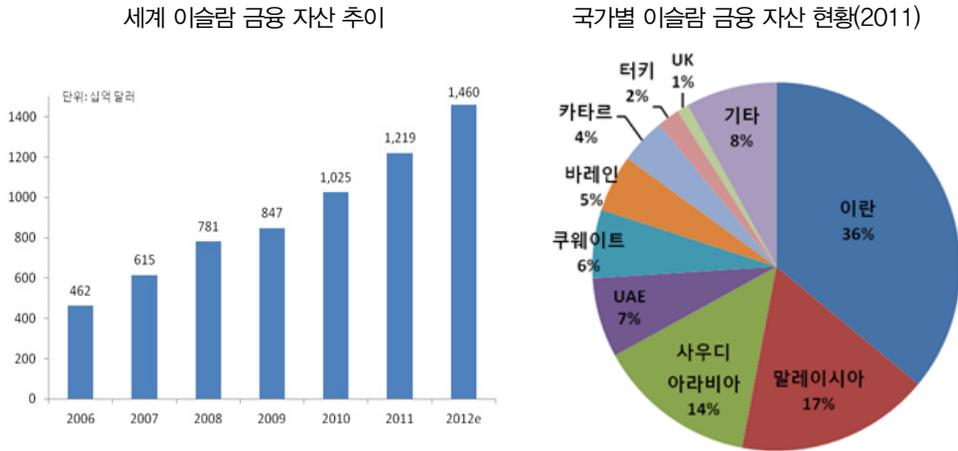
11) 두 가지 형태의 파트너쉽인 Mudarabah와 Musharaka 활용으로 이루어짐. Mudarabah의 경우 투자자는 자본을 조달하고, 사업가(금융회사)는 경영(투자)활동을 하는 파트너쉽임. 이윤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배분하고 이윤이 사업가에게 전적으로 귀속될 경우 파트너쉽은 대출로 귀결되며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함. 반면, Musharaka의 경우 투자자와 사업가의 공동출자를 통한 합작투자로 사업 수행경과 이익(손해) 발생 시 지분참여자들이 참여비율에 따라 이익(손해)을 분담함.

12)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로서 서구의 뮤추얼 펀드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운용과 유사함.

13) 개인/기업대출은 자산구매와 리스 등의 실물거래를 수반하며 금융의 효율성보다는 샤리아 율법의 합법성을 중시함.

14) TheCityUK(2013), "UK, The leading western centre for islamic finance", Financial Market Series.

〈그림 3〉 이슬람 금융 자산



주: 2012년은 TheCityUK 추정치. 자료: The Banker; Ernst & Young; TheCityUK 재인용. 자료: The Banker; TheCityUK 재인용.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부상함.

- 이슬람 금융 진흥을 위해 관련법률 정비, 관련기관 설립, 시장 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함.
 - 이슬람은행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이슬람은행법(1983), 무이자 국채 발행을 위한 정부 투자법(1983), 타카풀법(1984) 등을 제정함.
 - 국제기구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2002), 국제이슬람금융 교육센터(INCEIF 2006),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2006) 등을 설립함.
- 이와 같은 인프라 정비를 비롯하여 이슬람교도 인구 증가, 시스템 안정성¹⁵⁾ 등으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¹⁶⁾ 시장의 점유율은 69.0%로 ASEAN에서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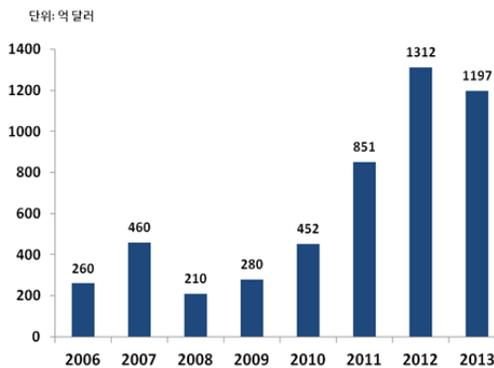
15)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가 실물거래와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이 높음. 특히 샤리아가 투기목적의 투자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에 부합하는 헤지펀드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 위험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평가됨.

16) 서구의 채권발행과 유사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실물자산 거래를 수반하며 자산유동화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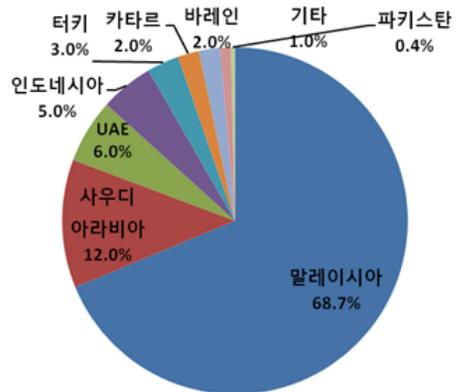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의 GDP 대비 시가총액(2012년 기준) 비중은 156.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¹⁷⁾
- 자산운용시장은 자본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 운영을 활성화시킴.
 - 소매단위신탁은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PNB(Permodalan Nasional Bhd)는 가장 큰 단위신탁 기업임.

〈그림 4〉 수쿠크 발행 추이

연도별 발행 규모(십억 달러)



국가별 발행 현황(2013)



자료: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MIFC).

17) IMF(2013),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World Bank.

〈표 5〉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경쟁력

순위	수쿠크시장	주식시장	자산운용시장	타카ful	은행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이란
2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3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UAE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케이만 아일랜드	사우디 아라비아	UAE
5	바레인	쿠웨이트	바레인	바레인	쿠웨이트

자료: PWC(2010).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무이자 금융이며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상품은 와디아(Wadiah), 무다라바(Mudharabah), 무라바하(Murabahah), 이자라(Ijar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음.

〈표 6〉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상품

이슬람 율법	설명	목적	은행 상품
Wadiah	보증된 보관	예금수취 상품	당좌/저축성 예금
Mudharabah	이익분배	투자예치	일반/특수 계좌, PF, 환매조건부 계약
Murabahah	원가가산	금융설비	운전자본 파이낸싱, 채권, 기업어음(CP)
Bai Bitamin Ajil	연불판매	주택금융	주택대출, 양도성예금증서, 상업재산 파이낸싱, 신용카드, Umrah 파이낸싱
Ijarah	리스	리스/차량금융	기계류 리스, 차량금융, 채권
Musyarakah	손익분배	PF	PF, 주식금융, 투자신탁 금융

자료: 한국증권업협회(2008),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은 발행 규모 및 건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매년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신규 발행된 수쿠크 규모는 2,754억 링깃이었으며, 2013년 신규 발행된 수쿠크 규모는 3,265억 링깃으로 증가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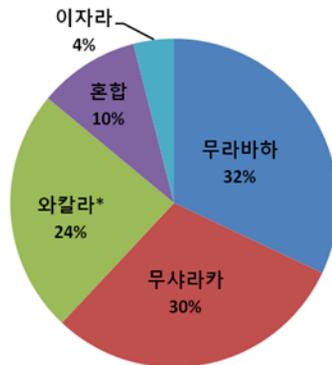
〈표 7〉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 현황

구분		2012	2013
승인된 수쿠크	수쿠크 수(개)	50	41
	수쿠크 규모(10억 링깃)	99.6	71.1
	전체 채권 규모(10억 링깃)	148.1	103.3
	전체 채권 대비 비중(%)	67.3	68.8
신규 발행된 수쿠크	수쿠크 규모(10억 링깃)	275.4	326.5
	전체 채권 규모(10억 링깃)	501.6	637.4
	전체 채권 대비 비중(%)	54.9	51.2

자료: 한국증권업협회(2008),

■ 말레이시아에서 2013년 승인된 수쿠크는 711억 링깃으로, 무샤라카 및 무라바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음.

〈그림 5〉 말레이시아 승인된 수쿠크 종류별 비중(2013년)



주: *와칼라는 대리인계약을 뜻함.
자료: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2014).

■ 말레이시아는 현재 이슬람 금융기법이 발달된 국가로 수쿠크 등 관련 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1960년대 이후 이슬람 금융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이슬람 금융의 비중이 높게 형성됨.

- 2010년 기준 은행산업 16%(자산기준), 보험산업 8%(순자산), 자산운용업 21%(설정펀드 수), 채권시장 57%(잔액), 주식시장 88%(상장 주식) 등으로 나타남.

- 특히 말레이시아는 중동지역보다 유연하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과 이슬람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중금융체제를 구비함.

다. 금융산업에서 정부의 역할

■ 정부의 금융기관 소유비중이 큼.

○ 7개 정부유관투자회사(GLICs: Government Linked Investment Companies)¹⁸⁾의 말레이시아 금융 및 은행 그룹 소유비중이 큼.

○ 정부 산하기관인 PNB는 Maybank 그룹의 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금융그룹의 단위신탁을 45%를 소유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투자지주회사인 KNB는 두 번째로 큰 은행 그룹인 CIMB그룹의 30% 지분을 소유함.

■ GLICs는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임.

○ 국민연금펀드(EPF: Employee Provident Fund),¹⁹⁾ KWAP 및 LTAT는 약 5,650억 링깃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KNB는 1,000억 링깃을, PNB는 2,140억 링깃을 소유하고 있음.

18) 정부유관투자회사는 Khazanah Nasional Bhd(KNB), Kumpulan Wang Simpanan Pekerja(KWSP), Kumpulan Wang, Amanah Pencen(KWAP), Lembaga Tabung Angkatan Tentera(LTAT), Lembaga Tabung Haji(LTH), Menteri Kewangan Diperbadankan(MKD), Permodalan Nasional Bhd(PNB) 등 7개사가 있음.

19)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급여 중 23%는 국민연금펀드(EPF: Employees Provident Fund)로 적립됨.

■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 하에 두 기관이 설립됨.

- Danajamin는 신용보증기관으로 채권발행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Danajamin 보장하는 모든 채권은 AAA등급을 받고 있음.
- Cagamas는 주택저당공사(National Mortgage Corporation)로 주택 소유와 이차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²⁰⁾ 성장 촉진을 위하여 1986년에 설립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20% 지분을,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이 각각 20%, 80% 지분을 소유함.

■ 정부가 19개의 개발금융기관(DFI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소유 또는 운영함.

- 2011년 기준 개발금융기관은 자산기준으로 은행산업의 약 10%를 차지하였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이 중 6개²¹⁾의 대형 개발금융기관을 감독함.
 - 이 중 3개의 개발금융기관은 예금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 산업 예금 계좌의 40%를 차지함.

20) 저당대출유통시장이라고도 불리며, 제1차 대출기관이 저당증서(Mortgage)를 바탕으로 발행한 각종 저당증담보부채권을 매각하는 유통시장을 뜻함.

21) 수출입은행, 농업은행, 우체국은행, SME은행, 산업은행, 이슬람공동은행 등.

2. 보험산업 및 타카풀 시장²²⁾

가. 보험산업 현황

- 2013년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의 총 원수보험료는 141억 달러 규모로 세계 35위임.
- 시장점유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63.7%, 36.3%를 차지함.

〈표 8〉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규모(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합계
원수보험료	5,126	8,995	14,121
성장률	6.4	5.2	5.2
시장점유율	36.3	63.7	100.0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 (2014) 재인용.

〈표 9〉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부문별 총자산 비교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09	2011	금융산업 총자산 중 비중		GDP 대비	
			2009	2011	2009	2011
생명보험	70,881	79,771	2.5	2.3	9.9	9.1
손해보험	21,285	25,406	0.8	0.7	3.0	2.9
복합보험	58,213	75,759	2.1	2.1	8.2	8.6
타카풀	12,446	16,948	0.4	0.5	1.7	1.9
합계	162,825	197,884	5.8	5.6	22.8	22.5

자료: IMF(2013).

- 말레이시아 보험침투도는²³⁾ 2013년 기준 4.8%로 홍콩(13.2%), 싱가포르(5.9%), 태국(5.5%) 등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침투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2013년 보험침투도는 11.9%(생명보험 7.5%, 손해보험 4.4%)로 나타남.

22) Korean Re.(2014), “말레이시아 보험시장”과 Swiss Re.(2014), “World Insurance in 2013”을 참조함.

23) GDP 대비 수입보험료.

〈표 10〉 국가별 보험침투도(2013년)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대만	14.5	3.1	17.6(세계 1위)
홍콩	11.7	1.5	13.2(세계 3위)
우리나라	7.5	4.4	11.9(세계 5위)
싱가포르	4.4	1.6	5.9(세계 23위)
태국	3.8	1.7	5.5(세계 26위)
말레이시아	3.2	1.7	4.8(세계 30위)

자료: Swiss Re(2014/3)

■ 말레이시아 보험밀도²⁴⁾는 2013년 기준 세계 39위인 518달러로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2013년 보험밀도는 각각 5,002달러, 3,886달러, 3,251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2013년 보험밀도는 2,895달러(생명보험 1,816달러, 손해보험 1,079달러)로 20위임.

〈표 11〉 국가별 보험밀도(2013년)

(단위: 달러)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홍콩	4,445	557	5,002(세계 6위)
대만	3,204	682	3,886(세계 12위)
싱가포르	2,388	863	3,251(세계 17위)
우리나라	1,816	1,079	2,895(세계 20위)
말레이시아	341	176	518(세계 39위)
태국	214	96	310(세계 54위)

자료: Swiss Re(2014/3)

■ 말레이시아는 제 10차 말레이시아 경제발전계획과 이스칸다르 프로젝트²⁵⁾의 영향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보험수요가 증가하여 보험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4) 1인당 보험료 규모.

25) 2025년까지 총 3,830억 링깃(약 120조 원)을 투자하여 조호르지역에 1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을 3만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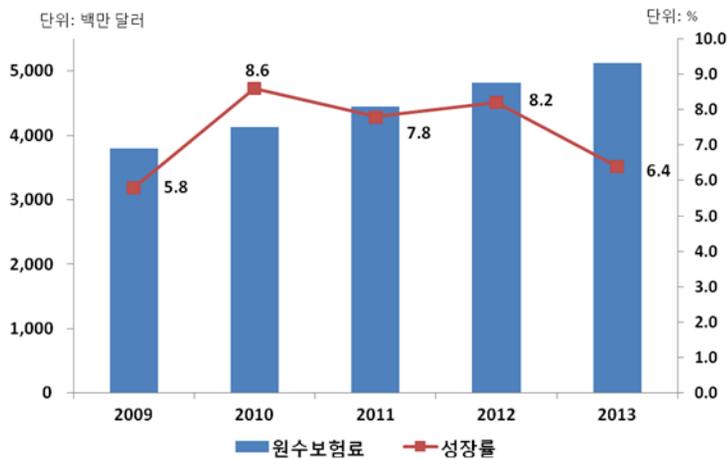
1) 손해보험 시장

■ 말레이시아 손해보험 시장은 과거 5년간 연평균 7.3% 성장하여 같은 기간 세계 보험시장의 연평균 3.1% 성장률을 상회함.

○ 반면, ASEAN 국가 손해보험시장의 연평균 10.0%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 자동차보험의 잘못된 협정요율(Tariff Rates) 제도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세가 ASEAN 평균을 하회함.²⁶⁾

〈그림 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2014) 재인용.

■ 2013년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에서 비중이 큰 상품은 자동차보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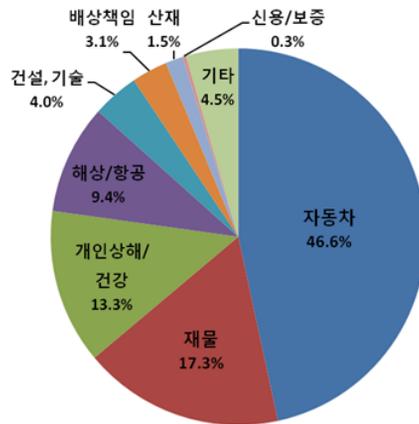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비중이 4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물보험과 해상/항공보험이 각각 17.3%, 9.4%를 차지함.

○ 반면, 배상책임보험(3.1%), 신용 및 보증보험(0.3%)의 점유율은 미미함.

26)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낮은 협정요율 사용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어렵게 되자 외국계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인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손해보험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012년 협정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되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2월 15일 협정요율을 다시 인상하였으며 향후 2016년까지 협정요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요율이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 경제개발 장기계획인“Vision 2020”을 수립하여 국가 주도하에 조선업을 집중육성 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조선업 성장에 따른 해상보험시장 성장이 전망됨.
- 또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관련 신용/보증보험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현황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2014) 재인용.

- 현재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사 중에서 7개사가 해외 보험그룹의 자회사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인 것으로 나타남.
- AXCO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의 M&A는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장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2011년 50% 수준이었던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70%로 상승함.

〈표 12〉 말레이시아 10대 손해보험사(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회사명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Malaysia)	626,9	12,2
2	AmGeneralInsuranceBerhad	502,5	9,8
3	MSIG Insurance(Malaysia) Berhad	452,5	8,8
4	EtiqaInsuranceBerhad	416,0	8,1
5	Lonpac Insurance Bhd	325,9	6,4
6	TokioMarineInsurans(Malaysia) Berhad	321,6	6,3
7	AXA Affin General Insurance Berhad	305,7	6,0
8	ACE Jemeh Inurance Berhad	247,0	4,8
9	AIG Malaysia Insurance Berhad	198,2	3,9
10	Multi-purpose Insurans Bhd	176,9	3,5

주: 5위, 7위, 10위 기업만 국내 기업임.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2014) 재인용.

2) 생명보험 시장

■ 2013년 말레이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89억 달러로 2009년 이후로 연평균 4.6% 성장함.²⁷⁾

■ 생명보험은 2010년 11.7%의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잠시 정체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장 동력으로 2017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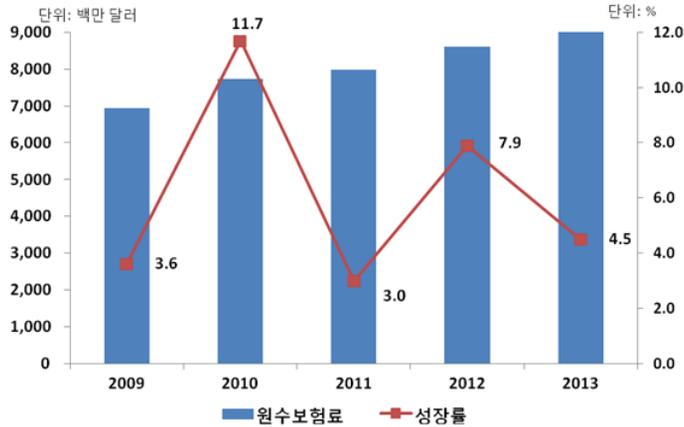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정부의 생명보험 관련 세제혜택 확대

- 201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6,000링깃에서 7,000링깃으로 상향조정함.

27) AXCO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생명보험사가 인수한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제외된 숫자임. Swiss Re.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99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7% 성장함.

28) Insurance Intelligence Center(IIC)(2013).

〈그림 8〉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2014) 재인용.

○ 경제성장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명보험 수요 증가

-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등 생명보험 관련 상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인구 고령화로 투자 및 저축성 상품의 성장도 전망됨.

○ 낮은 생명보험침투도

- Swiss R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침투도는 2013년 기준 3.2%이며, 이는 보험 선진국인 대만(14.5%), 싱가포르(4.4%), 우리나라(7.5%)를 하회하는 수치임(〈표 12〉 참조).
-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침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으로의 해외 보험회사 진출이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해외 재보험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외국 자본이 투입된 보험회사이며 이들 상위 10개사에 대한 집중도는 무려 93.5%를 기록함.²⁹⁾

29)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3) 타카풀 시장³⁰⁾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의거한 보험 형태인 타카풀(Takaful) 시장이 발달함.

- 타카풀은 손실발생 가능성에 근거한 보험요율 결정은 도박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함.
 - 또한 손실발생 시점과 규모의 불확실성(Risk and Uncertainty), 이자부 증권에 대한 투자와 대출에 대한 이자 부과, 상품에 대한 투자, 혹은 술, 담배,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사업 투자 등을 금지함.
- 2011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임.
 -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 타카풀이 전체의 57.2%,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 타카풀이 39.3%, 개인상해 타카풀이 3.5%를 차지함.

〈표 13〉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 현황(2011년)

(단위: 백만 달러, 달러)

순위	가족 타카풀	일반 타카풀	개인상해	총계
원수보험료	699.0	479.5	43.3	1,221.8
시장점유율	57.2	39.3	3.5	100.0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2014) 재인용.

-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의 자산규모는 2010년 147억 링깃에서 2013년 209억 링깃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2.2%, 총보험자산의 8.4%를 차지함.
 - 가족 타카풀의 경우 자산규모가 2010년 125억 링깃에서 2013년 180억 링깃으로 증가함.
 - 일반 타카풀의 경우 자산규모가 2010년 23억 링깃에서 2013년 30억 링깃으로 증가함.

30) 이슬람 보험을 지칭하는 타카풀은 아랍어의 "카팔라(보증서다, 담보하다)"에서 유래함, 상호보험과 유사하며 이슬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호 도움, 협동 및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전통적 보험과 비교할 때 타카풀은 보험요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할 수 있음.

〈표 14〉 말레이시아 타카풀 시장의 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2010	2011	2012	2013
총계	14,720	16,948	19,046	20,934
가족 타카풀	12,461	14,377	16,290	17,952
일반 타카풀	2,259	2,571	2,756	2,982
GNI 비중	2.0	2.0	2.1	2.2
총보험자산 대비 비중	8.1	8.1	8.2	8.4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Annual Takaful Statistics 2014*.

○ 2015년 타카풀 시장 규모는 전세계 보험시장 규모의 0.7%인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는 38.0%를 중동 국가들이 차지하고 34.0%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³¹⁾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가족 타카풀의 성장세는 연간 2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에는 총 11개의 타카풀사가 있으며, 외국계 보험사들의 시장 진출도 활발하여 AIA, Munich Re, Swiss Re, HSBC 등이 타카풀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음.

31) Global Family Takaful Report 2013.

〈표 15〉 말레이시아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구분	타카ful회사
타카ful사 (총 11개)	- AmFamily Takaful Berhad
	- Etiqa Takaful Berhad
	- HSBC Amanah Takaful (Malaysia) Sdn Bhd
	- Hong Leong MSIG Takaful Berhad
	- MAA Takaful Berhad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
	- Sun Life Malaysia Takaful Berhad1)
	-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 Takaful Ikhlas Sdn, Bhd,
	- AIA PUBLIC Takaful Bhd
	- Great Eastern Takaful Berhad
재타카ful사 (총 4개)	- MNRB Retakaful Berhad
	- ACR Retakaful Berhad
	- Munchener Ruckversicherungs-Gesellschaft (Munich Re Retakaful)
	-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Swiss Re Retakaful)

주: CIMB Aviva Takaful Berhad에서 개명됨.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4) 재보험 시장

■ 2011년 기준 말레이시아 손해재보험 시장 규모는 43억 달러 수준임.

- 원수보험료의 31.8%가 출재되었으며 말레이시아 국내 소재 재보험사로 26.6%, 해외로 5.2%가 출재됨.
- 말레이시아에는 Munich Re, Hannover Re, Swiss Re, ACR 등이 지점 또는 자회사형태로 진출하여 있으며 Labuan IBFC(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에는 40여 개의 재보험사가 등록되어 있음.
- 특히, Labuan IBFC의 경우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조세회피지역으로 해외 재보험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표 16) 말레이시아 손해재보험 시장 현황(2011년)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출재보험료(국내)	772 (23.4)	858 (24.2)	927 (25.2)	1,056 (25.6)	1,142 (26.6)
출재보험료(해외)	243 (7.4)	196 (5.5)	222 (6.0)	223 (5.4)	225 (5.2)

주: ()는 출재율.

자료: Axco Statistics & Market Report; Korean Re, (2014) 재인용.

나.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 말레이시아에서 보험 산업을 규제하는 법규는 1996년 제정된 「보험업법(Act 553)」과 1984년 제정된 「타카풀법(Act 312)」임.

- 「보험업법」은 전통적 보험산업에 적용되며, 「타카풀법」은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에 적용됨.

■ 중앙은행에는 보험 및 타카풀 감독국 산하로 5개 부서를 두어 보험 및 타카풀 산업을 감독함.

- 해당 부서는 금융산업개발과(Financial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금융감시과(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 금융건전성정책과(Prudential Financial Policy Department), 소비자 보험 및 영업행위과(Consumer and Market Conduct Department), 규제감독과(Regulation and Supervision Department) 등이 있음.

〈참 고 문 헌〉

- 이진면 외(2009),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조용운 외(2011),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말레이시아 은행산업 동향』, *KB Daily Vitamin*.
- Korean Re.(2014),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Insurance World No. 404*.
- IMF(2013),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3/52*.
- Swiss Re.(2014), "World Insurance in 2013", *Sigma NO3/2014*.
- TheCityUK(2013), "UK, The leading western centre for islamic finance", *Financial Market Series*.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윈도우(<http://globalwindow.org>)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http://global.korcham.net>)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http://www.miti.gov.my>)
- 외교부 말레이시아개황(http://www.mofa.go.kr/countries/index.jsp?menu=m_40)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ADB(<http://www.adb.org>)
- AXCO(<http://www.axcoinfo.com/products/market-information-statistics.aspx>)
- CIA World Fact 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EIU(<http://eiu.com>)
- Global Insight(<http://globalinsight.com>)
- IMF(www.imf.org)
- OECD(www.oecd.org)
-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부록 ▶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고려 사항¹⁾

1. 개요

- 본고는 각 국가별로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컨설팅 업체인 Ernst&Young이 국제적으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30개국 24,000명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크게 7가지의 조사항목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함.
- 본고는 조사대상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과 아시아 신흥국인 인도, 중국 등 9개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 설문조사의 응답문항에 제시된 18가지의 요인을 ①보험회사, ②상품경쟁력, ③판매 및 고객서비스로 구분하여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회사의 브랜드가치’의 2가지 요인을 포함시킴.
 - 「상품경쟁력」에는 ‘급부와 보장의 다양성’ 및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을 포함시킴.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는 상기의 보험회사 및 상품경쟁력에 관한 요인을 제외한 14가지의 요인이 있음.
 - 그 중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과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는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 요인임.

1) 본고는 ERNST&YOUNG의 「Global Consumer Insurance Survey 2014」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되었음.

2.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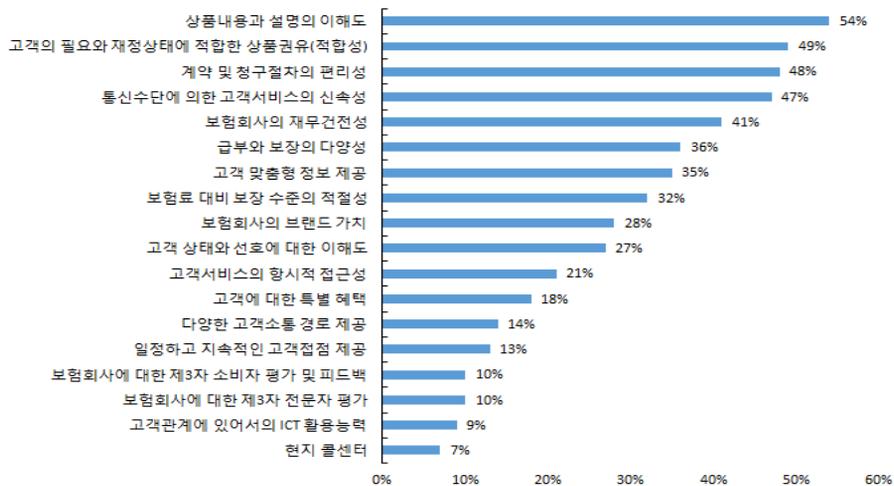
가. 보험회사 선택 및 관계 유지 시 고려 사항

1) 한국

■ 우리나라는 상품 설명의 이해도나 적합성 등 판매 및 고객센터 관련 요인을 보험회사나 상품경쟁력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판매 및 고객센터에서는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가 54%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또한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49%),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48%) 등도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41%, 28%를 차지하며 5위와 9위에 위치함.
- 상품경쟁력의 경우 ‘급부와 보장의 다양성’은 36%,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은 32%의 응답자가 중요 요인으로 선택함.

〈그림 1〉 한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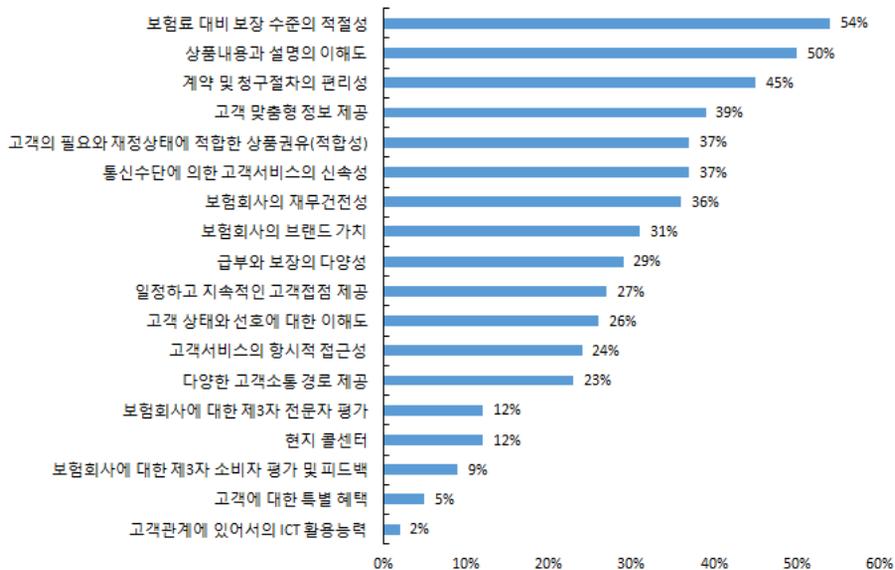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2) 일본

■ 일본에서는 상품경쟁력이나 상품 설명의 이해도와 청구절차의 편리성 등 판매 및 고객센터 관련 부분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54%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판매 및 고객센터에서는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 및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이 각각 50%, 45%를 차지함.
 - 뒤를 이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39%),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37%) 등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36%, 31%를 차지하며 7위와 8위에 머무름.

〈그림 2〉 일본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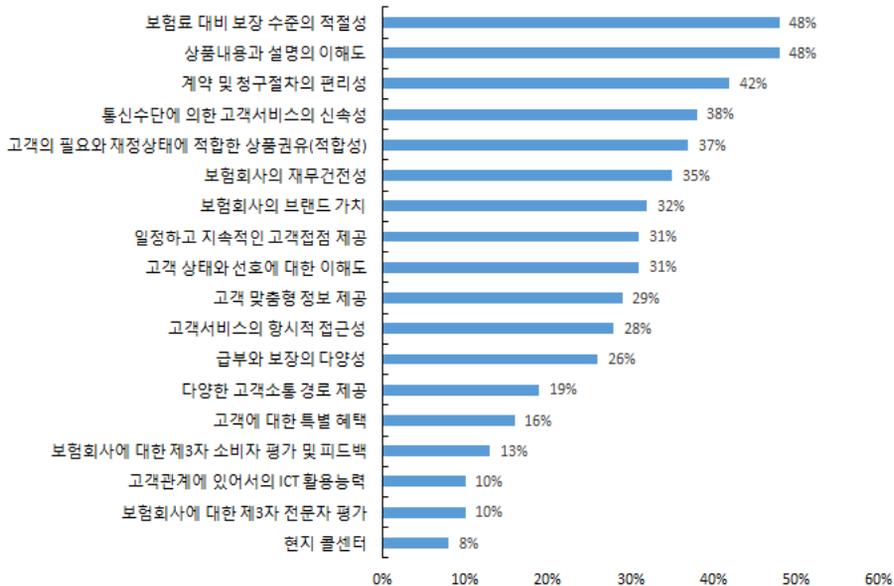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3) 인도

■ 인도에서는 상품경쟁력이나 상품 설명의 이해도와 청구절차의 편리성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부분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48%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가 48%를 차지하며, 상품경쟁력과 더불어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뒤를 이어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42%), ‘통신수단에 의한 고객서비스의 신속성’(38%) 등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35%, 32%를 차지하며 6위와 7위에 머무름.

〈그림 3〉 인도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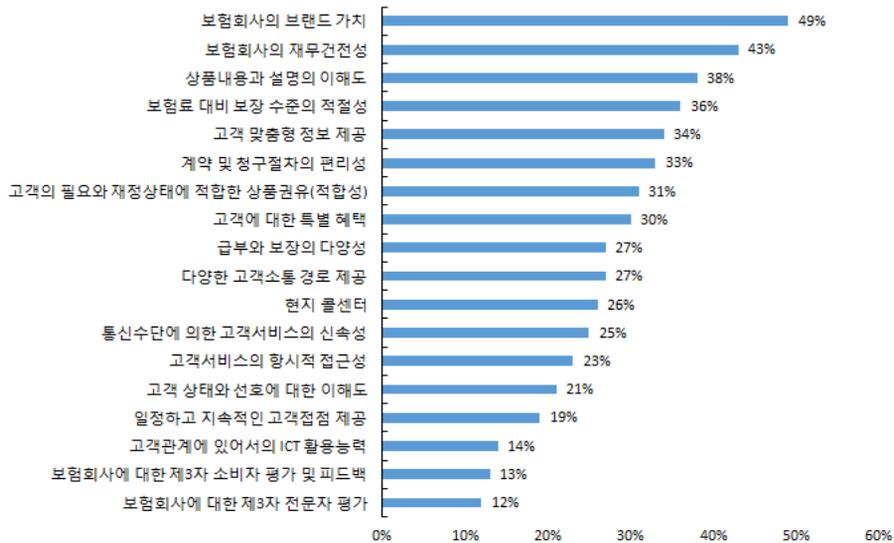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4) 중국

■ 중국에서는 보험회사 관련 요인을 상품 설명의 이해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나 상품경쟁력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49%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도 43%를 차지하면서 연이은 순위에 위치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 및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각각 38%, 34%를 차지함.
 - 뒤를 이어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33%),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31%) 등 순으로 나타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36%)과 ‘급부와 보장의 다양성’(27%)이 각각 4위와 9위에 머무름.

〈그림 4〉 중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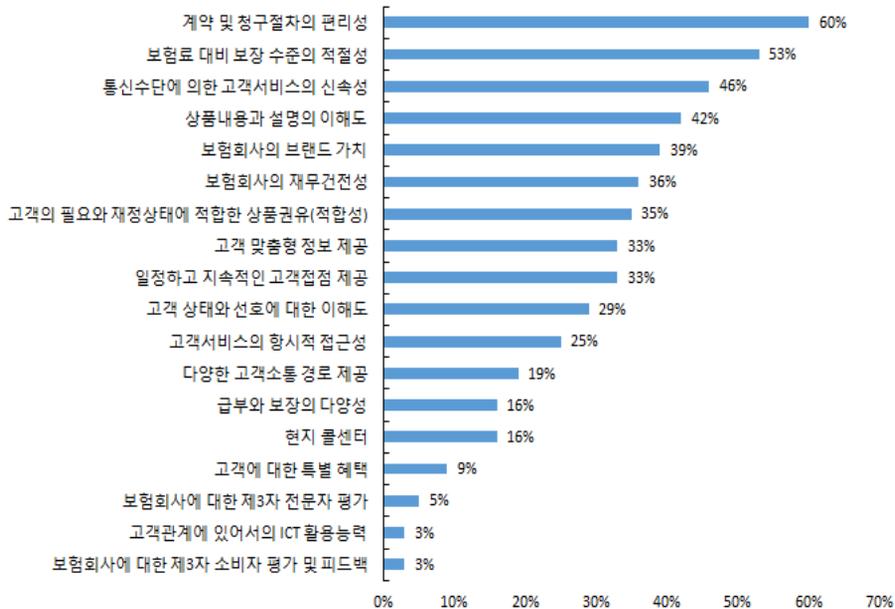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5) 미국

■ 미국에서는 청구절차의 편리성과 서비스의 신속성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와 상품경쟁력 관련 부분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이 60%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또한, ‘통신수단에 의한 고객서비스의 신속성’(46%),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42%) 등 모두 상위권을 차지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53%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각각 39%, 36%를 차지하며 5위와 6위에 위치함.

〈그림 5〉 미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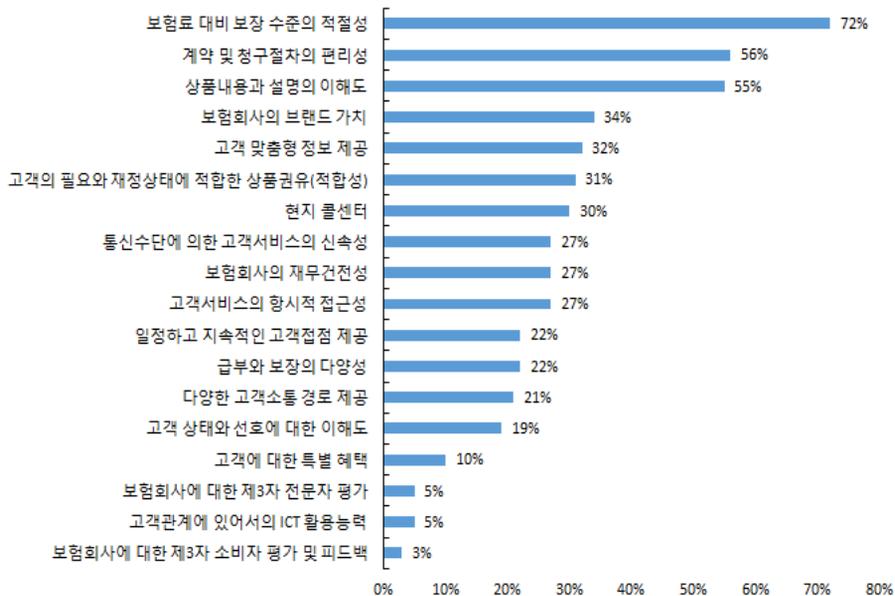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6) 영국

■ 영국에서는 상품경쟁력이나 청구절차의 편리성과 상품 설명의 이해도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요인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72%로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 및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가 각각 56%, 55%를 차지함.
 - 뒤를 이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32%),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31%) 등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각각 34%, 27%를 차지하며 4위와 9위에 위치함.

〈그림 6〉 영국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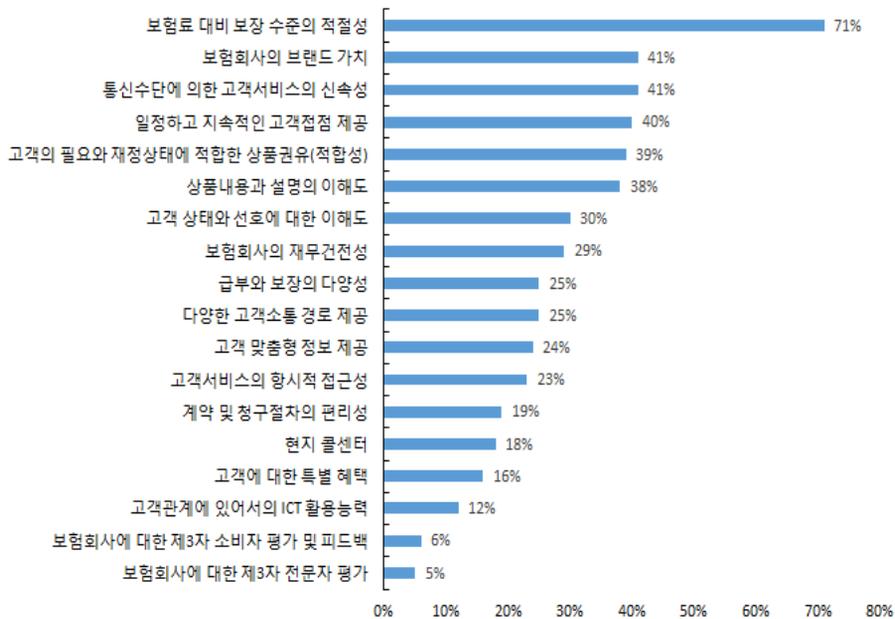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7)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상품경쟁력 관련 요인을 신속한 서비스와 지속적인 소통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나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71%로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각각 41%, 29%의 비중을 차지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통신수단에 의한 고객서비스의 신속성’ 및 ‘일정하고 지속적인 고객접점 제공’이 각각 41%, 40%를 차지함.
 - 뒤를 이어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39%), ‘상품 내용과 설명의 이해도’(38%)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프랑스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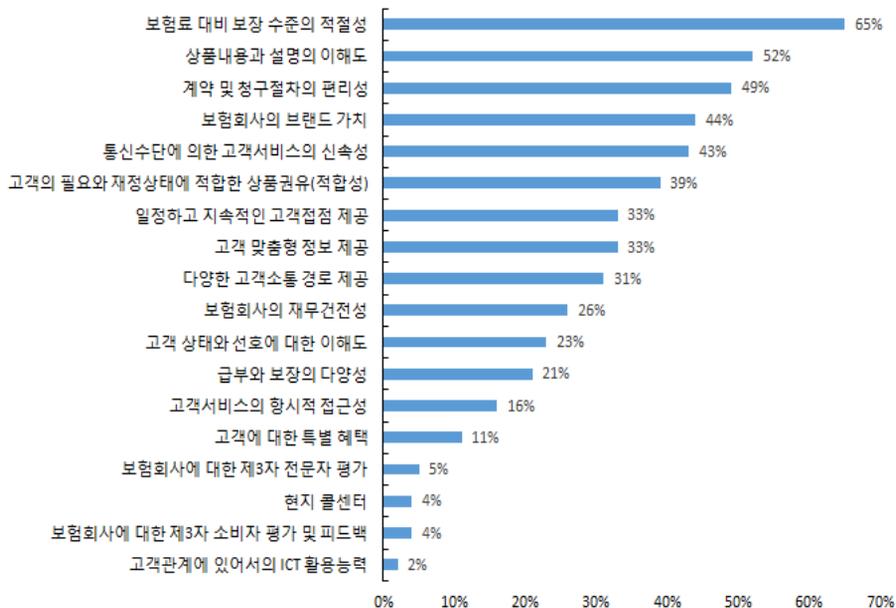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8) 독일

■ 독일에서는 상품경쟁력이나 청구절차의 편리성과 상품 설명의 이해도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부분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65%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 및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이 각각 52%, 49%를 차지함.
 - 뒤를 이어 ‘통신수단에 의한 고객서비스의 신속성’(43%), ‘고객의 필요와 재정상태에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39%) 등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각각 44%, 26%를 차지하며 4위와 10위에 위치함.

〈그림 8〉 독일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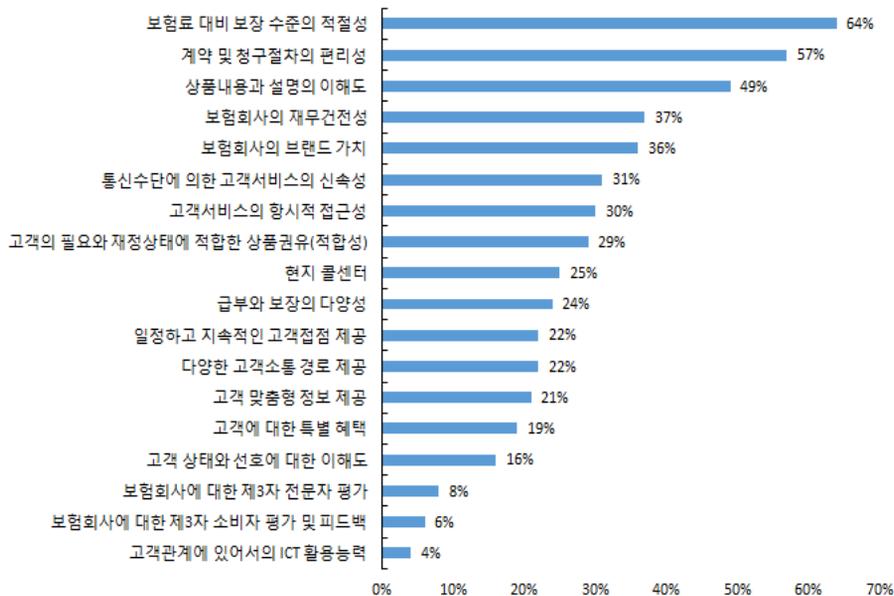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9) 호주

■ 호주에서는 상품경쟁력이나 청구절차의 편리성과 상품 설명의 이해도 등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부분을 보험회사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품경쟁력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장 수준의 적절성’이 64%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는 ‘계약 및 청구절차의 편리성’ 및 ‘상품내용과 설명의 이해도’가 각각 57%, 49%를 차지함.
 - 뒤를 이어 ‘통신수단에 의한 고객서비스의 신속성’(31%), ‘고객서비스의 항시적 접근성’(30%) 등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관련 요인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각각 37%, 36%를 차지하며 4위와 5위에 위치함.

〈그림 9〉 호주 보험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선택 시 중요사항



자료: EY 홈페이지(<http://www.ey.com/GL/en>).

3. 정리 및 시사점

- 본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인도 그리고 중국의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의 우선 순위를 국가별로 살펴봄.
 -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인도는 상품경쟁력이나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련 요인을 보험회사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상품경쟁력 관련 요인을 특히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음.
 - 단, 인도의 경우 신흥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요인을 상품경쟁력이나 보험회사보다 특히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소비자들이 판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되는 판매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판매자 책임 부여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보험회사와 관련한 요인을 상품경쟁력이나 판매 및 고객서비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국가 대비 특이한 현상임.
 - 상기 9개국 중 보험회사의 브랜드나 재무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함.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2.1	2.7	3.2	3.5	3.9	3.4	3.3	2.7	
경상수지	12,614	22,347	22,250	23,936	15,186	24,240	22,566	27,228	
수출	135,318	141,156	136,791	146,367	137,549	145,683	141,799	147,697	
수입	129,732	126,758	126,034	133,062	132,345	130,915	132,867	129,351	
실업률	3.6	3.1	3.0	2.8	4.0	3.7	3.3	3.2	
금리	국고채(3년)	2.68	2.67	2.92	2.90	2.87	2.82	2.50	2.17
	회사채(3년)	3.07	3.04	3.33	3.33	3.30	3.25	2.89	2.51
소비자물가지수	107.55	107.41	107.87	107.84	108.76	109.13	109.36	108.90	
환율	원/달러	1,084.74	1,122.57	1,110.52	1,062.10	1,068.98	1,029.63	1,026.18	1,086.57
	원/엔화	1,174.78	1,138.14	1,122.63	1,058.26	1,039.50	1,008.19	987.17	950.23
KOSPI	1,985.40	1,932.58	1,917.71	2,009.31	1,946.13	1,993.47	2,041.86	1,948.13	
외환보유고	327,905	327,778	332,575	344,899	351,509	361,101	366,656	363,471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95,836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
- 생보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
수입보험료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
지급보험금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
- 손보	29,722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
원수보험료	169,569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
원수손해액	139,847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
은행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239,283
- 일반 ²⁾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87,280
- 신탁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52,003
증권 ³⁾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자산운용 ⁴⁾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종금 ⁵⁾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6,816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생존	보험료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증가율	-8.9	-39.6	-39.2	-32.0	-40.6	14.1	8.9	13.4	-7.6
	구성비	21.7	22.5	19.3	21.1	22.5	22.9	23.0	19.2	21.7
사망	보험료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증가율	3.3	4.1	4.0	3.8	3.6	4.1	4.6	6.2	4.6
	구성비	32.2	33.1	27.9	30.9	31.6	31.0	32.5	26.0	30.0
생사 혼합	보험료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증가율	3.3	-15.4	-13.2	-9.0	-25.5	8.5	6.4	6.8	-3.5
	구성비	19.4	19.3	16.0	18.1	19.7	19.5	19.2	15.0	18.1
변액 보험	보험료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증가율	0.4	-0.8	-2.5	-0.9	-6.2	-2.5	0.5	0.9	-1.9
	구성비	21.5	21.4	17.9	20.1	20.2	19.3	20.2	15.9	18.7
개인계	보험료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증가율	-0.4	-15.1	-15.0	-10.6	-19.2	5.8	5.0	6.8	-1.7
	구성비	94.8	96.3	81.1	90.2	93.9	92.7	95.0	76.0	88.6
단체	보험료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증가율	5.3	-2.4	38.6	25.7	13.2	51.2	43.5	45.2	45.8
	구성비	5.2	3.7	18.9	9.8	6.1	7.3	5.0	24.0	11.4
합계	보험료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증가율	-0.1	-14.7	-8.3	-8.0	-17.8	8.1	6.5	14.1%	1.9%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6,096	26,434	29,850	82,379	30,778	30,000	31,034	33,554	125,365
	증가율	1.5	-1.7	3.0	1.0	7.4	15.0	17.4	12.4	12.9
	지급률	49.1	49.0	53.8	50.7	53.1	49.5	52.8	53.3	52.2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868	42,859	44,217	129,944	45,364	41,527	42,686	43,569	173,147
	증가율	2.0	-1.3	4.6	1.7	-1.3	-3.1	-0.4	-1.5	-1.6
	지급률	54.3	53.9	55.1	54.4	55.8	50.6	51.3	51.1	52.2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7,646	25,171	27,710	80,527	32,856	30,000	29,169	28,512	120,537
	증가율	-8.1	4.7	19.6	4.1	18.9	8.5	15.9	2.9	11.4
	지급률	58.1	54.5	60.4	57.6	64.8	58.1	59.3	58.1	60.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6,178	28,021	32,989	87,188	28,805	32,993	33,595	29,620	125,012
	증가율	-5.9	-6.0	6.8	-1.5	-5.0	26.0	19.9	-10.2	6.4
	지급률	49.8	54.6	64.1	56.1	55.5	64.4	65.1	57.0	60.5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22,788	122,485	134,766	380,038	137,803	134,520	136,484	135,255	544,062
	증가율	-2.3	-1.4	7.5	1.3	4.0	9.6	11.4	0.4	6.1
	지급률	52.9	53.0	57.8	54.6	57.0	54.8	56.2	54.3	55.6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2,851	8,963	17,151	38,964	17,728	19,478	14,592	26,651	78,449
	증가율	-7.0	-23.5	-5.1	-10.6	21.8	51.6	62.8	55.4	46.6
	지급률	100.7	100.1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전체	지급보험금	135,639	131,447	151,916	419,002	155,531	153,998	151,076	161,906	622,511
	증가율	-2.8	-3.3	5.9	0.0	5.7	13.5	14.9	6.6	10.0
	지급률	55.4	54.8	52.9	54.2	60.4	58.1	59.1	49.4	56.3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4)}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⁷⁾
생존 보험	사업비	7,859	7,929	8,742	24,530	7,572	8,116	7,566	8,482	31,737
	증가율	-13.4	-20.5	-13.9	-16.0	-27.2	3.3	-4.6	-3.0	-9.1
	사업비율	14.8	14.7	15.8	15.1	13.1	13.4	12.9	13.5	13.2
사망 보험	사업비	23,143	23,723	25,309	72,174	23,332	25,941	24,297	27,531	101,100
	증가율	7.6	4.8	7.1	6.5	-7.7	12.1	2.4	8.8	3.7
	사업비율	29.3	29.9	31.5	30.2	28.7	31.6	29.2	32.3	30.5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712	4,529	4,908	14,148	4,378	4,505	4,400	4,548	17,830
	증가율	-21.1	-20.2	-19.6	-20.3	-26.4	-4.4	-2.9	-7.3	-11.3
	사업비율	9.9	9.8	10.7	10.1	8.6	8.7	8.9	9.3	8.9
개인 보험계	사업비	35,714	36,181	38,958	110,852	35,282	38,562	36,263	40,560	150,667
	증가율	-2.4	-5.4	-2.3	-3.4	-15.2	8.0	0.2	4.1	-1.2
	사업비율	15.4	15.7	16.7	15.9	14.6	15.7	14.9	16.3	15.4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05	1,083	1,334	3,422	1,059	1,267	994	1,127	4,447
	증가율	-10.0	-10.8	17.4	-1.3	-13.3	26.1	-8.1	-15.5	-4.2
	사업비율	7.9	12.1	2.5	4.5	6.8	6.6	7.7	1.4	3.5
전체	사업비	36,719	37,263	40,292	114,274	36,341	39,830	37,257	41,687	155,115
	증가율	-2.6	-5.6	-1.8	-3.3	-15.2	8.5	0.0	3.5	-1.3
	사업비율	15.0	15.5	14.0	14.8	14.1	15.0	14.6	12.7	14.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7)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화재	보험료	734	923	2,413	759	739	703	905	3,106
	증가율	-3.1	-2.4	-2.9	-6.1	-2.1	-4.3	-1.9	-3.6
	구성비	0.4	0.5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2,257	1,638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증가율	1.8	-24.3	-10.7	17.0	-9.2	-18.5	11.7	-2.2
	구성비	1.3	0.8	1.1	1.0	1.1	1.0	0.8	1.0
자동차	보험료	32,190	32,907	97,435	32,377	33,665	34,259	35,183	135,484
	증가율	0.1	2.0	0.4	3.2	4.1	6.4	6.9	5.2
	구성비	18.8	17.1	18.1	17.7	19.1	19.1	15.7	17.7
보증	보험료	3,461	3,976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증가율	-9.1	1.6	-4.8	-4.3	-3.9	4.3	1.8	-0.6
	구성비	2.0	2.1	2.1	2.1	2.1	2.0	1.8	2.0
특종 ²⁾	보험료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증가율	-1.6	3.1	2.4	2.6	0.3	-1.2	2.9	1.2
	구성비	6.8	6.4	6.9	6.9	7.3	6.4	5.7	6.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688	1,762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증가율	47.1	34.0	40.0	-3.0	4.7	-14.6	-11.5	-6.8
	구성비	1.0	0.9	0.9	0.8	0.8	0.8	0.7	0.8
장기 손해	보험료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증가율	5.4	6.4	5.6	7.5	6.1	4.9	5.9	6.1
	구성비	62.0	55.1	58.7	60.6	60.8	62.1	50.3	58.0
개인 연금	보험료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증가율	2.7	-0.7	3.1	-2.6	-3.5	-3.5	-3.2	-3.2
	구성비	6.2	5.5	5.9	5.7	5.7	5.7	4.6	5.4
퇴직 연금	보험료	2,527	22,374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증가율	-42.4	28.1	9.8	106.1	-5.5	66.0	98.5	78.9
	구성비	1.5	11.6	5.8	5.0	3.3	2.3	19.9	8.3
계	보험료	171,156	192,842	537,58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증가율	2.3	6.8	4.2	8.0	3.8	4.6	15.9	8.3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3		2014			
		2/3	3/3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0.9	44.0	73.2	50.2	53.4	45.4
	사업비율	45.2	50.5	50.0	43.7	48.1	44.3
	합산비율	106.1	94.5	123.2	93.9	101.5	89.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8.0	67.5	89.5	18.5	44.3	85.4
	사업비율	29.7	55.4	36.3	27.1	36.8	45.5
	합산비율	87.7	122.8	125.8	45.6	81.1	130.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31.7	45.8	72.5	7.4	70.8	41.6
	사업비율	10.2	34.4	13.1	15.1	11.0	20.0
	합산비율	41.9	80.2	85.6	22.5	81.8	61.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1.1	66.1	69.2	71.0	67.7	66.5
	사업비율	23.1	20.9	19.6	16.9	19.7	19.4
	합산비율	94.2	87.0	88.8	87.9	87.4	85.9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4.1	116.9	64.6	89.4	98.1	124.7
	사업비율	43.4	43.0	42.1	49.7	40.7	62.2
	합산비율	97.5	159.9	106.7	139.1	138.8	186.9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0.0	52.8	72.9	45.1	67.1	83.2
	사업비율	27.6	30.1	29.4	28.1	27.6	29.3
	합산비율	87.6	82.9	102.3	73.2	94.8	112.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9.3	90.3	84.0	84.4	89.3	95.5
	사업비율	19.1	22.5	20.8	19.8	19.4	19.4
	합산비율	108.4	112.8	104.8	104.2	108.7	114.9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3.5	84.0	85.1	84.4	85.2	86.1
	사업비율	18.3	18.4	18.0	17.9	18.0	18.5
	합산비율	101.8	102.4	103.1	102.3	103.2	104.7
전체	경과손해율	81.8	82.5	83.3	80.6	83.9	85.6
	사업비율	19.2	20.4	19.1	18.7	18.8	19.4
	합산비율	101.0	103.0	102.3	99.3	102.7	105.1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를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15호 (1. 5)	<p>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과 추세 (김진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리(Swiss Re)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과 신종 리스크 등장으로 향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에는 거시 경제적 변수 외에 국가별로 새롭게 진행되는 사회적 요인, 법률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향후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신종리스크 발생과 사회적, 법률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 <p>(Swiss Re 등)</p>
제315호 (1. 5)	<p>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와 최신 동향 (이소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2012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중국 보험회사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부동산과 금융기관을 인수하였음. ·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p>(Sina Finance, Hexun 등)</p>
제316호 (1. 12)	<p>ECB의 양적완화와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평가 (이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됨에 따라 ECB의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ECB 양적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그리스 재정불안이 유로존 경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ECB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채권 및 외환변동성이 우려되고, 그리스의 재정불안은 올해 1분기까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유로존의 정치,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함. <p>(EY, FT, 국제금융센터 등)</p>
제316호 (1. 12)	<p>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 전망과 시사점 (채원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 Best에 따르면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 3자 의무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은 집중도가 높고 상위 10개 회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손해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보험사기 및 사업비 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 관리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고객 확보가 필수적임. <p>(A.M. Best, 금융감독원, AT Kerney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17호 (1, 19)	<p>FT, 2015년 세계 주요 이슈 전망 발표 (이아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분석한 '2015년 세계 전망'을 발표함. · FT는 2014년 50% 가량 급락한 국제유가가 2015년에도 공급과잉과 수요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 · FT는 2015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단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함. <p>(FT 등)</p>
제317호 (1, 19)	<p>미국 연금시장 경쟁 확대 및 동향 (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금시장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Private Equity Firm)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시장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 연금 상품 공급자들의 비용 효율성 달성이 연금 상품의 가격 경쟁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상품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음. <p>(EY 등)</p>
제318호 (1, 26)	<p>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변화와 시사점 (이소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독일 보험금융회사인 Allianz는 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사이버리스크,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가격 및 전쟁 등 기업의 리스크 주요도 순위가 2014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이버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함. · 또한 EMEA(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포함)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p>(Allianz 등)</p>
제318호 (1, 26)	<p>미국 LTC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김진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장기간병(LTC)보험은 고령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잘못된 가정을 기초로 판매된 계약들이 다수 남아 미국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TC보험은 보험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장기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가장 큰 보험상품인 만큼 상품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p>(A.M. Best)</p>
제319호 (2, 2)	<p>유로지역 불확실성 확대 요인과 시사점 (채원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ECB의 양적완화정책 발표와 이에 대응한 덴마크의 통화정책 및 스위스의 환율정책, 그리고 그리스 총선 결과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향후 유로화 및 달러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및 동유럽,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국가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정치적 위험요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p>(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19호 (2. 2)	<p>합법적 비트코인 거래소 개장과 시사점 (이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월 25일 합법적 거래소를 개장한 코인베이스(Coinbase Inc.)는 거래소를 통해 개인 및 기관들의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 비트코인 가격의 실시간 모니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문가들은 합법적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으로 비트코인 관련 안정성 및 변동성이 극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비트코인 활용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 <p style="text-align: right;">(WSJ, 한국은행 등)</p>
제320호 (2. 9)	<p>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기준 (이아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15년 6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전망함. · 한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고려와는 반대로 유로 지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성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며 국가 간 환율 전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짐. <p style="text-align: right;">(WSJ, FT 등)</p>
제320호 (2. 9)	<p>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nich RE는 빅데이터가 요율 및 상품개발, 판매 및 마케팅, 언더라이팅, 보상에 이르는 보험산업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앞으로 보험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은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p style="text-align: right;">(Munich RE 등)</p>
제321호 (2. 16)	<p>미국 CI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김진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치명적 질병 보험(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은 보충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시장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CI보험은 과학 발전으로 과거 진단되지 않았던 암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한 진단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책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right;">(A.M. Best 등)</p>
제321호 (2. 16)	<p>2014년 중국 보험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이소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및 순이익은 각각 2013년보다 17.5%, 106.6% 크게 증가함. · 최근 추진된 중국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는 2014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및 순이익의 증가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규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p style="text-align: right;">(CIRC, Swiss Re, Sina Finance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22호 (3. 2)	<p>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채원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호주에 이어 미국도 최근 상업용 무인항공기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무인항공기는 주로 군사목적과 정부부문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정유, 철도, 물류 등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상업용 무인항공기산업 확대는 항공기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무인항공기의 본격적인 상업용도 활용과 관련한 규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Swiss Re, Cognizant, 국토교통부 등)</p>
제322호 (3. 2)	<p>인도 경제성장률 상승 원인과 전망 (이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인도 통계청은 2014년 4/4분기(2014.10~12)인도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 회계연도(2014.4~2015.3) GDP 성장률은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GDP 집계방식 변화와 친시장을 핵심으로 한 모디노믹스의 영향에 따른 것임. · 다수의 경제전문기관은 향후 2년 이내에 인도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전망에 대해 성장률이 아닌 절대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함. <p style="text-align: right;">(WSJ, 세계은행 등)</p>
제323호 (3. 9)	<p>신흥국 민영건강보험 확대 전망 (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리는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빠른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2020년 보험료 규모는 788억 달러, 2013~2020년 연평균성장률은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공공부문에서 담보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논의는 이루어질 것임. <p style="text-align: right;">(Swiss RE 등)</p>
제323호 (3. 9)	<p>2015년 중국 양회 주요 논의 내용 (이아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2015년 3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3일 정협 업무보고를 통해 '반(反)부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혁'과 '혁신', '민주' 등도 강조함. · 중국 정부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2015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한 2015년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함. <p style="text-align: right;">(WSJ, FT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24호 (3. 16)	<p>Capgemini의 소비자경험평가지수에 대한 논의 (이선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Capgemini가 발표한 2015년 세계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경험평가지수(CEI)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보험 소비자경험평가지수(CEI)는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지역적 특징이 있으나,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 소비자경험평가지수(CEI)의 국제적 순위를 살펴보면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과 직접 체감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므로, 보험산업의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right;">(Capgemini)</p>
제324호 (3. 16)	<p>2015년 미국의 보험 규제 이슈 (김진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미국 보험 규제관련 이슈로 사이버 보안 강화, 원칙중심 준비금적립(PBR) 방식 도입, 생명보험회사의 캡티브 재보험자회사 오용, 미국 모집인협 회개혁법(NARAB II) 통과에 따른 규제, 그리고 글로벌 보험규제관련 이슈 등이 부각되고 있음. · 미국 국내 보험산업 이슈로는 사이버 보안 강화, 원칙중심 준비금적립(PBR) 방식 도입, 생명보험회사의 캡티브 재보험자회사 오용 등이 주목받고 있음. · 또한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해외 재보험회사의 미국 내 담보물 유치에 관한 대상(對象) 협정과 상호심사체계를 통한 규제방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자본기준 제정이 이슈화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CIPR, Deloitte 등)</p>
제324호 (3. 26)	<p>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5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CIRC(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 및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CIRC는 사적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활성화 및 유배당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자동차상업보험 약관 및 요율 자유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 · 향후 중국 보험시장은 규제개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대형 보험회사는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p style="text-align: right;">(Sina Finance, CIRC, IAC 등)</p>
제325호 (3. 23)	<p>중국 금융위험 요인 변화 및 시사점 (채원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 지속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하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WSJ, FT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25호 (3. 23)	<p>아시아 금융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이용 실태 (이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킨지(McKinsy&Company)는 2015년 3월 통신기기 이용 증가 및 온라인 거래 성장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아시아 디지털 금융 이용자가 약 7억 명 이상으로 2011년에 비해 급증하였다고 발표함. · 그러나 동시에 맥킨지는 각국의 금융기관 규제 및 전통채널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전통채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p style="text-align: right;">(A, M, Best 등)</p>
제326호 (3. 30)	<p>2015년 3월 FOMC 정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아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준(Fed)은 2015년 3월에 개최된 FOMC에서 금리인상까지 인내심을 갖는다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곧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달러화강세 영향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됨. · 추후 인상가능성, 달러화강세 등의 변동성이 존재함으로 향후 FOMC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FRB, WSJ)</p>
제326호 (3. 30)	<p>신흥국 보험시장의 보험회사 규모별 분석 (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 Best는 보험회사 규모에 따라 신흥국 보험시장이 선진국 보험시장과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900개 보험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 보험료 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 보험시장과 신흥국 보험시장이 모두 대형사와 중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았고, 성장률 측면에서는 두 시장 모두 소형사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신흥국 보험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선진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흥국의 보험회사 간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보임. <p style="text-align: right;">(A, M, Best)</p>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역,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5년 봄호 (통권 73호)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3, 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